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제342호
2022년 10월호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www.snuaa.org

news@snuaa.org

“아프리카에 ‘요셉의 창고’를~” 임헌진(간호대 74) 동문, 차드에서 벼농사



임헌진 동문(앞줄 오른쪽)은 10년 전부터 아프리카의 ‘검은 심장’으로 불리는 지구촌 최빈국 차드에서 벼농사를 짓는 한편 간이 보건소와 학교를 건립하는 등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앞장서 실천하고 있다. 벼는 건기철인 12월 중순 추수할 예정이다. <관련기사=10~11면>

홈커밍데이에 최대 인파 ‘성황’

10월16일 버들골에서 개막 ... 미주서도 80여명 ‘역대급’ 규장각 도서관 등 특별 투어, 5박6일 제주·동해안 관광도

제 43차 홈커밍데이 겸 동문화합 한마당이 80명이 넘는 미주 동문들도 참가한 가운데 10월 16일(한국시간) 모교 캠퍼스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행사는 3년 만에 처음으로 대면 행사로 열려 1,500여 명이나 되는 인파가 몰렸다. 홈커밍데이는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온라인 비대면으로 치러졌었다.

노명호(공대 61) 미주 동창회 회장은 “동문들이 미주 전역에서 고루 참석하는 등 이번 행사에 관심이 집중됐다”며 “예년에는 고작 20~30명이 참석했는데 올해는 ‘역대급’ 인원이 참가 신청을 내 매우 고무적이었다”고 말했다.

미주 동창회는 한국 총동창회에 1,000달러 상당의 경품(아이패드)을 기증했다. 홈커밍데이는 버들골에서 공식 개막

식을 가졌다. 눈길을 끈 행사는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선자들에 축하패 전달식. 모두 51명의 학부 및 대학원, 특별반 동문들이 각급 선거에서 당선되는 쾌거를 일궜다.

이어 열린 레크리에이션은 개그맨 이웅진의 재치있는 사회로 동문들에게 웃음보따리를 안겼다. 이어 레드벨벳 웬디, 미스트롯 홍자 등 K-팝 스타들의

축하공연으로 막을 내렸다.

앞서 14일에는 대학 측이 미주 동문들을 위해 규장각과 도서관, 박물관 등 캠퍼스 투어를 실시했다.

한편 17일에는 5박 6일 일정의 제주도 및 동해안 관광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번 단체 관광에도 40여명이 참가하는 등 성황을 이뤘다.

취재=박평일<농생대 69>

허준이·최예진 동문 ‘맥아더상’ 수상 ‘영예’ ‘천재들만이 받는 상’ ... 5년간 80만불 받아

서울대 동문들이 미국서 ‘천재들만이 받는 상’으로 널리 알려진 ‘맥아더 상(MacArthur Fellows)’을 수상하는 쾌거를 일궜다.

수상자는 허준이(자연과학대 03) 프린

스턴대 교수와 최예진(공대 97) 워싱턴대 교수다.

맥아더 재단은 지난 10월 12일 올해 과학·예술·사회 각 분야에서 ‘특별한 창의성’을 보인 25명을 올해의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1981년 제정된 맥아더상은 해마다 뛰어난 창의성과 미래가치를 인정받는 인재들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수상자는 앞으로 5년간 총 80만달러를 받는다.

재단 측은 “허 교수가 혁신적 연구와 협업으로 신세대 수학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고 수학계에 활기를 불어넣었다”고 높이

평가했다. 허 동문은 지난 7월 ‘수학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필즈상을 받은 바 있다. <3면에 계속>

박민식(수의 65) 동문 발전공로상, 100만불 기부

박민식(수의대 65·전 UCLA 교수) 동문이 제 15회 서울대 발전공로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박 동문은 2008년 ‘박민식·박금옥 기금’ 1억원을 기부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수년간 모교에 70만 달러를 기부했다.

2020년에는 모교 발전기금 미주재단에 기부금 30만 달러를 추가 기탁해 누적 기부액 1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수의대의 미국 수의사회 인증과 동물병원 신축에 큰 도움이 됐다.

<관련기사=8면>

김미란 교수의
K-컬처 설문조사
관련기사=4~5면

미주동창회 주소

SNU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2005
Tel: 213-908-5586 Email: snuaausa30@gmail.com

서울대 미주동창회의 공식 명칭은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입니다. 동창회비와 후원금을 보내주실 때는 pay to the order에 공식 풀네임 또는 약칭 SNUAA USA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미주동창회는 기부자들이 세금 보고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영리단체로, EIN(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은 13-3859506입니다.

고광국(공대 54) · 고국화(공대 56) 동문 부부 “열정이 있으면 돌도 뚫을 수 있어요” 한국 최초의 여성 공학박사 · 벤처 기업인

고광국(공대 54) · 고국화(공대 56) 동문 부부는 대학시절 만난 캠퍼스 커플이다. 부부의 전공도 화학공학, 유학도 아이오와 대학에서 함께 했다. 특히 고국화 동문은 ‘최초’라는 타이틀을 여러개 갖고 있다. 한국 최초의 여성공학박사, 이민 초창기의 여성 벤처 기업인 등.

학위를 마친 뒤 고광국 박사는 엑슨 모빌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며 특허를 여러개 냈다. 고국화 박사는 수십년간 공부한 화학공학 분야에서 자신만이 갖고 있는 기술을 사용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

이 있었다. 그가 창업한 회사는 ‘크라이센 인터스트리스(Chrysan Industries, Inc.)’로 자신의 이름 ‘국화’(Chrysanthemum)를 차용했다. ‘크라이센’은 1977년 설립된 회사여서 미국 최초의 한국인 창업회사라고 해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성 싶다. 부부는 지난 2009년 모교를 방문해 장학금 10만 달러를 쾌척하는 등 동문에도 남다르다. 미시건 동창회의 이광진(공대 81) 회장과 이호정(음대 81) 총무국장이 두 선배 동문을 찾아 심층 인터뷰했다.

- 편집자.

- ‘국화’라는 이름에 특별한 사연이 있나요?

아니에요. 솔직히 어렸을 때 내 이름이 싫었어요. ‘국화’ 꽃 이름이어서 놀림을 당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 그런데도 회사 이름으로까지 사용하셨으니 성장하셔서 이름에 자부심을 가지게 되신 것 같습니다.

예. 원래는 국화가 영어로 ‘크리센티엄’으로 발음되잖아요. ‘Chrysan’으로 줄여 회사 이름을 만들었는데 미국인들이 ‘크라이센’이라고 불러요.

- 회사 창립 얘기 좀 해주세요.

(박사) 학위를 받고는 1년반 정도 작은 회사에서 일했어요. 창립한 것은 1977년이고 디트로이트 다운타운에 사업을 시작하기 적당한 건물을 하나 샀지요. 버려진 건물이었기에 초기 투자금은 많이 안들었어요. 공장이었는데 2만5천~3만 스퀘어피트로 꽤 큰 사이즈였어요. 1990년 플리머스(미시간)로 이사하기 전까지 이곳에서 제품을 생산했어요.

- 주로 어디에 쓰는 제품인가요?

처음 생산한 제품은 절삭유(metal working fluids)라고 해서 엔진이나 트랜스미션 부품들을 가공할 때 쓰는 윤활유와 가공후 클리닝에 필요한 세척제 등이었습니다. 일반인에게는 팔지 않고 많이 팔 수 있는 빅 3 자동차 메이커에 OEM으로 납품했어요.

지금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제품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GM에 납품한 절삭유인데 수용성(water soluble) 오일이예요. GM이 5만 달러의 연구 그랜트를 줘 개발했지요. 덕분에 GM은 크랭크 샤프트의 3단계 그라인딩 공정을 1단계로 줄여 상당한 비용절감 효과를 거뒀습니다.

두번째는 크라이슬러 synthetic 쿨런트 프로그램에서 사용된 C150 쿨런트입니다. 포드도 이 제품을 사용한 결과 공정 비용이 크게 절약됐으며 우리 품질을 인정해줬습니다.

- GM에서 최우수상을 받으셨지요?

네. ‘Minority Supplier of the Year’라고. ‘올해의 납품상’이라고 할까요. 1985년에 받았는데 창업한지 불과 8년만에 이 같은 큰 상을 받아 지금도 자랑스롭습니다.

- 회사가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였을까요?

비즈니스에서는 퀄리티와 서비스가 무엇보다 중요해요. 저는 현장에 직접 가서 공장 기술자들과 얘기를 많이 해요. 사실 저는 자동차 구조를 몰랐는데 그 분들과 얘기하면서 많은 걸 배웠지요. 현장에서 보고 익힌 것을 랩에 와서 연구해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고광국 박사가 슬쩍 도넛 얘기를 꺼냈다.) 아, 맞아요. 현장에 갈 때는 항상 도

리 부부가 서울대 공대 발전공로상을 받은 것이지요.

(고 박사는 지난 2017년 워싱턴 DC의 싱크탱크 ‘한미경제연구소’(KEI)가 선정한 ‘자랑스런 한인 과학자’로 뽑혀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됐다. 이듬해인 2018년에는 재미과학기술자협회(KSEA)의 연례 학술대회(UKC)에서 KSEA와 매일경제 회장상을 받았다. 이 상은 과학기술



고광국 · 고국화 부부는 임원진을 자택에 초대하는 등 평소 동창회에 관심이 크다.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박셋별(생가대 94), 김규일(사회대 93), 임성철(농생대 86), 한영신(생가대 86), 심민정(음대 96), 김미란(농생대 88), 박기완(농생대 86), 이광진(공대 81), 신미나(인문대 91), 이호정(음대 81), 고국화(공대 56), 고광국(공대 54), 이병수(문리대 65).

윤활유 메이커 ‘크라이센’ 창업 아직도 1주 2~3일은 회사 출근

넛을 사 갖고 갔어요. 엔지니어와 테크니션들이 도넛을 먹으며 내가 궁금해 하는 것을 알려주더라고요.

- 두분 모두 빅 3 자동차 메이커에 다니신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네트워킹과 세일즈를 하셨나요?

옛날에는 ‘토마스 디셔너리’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에 큰 회사들의 주소와 임원 명단, 연락처 등이 자세하게 적혀 있는데 이 책을 보고 찾아갔어요. 처음엔 여자가 전화하니까 약속잡기가 쉽지 않았어요. 내가 박사학위가 있고 전문지식이 있으니까 그제서야 만나 주고 도와주더라고요. GM Research Center의 책임자들도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상은 있는지요?

앞서 얘기한 GM상 이외에 2020년 우

분야에서 주목할만한 연구성과를 내거나 성공한 기업인에 수여된다. 당시 고 박사는 ‘열정은 돌도 뚫을 수 있다’는 말을 남겨 감동을 줬다.)

- 창업하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아뇨. 모르고 했어요. 물건만 좋으면 다 잘 팔았어요. 이렇게 힘든 줄 정말 몰랐어요. 비즈니스를 하면 무엇보다 고독해요. 차에서 혼자 생각도 많이 했고 ... 외로웠어요.

- 창업을 하려는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남이 돈을 버니까 나도 창업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되요. 자기가 좋아서 해야지. 무엇보다 ‘열정(passion)’이 있어야 합니다. 몸이 건강해야 하고 이것이 내 인생이다 하고 다 바쳐야 합니다. 그리고 패션이 있으면 늙지 않아요.

- 대학시절로 돌아가 볼까요? 당시 공대에 여학생이 있었나요?

공대는 한 학년에 500명쯤 됐는데 56학번 동기생 중 여학생이 화공과에 2명, 기계과 1명, 섬유과 1명 등 모두 4명이 있었어요. 55 학번에는 2명 밖에 없었지요.

- 고광국 선배님을 어떻게 만나셨나요?

남편이 그때 대학원 TA(티칭 조교)였는데 남편의 지도교수께서 우리반에서 3~4명을 선출하여 TA의 연구실험을 도와주게 했어요. 이 서머잡을 통해서 그이와 사귀게 되었지요.

- 두 분이 함께 유학을 오셨나요?

남편이 1년 먼저 왔어요. 나는 1965년에 왔는데 큰 아이를 낳고선 친정부모님에 맡기고 달랑 50달러를 들고 왔지요. 그 이상은 해외에 못 갖고 나갔어요. 다행히 우리는 폴스칼라십을 받았어요.

당시 아이오와 대학에 한국인 교수 한 분과 유학생이 여럿 계셨는데 모두들 뛰어났어요. 덕분에 한국인들은 모두 우수하다고 인정해 장학금을 받았지요.

(고 박사는 최근 대학으로부터 ‘자랑스런 동문상(Distinguished Alumni of Iowa)’을 받았다.)

- 요즘도 출근하시나요? 하루 일과는 어떻게 보내시는지요?

아들네 사업을 넘겨줬지만 지금도 1주일에 2~3일은 회사에 나가 컨설팅을 해요. 윤활유 잡지도 보고있고 내 전공과 관련한 이메일이 오면 답장을 해주고요. YOLO라는 북클럽에서 책도 읽고 있고 저의 다섯번째 책도 쓰려고 계획중입니다. 아직도 하루를 시간단위로 쪼개고 있어요.

- 곧 한국여행을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거의 매년 방문해요. 10월 25~26일에 울산 일정이 잡혀 있어요. 또 엔지니어 과학자 인명사전을 만든다고 해서 인터뷰도 예정돼 있고요. 무엇보다 서울대 공대 여성 동창회 연례모임에도 참석해야 되요. 요즘은 여자 후배들이 많아 든든해요.(웃음)

지난 8월말 미시간 지부 임원들을 데크로 초청해주신 것에 두 분께 한번 더 감사드리고 동창회 모임에서 다시 뽀끼를 기약하며 인터뷰를 마쳤다. 고 박사 부부는 10월 16일 한국으로 떠났다.

취재=이광진(공대 81)

관악연대 송년 · 골프 모임 등 ‘활기’ 활성화 기금 2만불, 180명 모인 곳도

전국의 관악연대 모임이 활기를 띠고 있다. 지난달 미주 동창회(회장 노명호)가 관악연대 활성화 기금으로 2만달러를 책정, 재정지원을 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남가주 총동창회(회장 박제환)는 관악연대 송년회 겸 골프 대회(관악 인비테이셔널)를 개최한다. 오는 12월 4일(일) 팔로스 버디스의 로스 버디스 골프코스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관악 캠퍼스에서 대학을 다닌 동문들(75학번 이후)과 게스트가 참가 대상이다.

참가 인원은 선착순 48명. 같은 학번(최소 3명) 팀 구성을 원칙으로 했는데 동기생들 간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신청 마감: 11월 15일



지난 9월 14일 남가주 79-80 학번 친선 골프 토너먼트에 참가한 동문들. 어바인의 스트로베리 골프 코스에서 열린 이날 대회엔 16명이 모여 단합을 다졌다. 12월 대회부터 ‘관악 인비테이셔널’로 치러진다.

▲참가 문의: 김희경 총무

(310-971-0534, hellenkim1@gmail.com)

뉴잉글랜드 동창회(회장 임영호)의 관악회도 지난 9월 24일 90학번 이후 동문들을 BBQ 파티에 초청, 단합을 다졌다.

이날 피크닉을 겸한 야유회에는 180명이 넘는 동문들이 참가하는 등 성황을 이뤘다. 관악회 모임은 이번이 3회째로 갈수록 참가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신진우(농생대 04) 관악회 회장은 미주 동창회의 지원금이 모임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고마워했다.

이외에도 미시간, 시카고를 비롯해 전국의 관악클럽은 연말 모임을 개최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관련기사=16면〉

총장후보자 이철수 · 유홍림 · 남익현 · 차상균 교수 11월 중 최종 선출 … 교육부 제청 · 대통령 임명

모교 제 28대 총장 예비후보자 4명이 확정됐다.

총장추천위원회(위원장 노정혜)는 지난 9월 5일 후보대상자 소견 발표회를 열고

▲이철수(법학 78) 법학대학원 교수 ▲유홍림(정치 80) 정치외교학부 교수 ▲남익현(경영 81) 경영학과 교수 ▲차상균(전기공학 76)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 교수 등을 총장 예비후보자로 선출했다.

앞서 8월 17일까지 진행된 총장 후보 모집에는 총장예비후보자 4명을 비롯해 ▲유상임(요업공학 78) 재료공학부 교수 ▲이봉주(사회복지 81)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태균(국사 85) 국제대학원 교수 등 13명

이 지원했다.

서울대는 11월 중 최종후보 1인을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후보자는 교육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신임 총장은 2023년 2월 1일부터 4년임기를 시작한다.

음대 정기 공연에 후원금

미주 동창회(회장 노명호)가 오는 11월 19일 정기공연을 갖는 남가주 음대 동창회에 1,000 달러의 후원금을 보냈다. 콜번 음대의 지파홀에서 열리는 이날 공연에는 남가주 서울대 합창단도 출연한다.

▲ 문의: 유혜연(562-412-1910)

해하도록 하는 자연어인식(NLP)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로 꼽히는 컴퓨터 과학자다. 워싱턴대 앨런 AI 연구소에서도 인공지능 관련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다.

한편 이민 2세인 모니카 김(44) 위스콘신대(매디슨) 역사학 교수도 이번에 맥아더 상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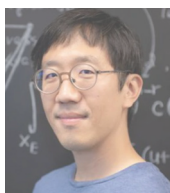
미국의 외교정책과 군사개입의 상호작용, 탈식민지화 과정 등에 대한 연구성과를 인정받았다.

〈관련기사=7면〉

‘맥아더상’ 수상 동문



최예진



허준이

〈1면에서 계속〉

최 동문은 인간의 언어를 컴퓨터가 이



하틀랜드 동창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동문들. 지난 9월 10일 열린 모임에는 캔사스와 오클라호마를 비롯한 인근 5개주 동문들이 모여 단합을 다졌다.

하틀랜드 동창회 신임회장 임소연(음대 91) 동문 선출

하틀랜드 동창회 신임 회장에 임소연(음대 91) 동문이 선출됐다.

임 신임회장은 지난 9월 10일 캔사스 오버랜드 파크의 웨라톤 호텔에서 열린 동문의 밤을 겸한 정기총회에서 이치현(약대 77) 회장에 이어 새 회장으로 지명돼 만장일치로 인준을 받았다.

총회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2년만에 처음 대면모임으로 열렸다.

하틀랜드 동창회는 네브라스카와 오클라호마, 아이오와, 미주리 및 캔사스 등 5개주를 커버한다.

90년대 학번이 지역 동창회 회장으로 선출된 것은 임 동문이 처음

으로 알려졌다. 임 신임 회장은 인사말에서 “앞으로 젊은 동문들이 많이 참가해 보다 활기있는 모임으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는 이상강(의대 70) 미주 동창회 차기 회장이 격려사를 하는 등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진행됐다.

장학생 선발식도 함께 열렸는데 고은경(프린스턴대), 서혜인(예일대), 이원준(시카고대), 조한재(UC 샌디에고) 등 4명이 장학금을 받았다.

동문의 밤 순서에선 피아니스트 오지현(음대 11) 동문이 바흐와 쇼팽을 연주해 큰 박수를 받았다.



이치현(오른쪽) 전임회장이 장학생을 소개하고 있다.

명복을 빕니다

노택진(법대 47) 동문 향년 97세 … ‘최고령’

노택진(법대 47) 동문이 지난 9월 30일 별세했다. 향년 97세.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출생한 고인은 1950년부터 20년 동안 재무부에서 공직생활을 했다.

1970년 이민온 후 주로 LA에서 생활해 온 고인은 지난 2018년 당시 93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손수 운전과 하고 송년모임에 참석해 동문들을 놀라게 했다.

최진석(법대 64) 전 남가주 법

대 회장은 “종종 안부전화를 드렸는데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다”고 안타까워했다.

최 전 회장은 고인은 거의 100세를 사신 최장수 서울대 동문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추모했다.

고인은 장인화 여사와의 슬하에 2남2녀를 뒀다.

장례식은 10월 15일 로즈힐스 메모리얼 파크에서 박은성 나성영 락교회 목사의 집례로 열렸다.



김미란(농생대 88) 경영대 교수의 K컬처 설문조사 ‘K드라마·영화 중독’ 미국… 90% “오징어 시즌 2 볼것” ‘기생충’ ‘부산행’ ‘지금 우리학교는’ ‘킹덤’ 순으로 선호 10명 중 5명은 BTS 음악 즐겨, 최애 배우는 이정재

‘고요한 아침의 나라’(Land of Morning Calm) 한국이 요즘 들어 글로벌 시장에서 K팝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바야흐로 ‘K 컬처’가 세계 무대에서도 ‘메인 스트림’으로 인정받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최근에는 방탄소년단(BTS)에 이어 블랙핑크(Black Pink)가 K팝 걸그룹 최초로 미국의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핫 200’ 1위에 올랐다. 정규2집 ‘본 핑크’(Born Pink)가 차트 정상에 진입한 것이다. 전세계 걸그룹 중 미국의 대니티 케인 이후 무려 14년5개월만의 쾌거다.

K팝 가수가 ‘빌보드 200’ 최정상에 오른 것은 BTS, 슈퍼엠, 스트레이 키즈에 이어 블랙핑크가 네 번째다. 특히 빌보드와 함께 세계 양대 팝차트로 통하는 영국의 오피셜 앨범차트까지 함께 거머쥔 건 BTS와

블랙핑크 뿐이다. K팝의 성공과 인기 요인은 뇌리에 각인되는 노래와 포인트 안무, 현란한 뮤직 비디오가 소셜 미디어에 최적화된 데다 팬덤의 열성적인 활동 문화 등이 합쳐진 결과일 것이다. 얼마전엔 ‘오징어 게임’(오겜)이 미국 방송계 최고 권위의 에미상 시상식에서 6개부문을 석권한 바 있다.

미시건 주립대 김미란(농생대 88) 교수가 한국관광공사 뉴욕지사와 함께 미국내 K 컬처의 현주소를 조사했다. 김 동문은 미국의 온라인 리서치 전문회사 ‘퀵트릭스’로부터 제공받은 성인 3,218명의 표본 데이터를 대상으로 K컬처의 위상과 트렌드를 분석했다. 김 교수의 조사 보고서 가운데 주요 내용을 발췌해 싣는다. - 편집자.

조사에서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영화로는 ‘오징어 게임’ (77%, 복수 응답)이 꼽혔다. ‘오징어 게임’을 본 사람들 중 90% 이상은 ‘오징어 게임 시즌 2’를 보겠다고 응답했다. 에미상 감독상을 받은 황동혁 감독도 시상식에서 시즌 2 제작을 시사한 바 있다.

‘오징어 게임’의 연령대별 시청자는 18세(74%), 19~30세(75%), 31~40세(63%), 41~50세(48%), 50세 이상(27%)으로 나타났다.

‘오징어 게임’에 이어 ‘기생충’ (34%), ‘부산행’ (30%), ‘지금 우리학교는’(29%)이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영화로 꼽혔다.

이외에도 ‘킹덤’(18%), ‘꽃보다 남자’(16%), ‘사랑의 불시착’(12%), ‘파친코’(10%), ‘고요의 바다’(10%), ‘곤지암’(10%) 순으로 드러났다.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른바 ‘최애’ 한국 배우는 누구일까.

조사 결과 ‘오징어 게임’으로 에미상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이정재(52%, 복수 응답)가 선택됐고 이어 정호연(45%), 송강호(25%), 공유(24%), 이병현(21%), 마동석(15%), 현빈(14%), 윤여정(14%), 손예진(14%), 전지현(13%), 주지훈(11%), 비(11%), 배두나(10%) 순이었다.

K컬처 중에는 K팝(36%, 복수 응답)을 가장 즐기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어 한국 드라마와 영화(34%), 한국음식(34%)이 공동 2위에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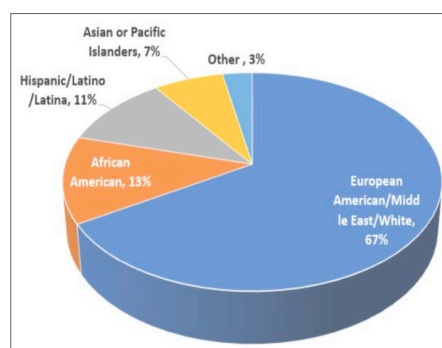
선호하는 K팝 가수는 BTS(70%, 복수 응답)가 압도적이었으며 블랙핑크(33%), 싸이(21%)가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트와이스(15%), 엑소(13%), 지드래곤(13%), 세븐틴(12%), 몬스타엑스(12%), 슈퍼주니어(9%), 아이유(7%) 등이 좋아하는 K팝 가수로 이름을 올렸다.

BTS와 관련해 ‘완전히’ 좋아한다는 응답자는 10%나 됐다. 이른바 ‘아미’ 수준의 광팬들이다. 이어 매우 23%, 적당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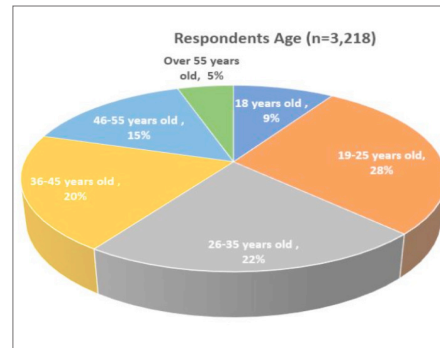
K푸드는 라면, 프라이드 치킨, 바베큐 순 K문화가 한국, 아시아계 호감도 높여줘 ‘한국사와 한국어 학습’에 긍정 반응도



응답자 인종 구성



응답자 연령



37%, 약간 23% 등으로 호감을 나타냈다.

미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K푸드는 라

면(71%)으로 나타났다. 이어 한국식 프라이드 치킨(59%), 바베큐/불고기(57%), 비빔밥(37%), 잡채(31%), 떡볶이(23%),

전(19%), 짜장면(16%) 순이었다.

미국인들은 유튜브(62%)를 통해 K컬처에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넷플릭스(50%), 틱톡(37%), 인스타그램(20%), 친구(20%), 페이스북(18%), 한국인 친구(15%), 스포티파이(13%), 트위터(12%) 순이었다.

K컬처 노출 빈도도 눈길을 끌었다. 거의 매일(8%), 일주일에 두 세 번(14%), 일주일에 한번(19%), 2주에 한번(17%), 한 달에 한번(13%), 2개월에 한번(10%), 3개월에 한번(20%) 등이었다. K컬처에 노출된 적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10%에 불과했다.

관심을 끈 항목은 K컬처가 한국의 호감도에 미친 영향이다. 응답자의 약 70%는 K컬처가 미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를 증가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심지어 K컬처가 아시아인들에 대한 증오범죄(hate crime)를 감소시키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0%에 달했다. K컬처의 인기가 다른 인종과 민족에 대한 이해를 높여준다는 항목에 약 70%가 ‘적극 동의’ 또는 ‘동의’를 나타냈다.

미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여행지는 유럽(53%), 이어 북아메리카(44%), 아시아(33%), 남아메리카(23%), 호주(22%)가 그 뒤를 이었다.

아시아 국가로의 여행을 고려할 때 일본(50%)이 가장 많이 선택되었으며 이어 한국(40%), 태국(31%), 중국(24%), 홍콩(21%), 싱가포르(20%), 인도(14%), 대만(14%), 인도네시아(11%) 등이었다.

중국이 여행 선호지에서 후순위로 뒤쳐진 것은 통상·안보 등의 분야에서 미국과 불편한 관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전반적으로 한국, 한국인에 대한 인상은 과거에 비해 훨씬 좋아졌다. 대부분의

〈5면에 계속〉



BTS에 이어 '빌보드 핫200' 정상에 오른 걸그룹 블랙핑크.

응답자는 한국이 인권을 존중하며 현대적이고 경제적으로 발전된 국가이자 진정성 있고, 안전하고, 깨끗하며, 호감이 가고, 감탄스러우며, 평판이 좋은 국가라는 설명에 동의했다.

향후 한국 방문 의향에 대해 응답자의 약 60%가 '적극 동의' 또는 '동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적지와 고궁이 가장 흥미로운 방문장소였으며 전통문화공간, 국립공원, 한국 자연관광이 그 뒤를 이었다.

한국어 학습 의향에 대해 응답자의 약 40%가 '적극 동의' 또는 '동의'했다.

응답자들

은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다. 약 55%가 한국사 학습 의향에 대해 '적극 동의' 또는 '동의'를 했다.

김미란 교수는 이번 조사의 목표가 ▲오징어 게임의 트렌드와 BTS의 인기를 이해하고 ▲미국의 전반적인 K컬처의 인기와 트렌드 파악 ▲K컬처가 한국

의 이미지 등에 대해 미치는 영향 ▲코비드-19 이후 해외여행에 대한 미국인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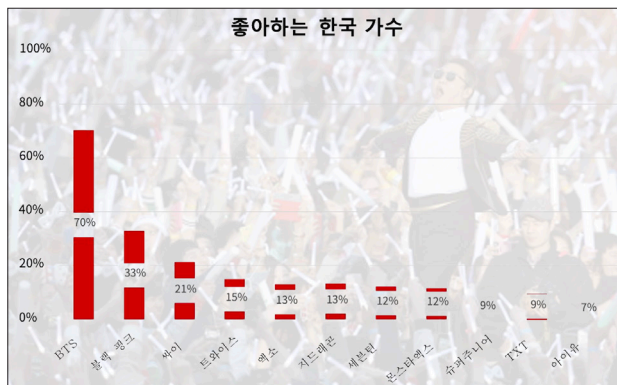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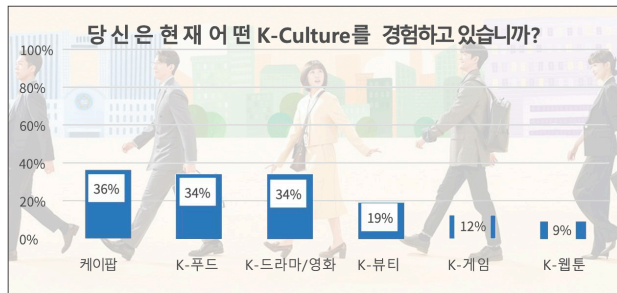
조사는 쉐트릭스 패널을 사용한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됐다. 표본추출한 3,218명의 응답자들은 미국 전역에 거주하며 연령

성별 소득 및 교육 수준면에서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나타냈다.

성별로는 여성이 56%, 남성 44%, 연령대는 19~25세 (28%), 26~35세 (22%), 36~45세 (20%), 46~55세 (15%) 등 비교적 젊은 세대 위주

로 조사가 진행됐다.

인종별로는 백인(67%)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아프리카계(13%), 라틴계(11%), 아시아계(7%) 등 미국의 전반적인 인구 구성비와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가구당 연소득은 10만 달러 이상이 31%로 가장 많았다.



김미란 동문의 K-컬처 설문조사 “한류가 이 정도인줄 몰랐어요” 화장품/게임/웹툰으로 확대 예상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 중 60%가 오징어 게임(오겜)을 시청했다는 결과에 정말 놀랐습니다. 대략 25~30%를 예상했거든요.”

조사를 진행한 김미란(농생대 85·사진) 미시건 주립대 교수는 놀라는 표정이 역력했다. 한류가 미국에서 인기가 있다는 사실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인줄은 몰랐다는 것이다. “더구나 90%가 ‘오겜’ 2탄을 기대한다고 답해 미국내 K-컬처의 영향력이 예상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김 교수는 BTS와 관련해서도 예상밖 결과가 나왔으며 놀라워했다. BTS의 히트곡을 들었다는 미국인들이 50%나 됐는데 이는 기대보다 훨씬 높은 수치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번 조사에서 K-푸드에 대한 인기가 K-팝 다음의 K-드라마/K-영화와 동일하게 나와 한국음식이 이미 미국인들의 식생활에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게 돼 고무적이었다고 말했다.

K-푸드 가운데 라면과 프라이드 치킨을 가장 선호하는 식품으로 꼽은 것도 의외였다. 당초 불고기(갈비)와 비빔밥을 기대했었는데 예상외로 크게 빗나갔

다는 것.

김 교수는 K-컬처가 한국의 이미지와 국격을 높여주고 더 나아가 아시아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불식시키고 관심을 증대시켰다는 점에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문화상품으로 거듭나게 됐다고 높이 평가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기회로 급격히 일기 시작한 아시아계 대상 증오 범죄(hate crime)가 K-컬처의 보급으로 많이 완화돼 자긍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앞으로 K-컬처가 K-화장

품/K-게임/웹툰/웹코믹으로 영향력이 증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한국관광공사 뉴욕지사(지사장 박재석)로부터 연구 그랜트를 받아 진행됐다.

김 동문은 현재 미시건 주립대(the School of Hospitality Business, Michigan State University) 교수로 10년째 근무하고 있다. 하스피탈리티는 일종의 서비스 경영학으로 호텔이나 레스토랑, 클럽, 이벤트 산업 등과 관련한 연구를 주로 하는 신생 학문이다.

미시건 동창회에서도 홍보국장을 맡는 등 동문들을 위해서도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다.

kimmi@broad.msu.edu



서울대학교 미주 동창회

제 18대 회장 후보추천 공고

(2025.7.1. ~ 2027.6.30)

서울대 미주 동창회는 미주 사회에서 활동하는 동문 회원 중 미주동창회와 모교 발전에 기여하실 차차기 회장(제18대 미주 동창회장 · 2025.7.1.~ 2027.6.30) 후보자 추천을 서울대 미주 동창회 정관 및 인선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공고합니다. 미주 동창회와 모교 발전을 위한 훌륭한 후보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직전 회장, 현 회장, 차기회장 지역은 제외합니다.

이사회

위원장 신응남
646-523-9606

노명호 회장
626-991-4457

이상강 차기회장
918-616-3386

정정욱
뉴잉글랜드
401-556-5501

최경선
북가주
408-621-8080

박상근
D.C.
703-447-8175

황치용
시카고
224-334-1224

제 18대 회장
(2025.7.1 ~ 2027.6.30)
선거일정 및 근거규정

선거일정

근거규정

- 2022년 12월 31일 차차기 회장 추천서 접수마감
- 인선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후보는 회보 등을 통해 출마 공약을 발표.
- 2023년 6월 제 32차 전국 평의원 정기총회에서 투표로 차차기 회장 선출.
- 근거규정: 서울대 미주 동창회 정관 및 인선위원회 규정
- 차차기 회장 후보는 서울대 미주지역 동창회장을 역임했거나 동창회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여준 동문가운데 적임자라고 판단되는 회원으로 한다.



“지구가 빠른 속도로 더워지고 있다” 지난 100년 새 1도씩이나 올라 ‘위기’



김대현
자연과학대 99
워싱턴대 교수

올해 들어 미국은 물론 지구촌의 최대 화두는 기후위기가 아닌가 싶다. 기후위기를 간단히 정의한다면 기후에 문제가 생겨 인류가 위험에 처했다고 할 수 있겠다. 오늘 포럼에서는 기후에 어떻게, 왜 문제가 생겼는지에 초점을 맞춰 설명하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구의 온도가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혁명 이후 2021년까지 관측한 기록에 따르면 지난 100여년 동안 지구의 온도는 1도 ‘씩이나’ 올랐다. 2000년 전에는 온도가 그리 크게 변하지 않았다.

1500년 전에는 오히려 온도가 내려갔다. 그런데 갑자기 19세기 후반부터 100년 동안 기온이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지구의 온도는 자연적으로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지만, 최근 100여년 동안의 상승률은 자연적인 변동으로 설명이 불가능하다.

여러 지역에서 매해 기온이 올라가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다. 폭염은 최근 5년 사이 계속 신기록을 내고 있다. 지난해 시애틀은 수온주가 거의 섭씨 50도나 올라 들도 보도 못한 날씨가 계속됐다.

그야말로 ‘잠 못 이루는 시애틀’이 된 것이다. 터키를 비롯해 영국, 호주, 일본 등지에서도 최근에 폭염이 휘몰아쳤다. 이 같은 사례만 봐도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반증 아닌가.

그러나 겨우 1도에 불과한데 무슨 큰일이냐고 반문할지도 모르겠다. 우리의 체온에 빗대 설명하면 이해가 쉽겠다.

우리의 정상체온은 섭씨 약 36.5도인데 갑자기 37.5도 올라가 유지한다고 가정해 보자.

항상성을 유지하는 우리 몸의 어딘가에 고장이 났다는 의미이며, 고열에 시달리는 등 인체 곳곳에서 비정상적인 증상이

나타날 것이다. 자연계도 마찬가지다.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상승하는 지구의 기온은 전 지구적으로 여러 기상 현상들의 특징을 바꿔 놓는다.

이는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는 자연 법칙들에 비추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온도가 올라가면 얼음이 녹고 물은 팽창하기 마련이다. 그 뿐이 아니다. 공기는 더 많은 수증기를 머금게 된다.

온도가 올라 봄철에 눈이 빨리 녹으면 여름에 물 부족 사태가 벌어진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의 시에라 네바다 산맥에

그러나 육지의 빙하가 녹아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해수면이 올라간다. 산업혁명 이후 전 지구의 해수면의 평균 높이도 올라가고 있다. 지난 100년 동안 20cm나 상승했다.

겨우 20cm에 불과한데 무슨 영향을 미치느냐고 가우뚱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지구에서 바다가 차지하는 면적은 전체의 70%나 된다. 해수면이 20cm 올라갔다면 1경8,200조 갤런의 물이 바다에 흘러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된다. 엄청난 양이 아닌가.

해수면이 상승하면 폭풍해일(storm

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최근 100년간의 급격한 온도 증가로 인해 위에 언급한 것과 같은 여러 기상 재난이 더 빈번해지고 강해지고 있으며 이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가리지 않고 천문학적인 물적 피해와 함께 인류의 웰빙을 위협하고 있다.

일례로 기후 난민은 지구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이다. 2021년 현재 전세계 난민은 3,800만명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기상재해로 인해 난민으로 분류된 사람은 무려 2,230만명이나 된다.

수많은 기후과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산업혁명 이후 지구에서 관측된 급격한 온도의 변화는 이산화탄소를 위시한 온실가스 증가 때문임이 밝혀졌다.

지구의 온도는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와 지구가 방출하는 에너지가 균형을 맞추면서 유지 되는데 증가한 이산화탄소가 지구 열 방출의 효율을 낮추면서 원래의 균형이 깨지고 더 높은 온도에서 다시 균형이 맞춰지게 된다.

지난 1960~2020년 사이 이산화탄소는 310에서 420ppm으로 크게 늘어났다. 온도 변화처럼 19세기 후반부터 급격히 상승한 것이다.

100 ppm의 이산화탄소 농도증가는 전기차 테슬라의 고속 충전기 20억대와 맞먹는 막대한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지구에 공급한다.

19세기 중반 아일랜드의 화학자 John Tyndall은 이산화탄소가 열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혀내면서 이산화탄소의 증가 및 그로 인한 지구 온난화를 상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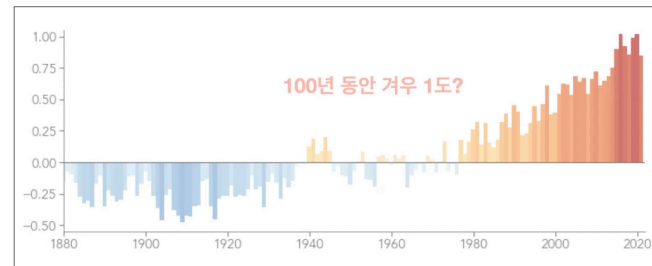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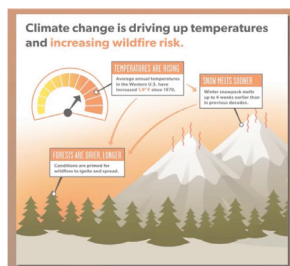
그의 상상은 불행히도 현실이 되었고 그 결과 우리는 과거의 어떠한 인류도 경험하지 못했던 커다란 위기에 처해 있다.

더 무서운 사실은 기후위기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으며 오늘 당장 화석연료의 사용을 중단하더라도 향후 몇 십년간은 계속 되리라는 것이다.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기후재앙이 도래하기 전에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가 시급하다.

김대현 교수는

서울대 자연과학대(대기과학) 학·석·박사
컬럼비아대 포스트닥
워싱턴대학 부교수(테뉴어)

이산화탄소 열 흡수, 온난화 주범 눈 빨리 녹아 산불시즌 길어져 ‘재앙’



쌓인 눈이 여름내내 천천히 녹아야 풍부한 수자원을 기대할 수 있는데 빨리 녹아 버리면 강제로 절수를 해야 하는 등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또 눈이 빨리 녹으면 산불시즌이 길어진다. 바짝 마른 나무와 풀이 여름철 산불 위험에 쉽게 노출되는 것이다.

실제로 캘리포니아 등 서부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은 1980년대 140건, 1990년대 160건에서 2000년대 들어서 무려 250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산불은 거의 대부분 번개를 통해 자연발화로 일어난다.

건조한 상태에서 번개가 한 번 치면 불이 나게 되어 있어 사전 차단하기도 어렵다.

지구상에 많은 얼음은 바다위에 해빙의 형태로 존재한다. 여름철 북극의 얼음면적은 100년 전에 비해 50%나 줄어들었으며, 망망대해 위 작은 얼음 조각 위에서 갈 곳을 잃고 방황하는 강마른 북극곰은 기후변화의 상징이 되었다.

육지에도 빙하(육빙)가 있는데 육빙이 바다에 흘러 들어가면 역시 상황이 심각해진다. 바다에 떠있는 빙하는 녹아도 해수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마치 콜라에 넣은 얼음이 다 녹아도 컵이 넘치지 않는 원리와 같다.

surge)의 피해가 더욱 더 심각해진다. 폭풍해일은 강한 저기압이나 허리케인이 육지 쪽으로 바닷물을 밀어내면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종종 해안가 도시들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곤 한다.

과거보다 높아진 해수면 고도는 폭풍해일로 모인 물이 더 높이 쌓이도록 만들어 그 피해를 증폭시킨다. 2014년 방글라데시에서는 폭풍해일로 농경지가 바닷물에 침수돼 농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 기후재난으로 난민이 되는 것이다.

기온이 올라가며 대기가 더 많은 수증기를 머금을 수 있게 되면서 비구름이 한 번에 더 많은 비를 뿌릴 수 있게 되었다. 지난 20년 사이 지구 대기 중 수증기 양은 1mm가 더 많아졌다. 작은 양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전 지구적으로 보면 무려 130조 갤런에 해당된다.

일례로 올해 파키스탄은 몬순 기간 내 지속된 전례 없는 폭우로 인해 전 국토의 4분의 1이 물에 잠겼다. 이 바람에 많은 농민들이 목화 농사를 망치고 당장 내년 봄에 먹을 식량이 부족한 상황에 처했다.

또한 말라리아가 창궐해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더운 공기가 수증기를 1mm만 더 머금어도 이와 같은 대재앙

‘필즈상’ 허준이 · 김나영 동문 부부의 진솔한 토크 수학은 ‘아싸’들에 최적화된 학문, ‘인싸’는 불편 15% 팁 계산할 줄 몰라 … 수능 수학 ‘낙제’ 뻔해

10월은 노벨상 시즌이다. 생리학·의학상에 이어 물리학, 화학 등 자연과학 분야 수상자의 명단에 한국인 또는 한국계는 없지만 수학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필즈상을 허준이(자연과학대 03) 교수가 받아 허 동문이 또 다시 조명을 받고 있다.

한국정부가 허 동문과 같은 인물이 더 배출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허준이 펠로십’ 프로젝트를 내놔다. 초종교 수 학인재들을 대상으로 한 학생 펠로십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허 동문의 대학생활은 그 자신 표현대로 잘 포장해서 이야기 해도 ‘길 잃음’의 연속이었다. 똑똑하면서 성실하기까지 한 주위 수 많은 서울대 친구들을 보면서 나 같은 사람은 뭘하며 살아가야하나 고민도 많 이 했다.

최근 서울대학교 소통팀인 ‘샤로잡다(SNU Catch)’가 캠퍼스 커플(CC)로 만난 허준이 · 김나영 동문 부부의 진솔한 대화를 취재해 유튜 브에 올렸다. 주요 내용을 간추려 신는다.

- 편집자.

허준이(이하 허): 수학자 허준이 지금 대입수능을 본다면? 난 진짜 수학 빼고 는 다 자신있어요. 영어랑 언어 영역이 랑, 사탐, 과탐, 현역만큼 잘 할 수 있 어요. 수학은 글썄 모르겠네요.

김나영(이하 김): 가끔 서점에 가서 수능문제집 을 보고 누가 더 잘 푸나 (내기를 해요). 그런데 남 편은 계산을 못해요. 레 스토랑에서 밥 먹으면 최 소 15% 팁을 줘야 하는 데 계산을 할 줄 몰라요. 그러니 수능 수학을 어떻 게 풀겠어요. 그래서 바 껐어요. 팁을 20% 주기 로. 그러면 계산이 쉽잖 아요.

허: (수학은) 아싸들이 하기 좋은 학문 아닌가요?

김: 인싸는 불편해요. 인정!

(아싸는 outsider의 약어. 무리에 어울 리지 않고 혼자 지내는 사람을 뜻한다. 반면 인싸는 ‘insider’의 줄임말로 각종 행사나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잘 어울려 지내는 사람을 일컫는다.)

허: 수학은 아무것도 없어도 할 수 있어 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종이하고 연필만 있으면 할 수 있죠. 운동을 하거나 산책 을 한다거나 하면서도 할 수 있는… 특히 다른 과학분야랑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인 문학적인 성격이 강하기도 하고. 경쟁이 라고 할만한 의식이 거의 존재하지 않거 든요. 수학은 경쟁보다는 협업… 그 문화 가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나의 전공분야인) 조합론(combinat orics)은 어떻게 보면 가장 원시적인, 수 학적으로 얘기하면 유한집합 사이에 유 한한 관계들을 다루는 학문… 아주 쉽게 말하면 ‘경우의 수 세기’라고 할까요. 학 문으로선 비교적 신생 분야예요. (아내 를 향해) 정수론(number theory)은 어 땡죠?

김: 정수론 하는 사람들은 자부심이 있 죠. 역사도 오래됐고 복잡해요. 그렇지만 아이들한테도 설명해 줄 수 있거든요. 예 를 들어 $10=3+7$, $100=3+97$ … 그런데 단 순한 문제들을 굉장히 복잡하고 깊은 방 법으로 풀어서 그게 매력적으로 보였어 요.

허: 조합론은 신생 학문이라서 그런지

자유로운 영혼, 틀에 얽매이지 않는 성격
협업통해 성취, 집에 동료들 초청 늘 북적
아이 교육에도 좋은 영향 미쳐 이젠 ‘환영’



허준이 · 김나영 동문 부부



부부는 이웃들과도 잘 어울려 소통한다.

사람들이 좀 장난꾸러기 같은 면들도 있 고. 즉흥적이고….

김: 서울대 다닐 때도 그랬지만 정수론 하는 사람들이 조합론 하는 사람들을 약 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남 편이 좋은 결과들(난제 증명 등)을 많이 내고 빛을 발하는 걸(필즈상 수상) 보면 이제 (조합론 무시) 문화가 바뀌어야 된 다고 생각해요.

허: 협업같은 경우 는 언제 어디서 만나 일주일 동안 같이 지 내면서 뭘 하자, 이 런 식으로 진행되기 힘들어요.

서로 뭔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 퍼즐 조각을 가지고 있는 데 이 퍼즐조각을 다 맞추면 무슨 그림이 나오는지 잘 몰라요. 이게 뭔가 의미있는 그림의 일부분인 것 같고, 느낌 정도를 갖고 있는데 이제 그것들을 마음맞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서로 퍼즐 조각들을 다 한 판에 쏟아내 고 딱 들어맞는 경우가 있는지 서로 체 크를 하면서 또 새로운 퍼즐조각을 찾기도 하고… 수학은 협업으로 훨씬 더 빠 리, 깊이 갈 수 있어요.

김: 한때는 지나치게 (많은) 협업자들 을 자주 집에 초대해서 제가 횡수를 제한 했어요. 너무 많이 초대하니깐 ‘이제 교 수 됐으니까 그만하자’고 했지요.

그런데 또 생각해 보니까 이게 우리 아 이들한테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더라고요.(부부는 슬하에 허단, 허솔 두 아들을 두고 있다.)

마리 퀴리(노벨 물리 · 화학상 수상)의 딸(이런 줄리오 퀴리)이 노벨 화학상을 받았던 이유 중 하나로 꼽는게 집에 좋 은 사람들을 많이 불러서 그게 자연스럽 게 아이들에게 영향 을 미쳤지요. 그래서 (협업자 초청) 횡수 제한을 없앴어요.

허: 무슨 얘기를 해 도 씨알이 안 먹혔는 데 마리 퀴리 마케팅 이 성공했어요.

김: 남편 얘기를 듣 고 보니 그럴 것 같 더라고요. 프린스턴 교수 중 뛰어난 분들을 보면 자녀들이 다 대학을 잘 갔어요. 그 분들도 집에 손님 들을 굉장히 많이 불러요.

남편을 속으로는 ‘굉장한 사람이구나’하는 생각을 했어요. (서울대) 대학원 생들은 솔직히 큰 문제(난제)들을 풀 엄 두를 안해요. 그런데 남편은 자기가 해보 겠다고 도전을 해 주변으로부터 ‘대학원 생 주제에 건방지다’는 소릴 가끔 들었어 요. 그랬는데 그런 걸 직접 성취하는 걸 보고 ‘와,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했지요.

교수 임용시기가 되어서 어디로 갈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거의 모든 대학에서

연락이 왔어요. 하버드, 프린스턴, 스탠 퍼드… 정말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이 런 일이 일어나지… 굉장히 놀랐어요.

남편은 틀에 얽매이지 않고 뭐든 가능 하다고 생각하죠. 집에서도 소파에 앉아 계속 끙끙거리면서 뭘 가를 생각해요. 스스로의 경계가 없는 게 다른 수 학하는 사람들보다 조금 더 성취를 할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닌가 생각해요.

허: 뭐가 노력이고 뭐가 재능인지 그 경계가 매 우 불분명해요. 소위 천 재라고 하는 분들을 보 면 일단 노력을 많이 하 는 것은 분명한데 그 노 력을 하는 과정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그 자신한테

고통스럽지 않고…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김: 시아버님은 고대 통계학과 교수이 고 시어머님은 서울대 노어문학과 교 수이세요. 두 분 다 늘 바쁘셔서 아들이 얼마나 잘 하는지, 그런 것에 관심이 많 지 않으셨다고 해요. 매우 쿨하게 키웠다고 할까요. (부모의) 적당한 무관심이 (남 편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영혼을 갖게 한 것 같아요.

허: (뭘니뭘니해도) 제 인생의 터닝포 인트는 아내를 만난거지요.

김: 돌이켜보면 서울대 석사 과정 동기 생들의 분위기는 아주 좋았어요. 아침부 터 저녁까지 같이 밥 먹고 공부하고 수 업듣고 숙제하고… 동기애가 아주 끈끈 했어요.

허: 내가 소속감을 느껴본 시기가 그때 가 거의 유일했어요.

김: 고등학교는 자퇴하고, 대학은 제대 로 안 다니고, 이래서 남편은 그때(대학 원 시절) 처음으로 대학생활같은 걸 해 본 것 같아요.

허: 중고등학교 시절 내가 굉장히 똑 똑하다고 생각했어요. 자신감이 엄청났 죠. 그런데 (서울대) 들어오고 나서야 비로소 현실을 깨달았지요. 너무 뛰어 난 사람들이 많구나. 다 나 정도는 하 더라고요.

김: 지금은 프린스턴에 사니까 뛰어난 동료들이 많아요. 옆집은 노벨상, 앞집은 필즈상 선배 … 그래서 겸손해지죠.

박민식 · 김금옥 동문 부부 서울대 발전공로상 수상



서울대 발전공로상을 수상한 박민식 · 김금옥 부부.



박민식 · 김금옥 부부.

남가주 박민식(수의대 65) · 김금옥(사대) 부부 동문이 제15회 서울대학교 발전공로상을 수상했다.

올해 시상식은 9월 6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77억원을 기부한 강중현(주)삼진 글로벌 넷 회장(공대 52), 서정선(주)마크로젠 회장(의대 70)과 (고)고윤석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박민식 교수부와 함께 수상했다.

발전공로상은 서울대학교에서 수여하는 가장 명예로운 상으로서 품격과 덕망을 겸비하고 서울대 발전에 크게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2008년부터 시상되고 있다.

박민식 교수는 UCLA에서 장기이식과 유전자 6 ‘주조직 적합 복합체 MH-C(major histo-compatibility complex)’ 연구에서 명성을 날렸다.

세포, 유전자, DNA 분야에서 연구업적을 쌓으며 이에 관련된 의료기술 및 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했고 여러 나라를 순방하며 강의, 발표를 계속해 왔다.

박민식 · 김금옥 동문은 또 지난 수년간 꾸준히 모교에 대한 기부활동을 하면서 지난해에 누적 기부금이 100만 달러에 이르렀다. 부부의 기부금은 서울대 생명공학 연구동과 반려동물병원 신축의 기금이 됐다.

수의대 측은 이 기부금이 서울대 수의대의 미국수의사회(AVMA) 수의학 교육인증 획득에도 큰 지원이 됐다고 밝혔다.

박민식 교수 부부는 오블리스 노블리제 정신의 실천을 위해 미국내에서도 장학재단, 박물관, 봉사단체 등에 계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함께 수상한 강중현 회장(공대 조선

항공과 52)은 77억 7천만원을 기부했다. 식품수출의 개념도 미미하던 1970년에 삼진물산을 설립해 미주동포들에게 한국식품들을 수출한 이후 한식의 세계화를 추진하며 세계 18개국과 파트너십을 맺어 한국음식의 보급에 기여했다.

또한 국내 최초로 전자동 냉동 물류 시스템을 구축해 냉동식품 유통산업에 혁신을 이루어 냈다. 강회장은 본교 문화관 리모델링에 37억원, 농생대에 20억원, 인문대에 10억원, 영문학과에 10억 원을 기부하며 서울대 문화관이 본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큰 도움이 되는 시설로 자리잡기를 기원했다.

서정선 회장은 세계 최초로 고해상도 북방계 아시아인 게놈을 분석하고 세계 최고 정확도의 표준 유전체 지도를 완성해 한국의 게놈 연구관련 선진국 진입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서회장은 또 생물학회를 후원해 마크로젠 과학자상 및 마크로젠 여성과학자상을 제정해 매년 수여함으로써 우수과학자들의 연구를 지원해 왔고, 서울대에 (주)마크로젠 주식 10만주를 기부함으로써 서울대 발전공로상을 수상하게 됐다.

(고) 고윤석 명예교수(물리학 47)는 한국의 핵물리학회를 설립했고 서울대 부총장을 역임했다. ‘보산 핵물리학상’을 제정하여 연구자들의 참여와 사기를 올리는 등 핵물리학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를 했고, 본교발전에도 열과 성을 다했다. AID 차관사업 조정 위원장으로 본교 연구시설을 보강하고 해외 유수의 대학교수를 초빙해 본교 대학원 교육 수준을 제고 하였다.

고윤석 교수는 지난해 ‘고윤석 · 박종숙 장학기금’으로 10억원을 출연했다. 고윤석 교수는 네브라스카 대학에서 이론 핵물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후 1963년 당시 월 1,200 달러의 미국교수 봉급을 마다하고 월 80 달러의 한국으로 돌아와 한국의 핵물리학과 후학양성에 전념했다. 고윤석 교수는 올해 95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취재=김인종(농생대 74)

“세상을 바꾼 이들을 기리다” 민주화열사 7인에 명예졸업증서

민주화 열사 7인에 명예 졸업증서가 수여됐다.

서울대 측은 민주화 운동 당시 미등록 혹은 사망 등의 이유로 제적돼 졸업하지 못했던 ▲김태훈(경제학과) ▲황정하(토목공학과) ▲이동수(원예학과) ▲박혜정(국어국문학과) ▲이진래(제약학과) ▲김학묵(사회학과) ▲송종호(서어서문학과) 등 7인에게 명예졸업증서를 수여했다고 발표했다.

서울대는 지난 2001년 박종철 열사를 시작으로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공헌을 인정해 지금까지 총 58명의 졸업생에게 명예졸업증서를 수여했다.

김태훈(경제학과 · 78)은 1981년 5월 27일,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그는 5·18 1주년 침묵시위 중 경찰에게 구타당하는 학우들을 창박으로 목격하고 상체를 창박으로 내밀어 “전두환은 물러가라!”라고 큰 소리로 세 번 외친 뒤 아크로폴리스 광장을 향해 몸을 내던졌다. 그의 죽음 이후, 아크로폴리스 광장은 서울대인들에게 민주화운동의 구심점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황정하(토목공학과 · 80)는 금서를 읽고 토론하는 언더서클 ‘국제경제학회’에서 활동하고 야학 교사 활동을 하며 공장에서 일하던 아이들을 가르쳤다.

그는 유복한 본인의 가정과 한국의 시대 상황 사이의 괴리로 고통스러워하며 한동안 가족과 연락을 끊고 지내기도 할 만큼 학생운동에 반대하는 가족에도 본인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시위과정에서 경찰들로부터 피신하는 중 중앙도서관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서울대 내에 세워진 첫 민주열사의 추모비인 황정하의 추모비는 현재 중앙도서관 입구에 위치해 있다.

이동수(원예학과 · 83)는 평소엔 온화하고 다정다감한 성격이었지만 불의를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군에서 목격한 여당의 부정투표에 순응하지 않았고, 복학 후에는 군사정권에 저항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다 잡혀가 고문당하기도 했다.

권위적인 상류층 가정과 사회는 그가 ‘비운동권’의 길을 택하게 했을지라도, 결코 그의 진보적인 사회의식을 막을 수는 없었다.

이동수는 1986년 5월 20일 오월제 행사 중 학생회관 4층 옥상에

서 분신 · 투신했다.

박혜정(국어국문학과 · 83)은 문학을 사랑했지만, 글을 쓰며 문학을 도피처로 삼는 것을 시대 상황에 반하는 사치이자 허영이라 생각했다.

결국 1986년 봄, 본인이 쓴 원고를 불태우며 ‘부끄럽지 않은 빛 값’이라는 삶을 결심했다.

1984년 9월 권위주의 체제에 반대하는 가두시위에서 연행돼 구류되기도 했던 그는 이동수의 분신을 목격한 바로 다음 날인 1986년 5월 21일 한강에서 투신했다.

이진래(제약학과 · 79)는 총장배 체육대회에서 응원단장으로 활동할 만큼 학교생활에 적극적이었다. 그는 학내 동아리 활동뿐 아니라 1980년 5월 민주화운동에 동참하기도 했다.

그러던 그는 1981년 11월 입대해 카투사 배치 이틀 후에 사망했다. 군은 처음에 그의 죽음을 자살로 발표했지만, 이후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군내의 가혹행위와 입대 과정에서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가 있었음을 밝혔고 2018년이 돼서야 국방부가 열사의 죽음을 순직으로 결정했다.

김학묵(사회학과 · 79)은 5.18 1주년 침묵시위 중 김태훈의 투신을 목격하고 민주화운동에 발을 내밀었다.

1984년 12월에 행방불명돼 다음 해 3월 한강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그는 2008년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가 그의 죽음의 원인을 ‘고문 후유증으로 인한 정신적 장애’로 인정함에 따라 이천민주화운동기념공원으로 옮겨졌다.

송종호(서어서문학과 · 87)는 1987년 6월 민주항쟁에서 플래카드와 각종 유인물로 시민들을 결집하는 역할을 했다.

‘사발사련’이라는 사회과학 학습팀을 만들어 후배를 지도하기도 하고 총학생회 활동에도 힘썼다. 1991년 2월 군 복무 도중 발생한 갑작스런 그의 사망을 군에서는 직실사로 발표했으나 그의 죽음 뒤에 은폐 공작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다.

한편 서울대 내에는 두레문에 관 앞 4·19 기념탑부터 시작하는 민주화의 길이 조성돼있다. 이 길에는 김태훈, 황정하, 이동수, 박혜정 열사의 추모비도 포함돼 있다.

“바둑은 인생의 축소판입니다” 복잡한 인생사와 신통하게 닮아있어 ‘사소취대’ ‘일수불퇴’ 등 삶의 교훈도 많아

바둑판은 가로 19줄, 세로 19줄, 전체 361목으로 짜여있다. 가로는 42cm, 세로 45cm다. 그런데 이 판 위에는 단 한 번도 같은 수가 펼쳐지지 않는다.

놓는 돌에 따라 기보가 달라진다.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 활로가 열리기도 하고, 무심코 놓은 돌이 패착이 돼 판세를 뒤집기도 한다.

“바둑을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부르는 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최진석(법대 64) 동문의 바둑 예찬론이다. “한 판의 바둑은 신통하게도 복잡한 인생사와 닮아 있어요.”

최 동문의 맞수인 신영찬(의대 63) 동문은 아마 5단. 그 역시 최 동문의 견해에 동의한다.

“바둑은 단순한 집 짓기 싸움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인간의 희로애락과 흥망성쇠가 담겨 있지요. 그래서 바둑 둘 때 경계해야 할 마음가짐과 교훈 등을 담은 바둑 격언은 우리네 인생사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호주(공대 64) 동문은 국민(초등)학교 때부터 어깨너머로 배워 익힌 ‘짤 바둑’의 소유자. 기원급수로는 4~5급이다. 아마(타이젠)로는 3단 쯤 된다.

“저는 늘 사소취대(捨小取大)를 교훈으로 삼아 지내고 있습니다. ‘작은 것은 탐하지 말고 큰 것을 취해야 한다’는 뜻이지요. 인생에서도 더 큰 그림을 보고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가주의 바둑 고단자들이 모여 동호회 모임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왼쪽부터 채규환(법대 69), 김병연(공대 68), 이호주(공대 64), 최진석(법대 64), 홍동식(법대 64), 신영찬(의대 63).

채규환(법대 69) 동문은 초등학교 2~3학년 때 아버지 친구들의 바둑 두는 것을 보고 흥미를 느꼈다고 한다. 대학에 들어와서 친구들과 대국을 하며 ‘전술’을 익혔다.

본격적으로 바둑 수업을 하게 된 것은 LA에서 ‘고수’를 만난 것이 계기가 됐다. 그 고수는 일본에서 임해봉 명인과 두 점을 깔고 뒤 한 집을 졌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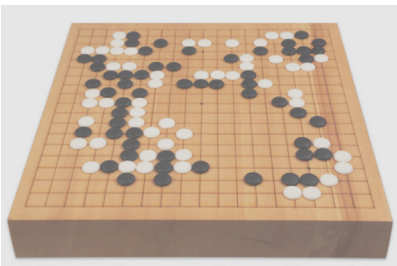
임해봉은 1960~70년대 일본 바둑계를 평정했던 중국출신의 전설이다. 채 동문은 LA의 ‘고수’로부터 6개월 가량 지도를 받아 기량이 급속히 올라간 케이스다.

주변에선 채 동문을 아마 2~3단으로 분류한다.

“요즘은 유튜브의 ‘10초 바둑’에 폭 빠져 지내요. 15~20분 만에 대국이 끝 납니다. 너무 재밌어 거의 매일 봅니다.”

홍동식(법대 64) 동문은 ‘서울대의 기인’ 홍종현 프로 9단의 ‘제자’다. 그와 동기생인 홍 동문은 8 점을 깔고 뒤 지면 담배 한 갑을 사서 ‘바쳤다’고 한다.

최 동문에 따르면 홍종현은 한때 명인 조남철의 후계자로 인정을 받았으나 5공시절 군부 권력실세들과 가깝게 지내 기재를 펴지 못하고 사라진 불운한 천재다.



홍종현과 고교(경기고) 동기생인 이호주 동문도 대학재학시절 그의 기재가 하늘을 찔렀다고 회고했다.

신영찬 동문은 기원에서 이일선 사범(프로 3단)으로부터 바둑의 정석과 행마 등을 배웠다. 고교 졸업후 대학 학기 시작 전까지 2개월 가량 집중적으로 기량을 익힌 덕분에 기초를 닦을 수 있었다고 했다.

본과에 올라가기 전까지만 해도 강의 시간 중 노트에 바둑판을 그려놓고 둘 만큼 바둑에 ‘미쳐’ 있다시피 했다.

무릇 바둑에 헌법이 있다면 제 1조 1항은 단연 ‘일수불퇴’다. 한 번 놓은 돌은 절대 무를 수 없다는 뜻이다.

“무를 수 없는 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선택해 발을 내딛었다면 내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합니다.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처럼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지요.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내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최 동문은 바둑을 둘 때는 늘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된다고 웃음을 여겼다.

뭉니뭉니해도 바둑을 한 단어로 압축 표현하려면 ‘기성’ 오정원의 ‘조화론’이 아닐까 싶다. “바둑의 본질은 싸움이 아니다. 상대와 함께 만들어내는 조화의 작품이다.”

조화에 바둑의 품격이 있고 그 조화의 미묘함에 바둑의 매력이 있는 것이다.

남가주 바둑동호회 ‘서기회’ 발족 최진석(법대 64) 동문 초대 회장

남가주 서울대 바둑동호회가 발족됐다.

지난 9월 27일 미주 동창회 사무실에서 열린 창립 모임에는 신영찬(의대 63), 최진석(법대 64), 이호주(공대 64), 홍동근(법



대 64), 채규환(법대 69), 김병연(공대 69) 동문 등이 참석했다.

이날 모임에서 바둑동호회 공식 명칭을 서기회(서울대 기우회)로 정했다. 초대 회장은 아마 5단인 최진석 동문, 총무는 홍선

례(음대 70) 동문이 맡기로 했다.

서기회는 내년 열리는 제 1회 미주 동창회장배 바둑대회 참가를 결정하고 회원들을 널리 모집하기로 했다.

한편 서기회는 여성동문들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바둑 외에 ‘오목’을 추가, 무료 지도할 방침이다.

오목은 두 사람이 흰 돌과 검은 돌을 갖고 한 개씩 번갈아 놓다가 외줄로나 모로 다섯 개를 잇따라 먼저 놓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다. 바둑의 높은 진입장벽 때문에 오목 인구가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서기회는 오는 11월 15일(화) 오후 2시 미주 동창회 사무실에서 첫 대국 모임을 갖는다.

▲장소: 2416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문의: (213) 321-6428(최진석)
(213) 503-6964(홍선례)

동창회비 납부하시면 이런 혜택들이 ...

미주 동창회는 동문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로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동문님의 진심어린 동창회비와 후원금은 동창회 활성화 및 동창회보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학기금을 비롯한 각종 사회공헌 프로그램 지원 등에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본국의 총동창회와 연계해 동문님이 더 많은 베니핏을 받으실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할 예정입니다. 회비는 동창회보에 별첨한 봉투에 넣어 보내주시면 됩니다. 회비 납부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동창회 사무국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미주 동창회는 국세청(IRS)에 비영리기관(501c3)으로 등록돼 있어 회비나 후원금 등은 모두 세금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매월 동창회보 우송
- ▲ 서울대 병원 종합건강검진 10% 할인
- ▲ 한국의 SNU 베리타스 몰 이용(각종 유명 브랜드 할인가격으로 구매)
- ▲ 동창회가 주관하는 각종 공연 초청 등.

아프리카 사막에 '상록수'의 꿈을 펼칩니다



임헌진 동문이 세운 간이 보건소. 마을 추장 등 지도자들이 모두 기공식에 참석해 임 동문의 노고를 치하했다.

임헌진(간호대 74) 동문 부부 올 12월 첫 벼농사 수확 큰 기대 ... 굶주림 해결할 터 현지인과 공동체 생활, 보건소와 학교 운영이 목표

“중등교육을 받은 우리가 화려한 도시생활을 동경하고 안일의 생활을 꿈꾸어야 옳은 것인가, 농촌으로 돌아가 문맹 퇴치에 노력해야 옳을 것인가. 거듭 말하노니 우리 서로 손을 맞잡고 농촌으로 달려가자.”

일제강점기 시절 여성의 몸으로 농촌계몽운동에 일생을 바친 최용신 선생이 대의를 역설한 말이다. 고등교육을 받고 현실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농촌에서 직접 농민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문맹없는 농촌, 잘 사는 농촌을 건설하는 것이 그의 이상이었다. 심훈의 소설 '상록수'의 여주인공 채영신은 최용신을 모델로 한 것이다.

임헌진(간호대 74) 동문은 소설 속 여주인공 못지 않는 꿈을 갖고 있다. 멀리 아프리카 차드에서 살며 척박한 그곳을 '에텐의 동산'으로 만들려는 그런 꿈이다.

“고등학교 시절 '상록수'를 읽고 또 읽었어요. 그때부터 여주인공 채영신은 제 평생의 롤모델이 됐지요.” 임 동문이 간호대를 들어가게 된 것도 언젠가 '상록수'의 꿈을 이루고 싶어서였다.

그가 미국에 온 것은 1983년 말. 병원에서 일하며 멕시코의 가난한 동네를 매달 한 번씩 찾았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곳은 멕시코 남부의 치아파스. 반군이 점령하고 있는 곳이라서 치안이 극도로 불



임헌진 동문에게 벼농사는 아프리카에 '요셉의 창고'를 짓는 것이나 다름없다.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다. 마을에는 우물도 파 깨끗한 식수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간호대 동문들도 우물(사진)을 파 차드 사역에 힘을 보탰다.

여고시절 심훈의 농촌 소설에 감동 오염된 물 마셔 각종 수인성 질환 창궐 풍요에 젖어 현실에 안주 '부끄러워'

안했지만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주민들을 외면할 수 없었다. 이찬용(치대 72) 동문 등이 동행해줬다. “이웃사랑의 정신이 없었다면 그 멀리 위험한 곳에서 봉사할 엄두를 못냈겠지요.”

임 동문은 막내가 대학에 들어가자 여고시절의 꿈을 실천에 옮기기로 했다. 아프리카의 '검은 심장'이라 불리는 차드가 그의 선택지였다. “평소 봉사하던 자선단체에서 차드를 소개받았어요. 그곳

에 우물을 하나 팔 돈을 기부하면서 인연이 시작됐지요.”

오염된 물을 마신 탓에 삼십 넘겨 살기가 쉽지 않다는 절박한 사정을 듣고는 머뭇거릴 수 없었다. 우물을 파달라며 선뜻 수천 달러를 내놔다. 차드 오지의 주민들은 호수의 물을 식수로 사용하는데 야생동물도 함께 와서 목을 축인다. 짐승과 인간이 물을 공유하니 각종 수인성 질환과 전염병이 창궐할 수밖에.

“남편(권홍량 목사)과 차드 현지를 찾아가 봤어요. 사진을 전공한 딸과 함께요.” 현실은 미국에서 듣던 것보다 더 참담했다. “그때 깨달았어요. 엘리트 교육을 받았다는 내가 풍요에 젖어 현실에 안주할 것인가. 이곳에서 '상록수'의 꿈을 펼쳐보겠다고 결심했어요.”

당시 LA에서 이민목회를 하고 있었던 남편은 차드에서 '소명'을 들었다고 했다. “이곳이 네가 살면서 섬길 곳이다.”

부부는 프랑스에서 1년여를 체류하며 언어를 익혔다. 차드는 과거 프랑스 식민지여서 프랑스어가 아랍어와 함께 공용어로 쓰인다.

임 동문 부부가 '차드 사역'을 한 지는 올해 꼭 10년째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은 만바(Madba). 맛사이 부족이 살고 있는 마을로 주민은 약 800명 정도다.

그러나 주변의 10개 마을을 합치면 인구 **<11면에 계속>**

미주 동창회 웹사이트 확 바뀌었습니다

snuaa.org

미주 동창회 웹사이트(www.snuaa.org)를 새로 단장했습니다. 정보 접근성과 사용자 편의성 등 홈페이지 기능을 강화했고 동시에 디자인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브레이킹 뉴스'를 비롯해 각종 공지사항이 소개됩니다. 동창회보의 1면 기사가 사진과 함께 화려하게 장식됩니다. 미주 동창회가 주관·진행하는 주요 사업과 매달 열리는 포럼 등이 소개돼 홈페이지만 봐도 동창회의 활동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뉴스를 보강한 것이 눈에 띕니다. 2009년부터 지금까지 발행된 동창회보를 연도와 월별로 읽을 수 있도록 pdf 파일을 첨부해 놔습니다. '종이'보다는 '디지털'에 더 익숙한 세대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확 바뀐 snuaa.org에 동문들의 많은 관심과 접속을 바랍니다.



임현진 동문 부부가 아프리카 차드에 개척한 만바 공동체.

1만 5,000~2만명에 달해 제법 큰 규모다. 주민들은 강에서 물고기를 잡아 팔거나 밭농사를 지어 소위 ‘입에 풀칠 하는’ 정도의 열악한 삶을 살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동물의 마른 똥을 모아 팔기도 하는 등 마치 생존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고 한다.

도로도 나있지 않아 한 번 이동하려면 고통이 따랐다. 상황이 이렇진대 학교나 보건소, 약국이 있을리 만무였다.

“처음엔 외국인 선교사가 지은 선교관을 렌트해 살았는데 지금은 현지인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어요.” 관계 중심인 현지 사회에서 추장을 비롯한 많

적 전통방식으로 시도해 지금 마을엔 ‘쌀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12월 중순 쯤이면 추수가 가능하다고 한다. 흥분한 탓인지 임 동문은 벌써부터 심장이 두근두근댄다며 웃음이 얼굴에 가득하다.

임 동문의 걱정은 그러나 추수하기 전에 동물들이 논과 밭으로 들어와 애써 기른 작물을 먹어치우는 것이다. 울타리를 쳐야 하는데 문제는 돈이다.

“하필이면 왜 쌀 농사를 짓느냐”는 질문을 해봤다. “쌀은 너무 비싸 사먹을 엄두를 못내요. 그래서 수수나 옥수수를 길러 먹지요. 쌀 농사만 지을 수 있다면 양질의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어 차드의 식량



임현진 동문이 개척한 초등학교.

은 사람들과 한 가족처럼 지낸다는 것이다.

이랜드의 재정지원과 미국내 동문 후원자들이 십시일반 모아 준 돈으로 땅을 샀다. 35에이커에 이르는 농장 겸 주거지다.

수도 은자메나를 벗어나면 전기가 들어오는 곳이 없다. 그래서 태양광과 발전기를 이용해 필요한 전기를 생산해 쓰고 있다.

부부는 이곳에서 벼농사를 짓고 있다. 굽주림을 해결해주기 위해서다. 이른바 ‘요셉의 창고’를 만들겠다는 각오다. 기근이 들자 창고를 열어 이집트 백성들을 먹여 살렸다는 성경 속 이야기다.

“차드는 7월부터 10월까지가 우기철이에요. 이때 한 번의 천수답 농사가 가능해요.” 그러나 10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는 비 한방울이 없는 건기철이 계속된다.

따라서 건기에는 특별한 농사기술이 필요했다. 필름에 범씨를 붙이고 필름 밑에 파이프를 설치해 물을 최대한 적게(약 20~30%) 사용하는 농법을 들여왔다. 물은 태양광으로 작동하는 펌프로 지하에서 끌어올려 쓰고 있다.

이같은 농법과 병행, 신진철 동문이 한국

난을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임 동문은 캘리포니아처럼 수로(aqueduct)를 만들수만 있다면 식량사정이 해결될 수 있을 거라며 안타까워했다.

벼 농사는 지난 2018년 처음으로 시도 해봤다. 0.5 에이커 논에 모를 심었으나 벼가 영글지 못해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 확인했다. 지난 6월 한국에서 벼농사의 일인자인 동문 한 분이 와서 농업전문학교를 오픈했다. 8명의 지도자급 학생들을 선발해 농업이론 강의와 함께 7에이커의 논에 벼농사를 짓게 했다. 역시 결정적인 상황에서 도움을 주시는 분은 동문들이다. 임 동문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소설 ‘상록수’에서 여주인공은 직접 논에 들어가 모를 심고 김을 매며 밤에는 농촌부녀자들에게 한글 야학을 하고 어린이들에 산수 등을 가르치는 강습소를 운영한다.

동네 어귀의 상록수들을 보면서 독백처럼 읊는 대목도 인상적이다. “오오, 너희들은 기나긴 겨울에 그 눈바람을 맞구두 심싱허구나! 저렇게 시푸르구나!”

임 동문 부부는 아프리카의 사막에 상록수를 심는 것이 꿈이다.

취재=이호진(간호대 74)

1인당 국민소득 연 \$610 ‘최빈국’ 농생대 동문이 벼 품종 개발 도움 자립형 ‘만바’ 공동체 건설이 꿈

- 차드는 어떤 곳인가

아프리카 중앙에 위치한 내륙국가로 전 국토의 약 60%가 사막이다. 부족간의 대립으로 끊임없이 내전이 일어나 민생이 파탄해진 나라다.

면적은 캘리포니아의 약 3.5배 정도로 세계에서 21번째로 큰 나라다. 인구의 절반이 20세 미만이고 어린이 10명당 1명이 유아 때 사망할 정도로 보건위생이 열악하다.

일인당 국민소득은 약 610 달러. 세계 117개 국가 중 거의 매년 115~117위를 기록할 정도로 최빈국이다. 워낙 가난해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나라다. 세계 거의 모든 NGO가 다 모여있다. 하루 한끼 해결하기도 어려울 만큼 굶주림이 일상이 돼 있는 나라다.

내가 살고 있는 만바 공동체는 수도 은자메나 공항에서도 35마일 떨어져 있다. 버스는 운행되지만 몇시간 걸어가야 정거장이 나온다. 마을까지는 5마일 가량 비포장 도로를 달려야 한다.

우기철을 제외하고는 고온 건조한 나라다. 한낮의 태양열을 받은 양철 지붕의 열기로 한밤 실내온도가 섭씨 40도를 오르내려 2~3시간 간격으로 일어나 물을 적신 수건으로 몸을 닦고 자야 할 정도다.

대부분의 현지 주민들은 집에 전기 시설이 없어 밖에서 자기 때문에 모기에 물려 자주 말라리아에 걸린다. 한여름 낮의 실외 온도는 섭씨 45~55도를 오르내리고 모래 먼지 바람이 자주 불어 수시로 물로 샤워를 해서 체온을 식혀줘야 한다. 땀으로 인한 갈증으로 체력이 소모되는 것이 가장 견디기 어렵다.

- 벼 농사와 관련해 누구의 도움을 받고 있다.

신진철(농생대 72) 박사의 도움이 크다. 농촌진흥청에서 벼 재배를 연구하신 분인데 은퇴 후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자문위원으로 봉사를 하고 계신다.

지난 6월 우리 마을에 와서 품종개발에 열의를 보이셨다. 과거 우리나라가 개발했던 품종이 적응이 잘 된 다며 올해 시험재배에는 밀양23호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차드 주민들이 기아에서 벗어나려

면 벼농사의 기계화가 절실한데 현재 확보된 기계들이 많지 않아 도움이 필요한 부문이다.

- 농사 외에 하고 있는 사업은

차드의 보건환경과 위생은 세계 최악이다. 외부와 고립된 마을에 보건소나 약방을 개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미니 보건소와 진료소에 전문간호인력, 예를 들어 nurse practitioner(np)나 약사들이 오셔서 도와주 시면 더 말할 나위 없겠다. 현재 만바 마을에 간이 보건소와 약방 한 개씩을 운영하고 있다.

세계기독교간호재단((WCNF)의 도움을 기대하고 있다.

차드는 문맹률이 70~80%에 이른다. 교육은 필수적이다. 지금까지 6개의 초등학교와 1개의 중학교를 세웠다.

-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분들이 있다

서울대 동문이 운영하고 있는 이랜드의 아시안 미션의 복지재단에서 농기계 일부를 후원해 주셨다. 미국내 동문들도 개별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

- 우물도 뚫다

현재 180개를 뚫다. 차드는 사하라 사막에 위치해 있고 전 국토의 사막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물 부족이 심각한 나라다. 우물이 한개도 없는 마을이 수도룩하다.

- 앞으로의 계획은

우리는 선진국인 미국에서 살면서 풍요를 한껏 누리고 살고 있다. 아프리카의 참담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우리가 가진 물질과 재능을 나누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아직은 미완성이지만 만바 공동체가 자립경제를 이루고 청년지도자들을 배출하며 이를 모델로 제2, 제3의 만바 마을이 생겨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최근엔 세네갈 대사를 지낸 ‘동기생’ 최동환(불문학과 74) 동문이 우리와 함께 사하라 사막에 나무심기 캠페인(Sahara Green Project)를 벌이는 등 도움을 주고 있다.

다만 남편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아 걱정이다. 아프리카의 열악한 풍토가 병을 더욱 악화시킨 게 아닌가 싶다.



인도네시아는 내 마음의 고향 ‘역마살’ 35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인간미 “참으면 복이 와요” 일상의 삶에서도 실천



이병철
공대 81

오후 5~6시의 인니

한 달에 한 번은 달리기를 한다. 건강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천천히 달리면서 지난 시간을 되새겨보고 앞으로의 계획도 세워보는 기회의 장을 만들기도 한다.

더운 상하의 나라에서 뛰기 좋은 시간이 저녁 5시~6시 사이인데, 날씨도 선선하고 달리기 마칠 무렵에는 석양을 볼 수도 있어 분위기가 꽤 괜찮은 편이다.

한국에서 태어나, 일본 히로시마, 호주 멜번, 헝가리 부다페스트, 불가리아 소피아, 폴란드 바르샤바, 캐나다 토론토, 미국 LA에서의 생활을 거쳐, 2013년 3월부터 인도네시아(인니)에서 생업을 이어가고 있다.

머나먼 이국에서 생활하는 불편함도 있지만, 여타 국가에서 경험하지 못한 인니 나름의 정취를 느끼면서 나름 독특하고 값진 인생 경험을 하고 있다.

베이비 부머 세대로서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바이겠지만 참 빠듯하게 살아왔다. 스무살 전까지는 대학 입시를 위한 공부에 전념해야 했고, 대학 졸업과 함께 시작한 취업 생활에서는 전쟁터 전투원 같이 지냈다.

야간 잔업 업무는 다반사였고, 애기 출산일에 집에 가봐야겠다고 말하기 애매한 분위기가 연출되는 사무실 환경(실제 당시에는 너무 할 일이 많았다)에 익숙해야 했고, 항상 박봉에 쪼달리는 삶을 감수해야 했다.

대학 졸업 후 지금까지 단 하루도 월급쟁이 생활을 걸러지 않은 본인으로서 여유있는 개인 생활의 자유로움을 느끼기가 여의치 않았었다. 그러다가 ...

지금도 월급쟁이 생활을 한다는 점은 변함 없지만, 인니에서의 지난 10년간 생활을 통해 그나마 자연인같은, 또는 인간다운 맛을 가장 근접하게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달리기를 하면서 이 곳 인니 생활의 특징이 무엇이 있을까 나름 정리해 본다.

웃는 얼굴

이곳 사람들은 인상이 밝고, 항상 잘 웃는다. 특히 초면의 외국인들에게는 더욱 친절하게, 또 자상하게 도와주려고 한다. 과거 350년여 네덜란드, 2차 세계대전 종전 직전 3년간 일본의 식민지 생활을 거쳤지만 네덜란드나 일본에 대한 반감도 별로 없는 듯하다.

여기 국민의 대부분이 회교도인들이고, 항상 “신의 뜻으로”를 반복하며, 하루 5번 기도 시간을 가지는 점이 그 이유 중 일부라고 볼 수 있겠다. 일단 외국인으로서 볼 때는 대단히 반갑고, 고무적이지 않을 수 없다. 웃는 얼굴에 침 뱉지 못하니 사회 분위기가 밝아지고 편해지게 된다.

이 나라 말로 “Sabar, subur,” 즉 “참으

이 가능할 것이고, 인니의 국기에 가까운 배드민턴이나 골프, 서핑 등 레저활동도 자주 접할 수 있을 듯하다.

한국 문화에 대한 인기

요즘 한국 문화, K-팝이나 K-드라마에 대한 인기가 하늘을 찌른다. 인니 직원들과 어울릴 때 마다 한국말을 구사하려고 하고, 한국 드라마에 대한 소재거리를 얘기 하려하고, 누가 잘 생겼고, 누가 연기를 잘한다 하면서 즐거워한다.

자연스럽게 한국의 위상이 올라가고 외국인으로서 간접 이익을 보는 효과를 누리게 된다. 참 이런 시기가 오기도 하는구나 싶기도 하고, 어렵게 일구어 낸 우리 자산을 잘 간수해야겠다는 다짐도 해본다.

식민종주국에도 반감 거의 없어 항상 ‘신의 뜻’ ... 외국인에 친절 동문은 200여명, 자원개발 중사



면 복이 와요”라는 말의 뜻이 실생활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회교 금주 문화

회교 국가로서 절대적으로 금주 문화가 대세이다. 물론 밀주도 있고 특히 젊은 분들 위주로 맥주 정도는 많이 마시지만, 음주 문화에 익숙한 본인으로서 이 곳 분들은 거의 술과는 담을 쌓았다고 봐야할 정도이다.

반대급부로 금주 문화 속에서 주세는 높고, 대부분의 한국 음주가로서는 주류 소비에 많은 금액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기는 하다.

항상 균형의 문제인 듯 음주는 기쁜 마음으로 즐기고, 또 여타 여가생활/운동 활동을 함께 병행하면 더욱 알찬 생활

우리 문화의 인기가 높은 만큼 우리도 인간미 있게 현지인을 대해 줄 필요가 있고, 우호적인 양국 관계가 더욱 발전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일부 현지인을 거칠게 대하는 한국분들을 볼 때가 있는데, 괜히 죄인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한다.

팁- 가성비

미국 살 때에는, 특히 고급 식당에서 식사하는 경우 팁 액수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았다. 근데 여기 인니에서는 1달러 정도로 충분히 고가의 팁을 주는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다.

하루 일당이 10달러 정도라고 봤을

때, 1-2달러 정도로 감사를 표시하면, 찐한 감동의 순간이 연출될 정도이니 참 행복한 나라라 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지갑에는 잔돈 지폐로 가득 채우고, 언제 어디서나 꺼낼 준비를 하고 있다.

지역별로 최저 임금이 많이 다른데, 높은 곳은 월 330달러 정도, 150달러 보다 낮은 곳도 많다. 월봉 250달러 보고, 한달 200시간 일하면, 시간당 1.25달러 수준이니, 1달러 팁을 받으면 격히 기쁘지 않겠는가?

다양성의 군도 나라

인니는 다양성의 나라이다. 섬이 1만 5,000개가 넘고 언어, 종족 모두 300가지 이상이다. 결혼식 풍습도 다르고, 음식 문화도 가지 각색이다. 계속 새로운 양식의 문화를 접하는 느낌이다.

은퇴하면 꼭 한번 다양한 문화를 음미하는 기회를 갖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한다. 경관이 우수한 곳이 비일비재, 특히 해양국가 특성상 지진, 화산등 지각 변동으로 인한 자연 재해 및 경관이 많은 편이다. 자연인의 느낌을 만끽하고 싶을 때, 인니 여행을 강추하고 싶다.

인니 오후 6시 즈음

석양이 지면서, 1시간 달리기 마감과 함께 기도(하루 중 4번째)하라는 스피커 소리가 동네 전역에 퍼진다. 이제 원고 구상도 마감할 시간이다. 조만간 인니 생활도 10년에 되니, 이 곳 생활도 마감할 즈음이다.

지난 35년여간 경험했던 여러 국가들, 특히 나의 40대, 10년간 생활했던 미국 생활에서 느끼지 못했던 인간적이고 자연미 넘치는 인도네시아는 항상 내 가슴 속에 깊이 자리잡고 있을 것이다.

서울대 동창회

총 150명 규모이며 농생대 출신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아무래도 자원개발 관련 종사자들이 많기 때문인 것 같다. 회장은 배도운(인문대 79) 동문이 맡고 있다.

이병철 동문은

2013년 지인의 소개로 인도네시아 소재 생산공장 법인장으로 일하고 있다. 대우무역 경력을 살릴 수 있는 기회이자 한번도 접하지 못한 동남아 회교국가라는 점에 호기심을 느꼈다.

인도네시아에 가기 전에는 LA에서 특허지식재산권 전문 로펌에서 근무하며 특허소송 관련 업무를 맡았다.

1968~2021 남가주 공대 동창회 반세기 출간

남종우(공대 62) 공대 회장은 머리말에서, '찢어지게 가난했던 조국을 떠나 청운의 꿈을 안고 이역만리 미국에 와서 서울공대 졸업생이라는 머리 하나로 맨땅에 헤딩하면서 낯설은 문화 속에서 지내온 반세기'라고 소회를 밝혔다.

남종우 회장의 소감처럼 지난 반세기 동안 서울대학교 공대생들, 그 중에서도 미국에 오고 또 남가주에 정착한 많은 동문들의 개인사는 곧 모교와 모국의 역사로 이어진다.

지난 1968년 김동명(공대 44), 정형조(공대 45) 동문 등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진 서울공대 남가주 동창회는 이제 500여 명의 회원이 모일 만큼 성장했다.

그러나 그 반세기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이 책의 발간이 결코 간단하거나 쉽지는 않았다.

동창회를 이끌어오던 36명의 회장 중 17분을 비롯, 초창기 회원 중 이미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도 많고 사진이나 기록 등 대부분의 자료가 소실되어 이를 모으는 일부터 난관이었다.

그러나 위종민(공대 64) 편집위원장은 한효동(공대 58), 조정시(공대 60), 한홍택(공대 60), 김병연(공대 68) 편집위원들과 함께 공대 동문들은 물론 그들의 가족 혹은 타 단과대 동문들의 축사와 축시, 수필, 그리고 타주로 이주한 홍용식(공대 51) 동문과의 전화 인터뷰 등을 실어 남가주에 정착했던 공대생들의 지난 50여년의 발자취를 알 수 있는 역사서이자 인문서를 탄생시켰다.

책 편집과는 거리가 멀어보이는 공대생들이 은퇴 후 동창회 봉사하러 나왔다가 미국 땅에서 꿈을 이뤄왔듯이 평생 해보지도 않았던 책 발간을 열정과 집념으로 무려 200페이지에 달하는 책으로 완성시킨 것이다.

이 책을 통해 서울공대 남가주 동창회를 들여다보면 개인의 성공을 넘어 지난 반세기 동안 동문의 화합과 조국의 발전에 얼마나 큰 공헌을 해 왔는지 알 수 있다. 참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실려 있고 참 다양한 경험들이 소개되어 있다.

남가주총동창회 결성의 중심 단과대 중 하나인 공대 동문들은 골프모임이나 산악회 등 총동창회 공식 행사 뿐만 아니라 남가주 동문 모임 어디에서나 참여와 활약이 활발하다. 타 단과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회원이 많기도 하지만 단합도 참 잘되는 동창회임에 의심이 없다.

또한 모교와 모국 사랑도 남다르다. 노명호(공대 61) 미주 동창회장도 공대 동문이고 젊은 동문들의 성공 멘토로 활약 중인 한홍택(공대 60) 동문 역시 그렇다. 많은 동문들이 모교와 동문회 발전에 늘 앞장 서 있다.

이 책에서는 많은 분들의 가난했던 모국을 떠나 미국 땅에서 성공하고 다시 모국의 발전에 기여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다. 많은 분들이 감수성 넘치는 아름다운 마음을 시로 수필로 들려주고 있다. 연혁이나 사진들을 보고 있자면 그 시절의 모습들이 연상된다. 이 책을 읽다보면 아마 많은 분들은 상념에 잠길 것이고 어떤 이들은 감탄을 금치 못할 것이다.

이 책은 은퇴한 공대생들이 어렵게 자료를 모아 만든 단순한 기념책이 아니다. 공대생이 아니더라도 젊은이들에게 권하고 싶은 책이다. 선배들의 성공담을 통해 배울 수 있고 선배들의 조언을 들을 수 있다. 또 어떻게 살아야 의미 있는지 생각하게 한다. 이 책은 세상을 바꿔 온 선배들의 회고록이자 후배들의 인생 지침서라고 하겠다.

취재=손영아<음대 85>



지난 9월 24일 열린 뉴잉글랜드 동창회 창립 25주년과 기념문집 '진리의 빛, 뉴잉글랜드를 비추다' 발간 기념식에는 80여 명의 동문들이 참석하는 등 성황을 이뤘다.

‘진리의 빛, 뉴잉글랜드를 비추다’ 창립 25주년 맞아 기념문집 발행

뉴잉글랜드 동창회(회장 임영호·공대 72) 창립 25주년 및 기념문집 발간 축하연이 지난 9월 24일 니드햄 소재 웨라톤 호텔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80여명의 동문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기념식은 김종섭 총동창회장이 축사를 보내오는 등 한국 동창회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김 총동창회장은 “한국과 뉴잉글랜드 사이에 더욱 활발한 인적 교류가 이뤄지는 것 같아 뿌듯하다”며 두 동창회간의 협력을 강조했다.

신응남 전 미주 동창회장은 “기념문집은 지난 25년의 세월을 응축한 한 편의 역사서”라고 치하했다.

이외에도 보스턴 한인교회의 담임목사 이영길(의대 72) 동문과 윤상래(수의대 62) 전 회장의 축사가 있었다.

이어 이의인(공대 68) 편집장의 기념문집 발간 경위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김정선(문리대 66) 편찬위원장은 편집진과 자문진을 소개,

박수를 받았다.

기념문집 '진리의 빛, 뉴잉글랜드를 비추다'는 서울대인들의 발자취를 역사특집으로 맨 먼저 수록했고, 시와 수필, 기행문, 인생소고, 지식 산책 및 회고의 글들을 '우리들의 이야기'로 묶어 실었다.

관악회 회원들의 원고는 '관악회 한 마당'으로 꾸몄다. 이외에도 동문들의 미술작품도 실렸다.

문집은 풀컬러 500여 페이지. 모두 1,000부를 발행했다. 동창회 측은 2만달러가 넘는 후원금이 답지해 문집 발간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말했다.

기념문집 편찬위원은 정정욱(의대 60), 윤은상(상대 66), 이강원(공대 66), 장수인(음대 76) 동문, 특히 디자인은 이경아(미대 84) 동문이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문의: 김정선

jkim@systemic.com

이의인

euiinlee@verizon.net

취재=김정선<문리대 66>



발간사 동문들의 발자취 엮어내



남정우
전기 62
남가주 공대 동창회장

1950~1960년대 찢어지게 가난했던 조국을 떠나 청운의 꿈을 안고 이역만리 미국에 와서 서울공대 졸업생이란 머리 하나로 빈 땅에 헤딩하면서 낯설은 문화 속에서 지내온 반세기!

혹자는 미국 유수 대학에서 공부하고 저명한 학자로, 혹은 유수 기관에서 근무하며 사회발전에 공헌하며, 또는 사업을 일궈 성공하면서 서울공대생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마음껏 지켜 온 반세기!

1968년 몇몇 동창들이 44학번 김동명, 45학번 정형조 선배님을 중심으로 결성

된 저희 서울공대 남가주 동창회가 어언 반세기를 넘겨 53년 째가 되었습니다. 회원 수도 50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동안 조국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며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이 되었고, 저희 또한 가정을 꾸미고 자식들 결혼시키고, 귀엽기만 하던 손주들도 자라 제갈 길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그동안 함께 고락을 같이한 동창들, 아쉽게도 하나 둘씩 저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 저희 동창회가 지내온 발자취를 책으로 엮어 기록으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여태까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동창회를 이끌어오신 선배님들, 본 동창회를

빛나게 해주신 동창님들, 그리고 이 책자가 나오도록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심신을 아끼지 않으신 선후배님들, 모두 저희 동창회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회원님들, 그 가족들,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출판기념 및 송년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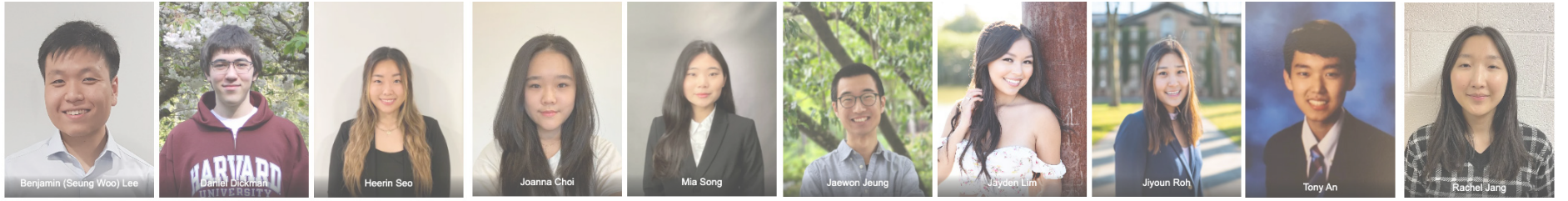
▲ 일시: 12월 3일(토) 오후 5시

▲ 장소: 작가의 집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 문의: 남종우(714-401-9169)

이메일: namcw58@gmail.com



SNUAA 동창회 장학생 “미국의 내일을 이끌 인재들입니다” 서울대의 귀한 자산 ... 언젠가 노벨상 수상자도



한홍택
공대 60
심사위원장

“부모나 본인의 재정상태를 묻지 않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곳은 아마 미주 한인 사회에서 우리가 유일할 겁니다.”

올해 처음으로 제정한 ‘미주 동창회 스칼라십’ (SNUAA Scholarship)에 심사위원장으로 참여한 한홍택(공대 60·UCLA 석좌교수) 박사는 동창회의 장학금은 여느 한인 커뮤니티의 스칼라십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제출서류에 인컴택스 리포트가 첨부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리가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은 학생 개인의 자질이에요. 리더십이 있고 학업성취도가 뛰어나 한인사회 뿐만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들을 발굴해 격려하고 키워주자는 것이 스칼라십의 취지이자 목표입니다.”

한 동문은 기계공학부문의 권위자다. 삼성호암상을 수상했으며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을 지낸 원로 공학자다. 그 자신 SNUAA 스칼라십에 5만 달러를 기부해 동창회의 장학제도가 뿌리 내리는 데 적잖은 기여를 했다.

SNUAA 장학금 수혜대상은 반드시 서울대 동문이나 자녀들이어야 할 필요가

없다. 한인커뮤니티에 오픈한 장학금이어서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를 주고 있다.

지난 4월 선정한 제 1회 SNUAA 스칼라십에는 전국에서 70여 명이 지원, 치열한 경쟁을 통해 최종 10명이 선정됐다. 1인당 1만 달러의 장학금은 지난 6월 LA에서 열린 제 31차 미주 동창회 평의원 회의에서 지급됐다.

심사 위원회는 동창회와는 별도 조직으로 구성돼 공정을 기했다. 한 박사는 SNUAA 스칼라십이 명실공히 한인사회의 인재산실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피력했다.

한 동문은 또 장학금 수혜 학생들을 서울대 미주 동창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 소속감을 심어주고 싶다는 바람을 나타내기도 했다.

“돈만 주고 받고 끝내면 장학금을 주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동창회 장학생들이 자기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줄 계획입니다.”

매년 10명의 장학생이 탄생하면 10년 후 SNUAA 스칼라가 100명이나 된다. 서울대 동창회의 엄청난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거다. 한 박사는 “동문들의 고령화로 점차 위축되어 가는 동창회에 젊은 피가 유입돼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도 있다”며 한껏 희망에 부풀어 있다.

“지부 동창회 행사에도 (장학생들을) 초청해 일체감을 갖도록 해주는 것도 연구해볼 과제입니다. 동창회의 외연확대에 SNUAA 스칼라만큼 좋은 제도가 또 있을까요.”

한 박사가 벤치마킹하고 있는 장학단체는 ‘밀크 스칼라(Milken Scholars)’다. 장학생으로 선정되면 커리어와 관련된 카운셀링을 받게 되며 인턴십 기

회 알선, 커뮤니티 서비스, 대학원 진학이나 취업 등에서 각종 지원을 받게 된다.

지난 1989년 발족된 밀크 스칼라스는 LA와 뉴욕, 워싱턴 D.C. 등지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 미국의 내일을 이끌 지도자들을 육성하고 있다.

현재 520명으로 늘어난 밀크 스칼라들은 강한 연대감으로 인해 커뮤니티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한 동문은 앞으로 SNUAA 스칼라들 가운데 노벨상 수상자뿐 아니라 각계를 이끄는 지도자가 나올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제 2회 미주동창회 스칼라십 기부자 이름 딴 ‘지명 장학금’ 찾습니다

미주 동창회(회장 노명호·공대 61)는 기부자 이름을 딴 ‘지명 장학금’을 확보해 ‘SNUAA 스칼라십’이 영속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지명 장학금’은 기부자의 이름을 딴 장학금 수여 캠페인으로 미국에서는 보편화된 제도다.

동창회의 제 1호 ‘지명 장학금’ 기부자는 한홍택 UCLA 석좌교수다. 한홍택(공대 60)·백훈(미대 61) 동문 부부의 성을 따 ‘한백 장학금’으로 명명됐다.

미국서의 첫 ‘한백 스칼라’는 프린스턴에 재학중인 노지연. 부부는 지난해 모교에도 100만 달러를 기부해 한백 장학기금을 설립했다. 재산의 상당부분을 장학기금으로 내놓은 것이다.

노명호 회장은 “많은 동문들이 ‘지명 장학금’ 캠페인에 동참해 서울대를 미주사회에 널리 알리고 국가와 세계를 위해 뚝을 해내는 인재양성에 도움을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

했다.

미주 동창회는 제 2회 ‘SNUAA 스칼라십’ 기금으로 이미 5만 달러를 배정해 놓은 상태다. 1인당 지급액은 1만 달러. 따라서 5만 달러를 더 확보해야 내년에도 올해처럼 10명의 장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노 회장은 “글로벌 대학평가에서 서울대가 29위에 오르는 등 최근들어 고무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며 “우리 동문들도 이에 걸맞는 사회적 공헌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서울대는 올해 영국의 세계적인 대학평가기관인 QS 평가에서 지난해 보다 7계단이 뛰어올랐다. 특히 졸업생들의 평판도는 세계 21위를 기록했다. 동문들이 기부에 넉넉하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다.

미주 동창회는 국세청(IRS)에 비영리 단체로 등록돼 있어 장학금 기부는 전액 세금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동창회보 광고협찬 후원금 부탁드립니다

동창회보는 미주 각 지역에 살고 계신 동문 여러분들을 하나로 엮어주는 유일한 인쇄매체입니다. 매달 거의 1만부를 인쇄 배포하고 있어 동창회의 재정 부담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사업체를 갖고 계신 동문들이 광고로 협찬해 주신다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 후원금과 함께 많은 분들이 출연해 주시는 종신이사 회비도 동창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내=27면 참조〉



한영신의 헬스푸드(2)

“물 드셨나요?”

하루 8잔 권장 ... 만성탈수는 노화 원인

먹을 것이 부족하던 그리 오래되지 않은 과거에 ‘식사하셨나요?’가 인사인 적이 있었다. 상대의 어려움과 건강을 한번에 살피는 어르신들의 훌륭한 인사였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 조상의 지혜를 본받아 이제는 ‘물 드셨나요?’라는 인사를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물은 너무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영양소도 없이 그저 H2O만 있고, 쉽게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큰 관심을 못 받아왔다. 또한 물이 부족하면 갈증이 생겨 알아서 물을 먹고, 설령 물을 좀 부족하게 먹었다면 소변을 농축시켜 물을 적게 내보내는 등 신체가 알아서 항상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물 마시는데 더욱 신경을 안쓰게 된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노인은 뇌의 시상하부에 있는 갈증 중추의 감각이 둔감해지기 때문에 물이 부족해도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한다.

물이 부족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체내 수분이 1~2% 정도 부족한 상태가 만성적으로 지속하는 것을 만성탈수라고 하는데, 만성탈수는 변비, 피로, 관절 이상, 노화 등의 원인이 된다. ‘설마 내가 만성탈수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는데 물을 잘 안 마시고, 수분이 많은 신선식품을 잘 먹지 않고, 만성적인 피로감이 있다면 만성 탈수를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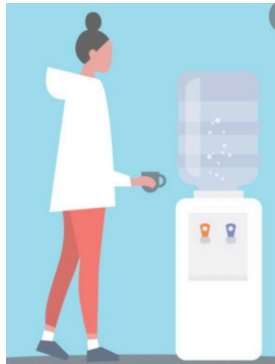
100세 시대 젊어 보이는 핵심은 피부 상태인데 수분은 피부상태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보습제를 발라 피부수분을 유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피부의 수분함량이다. 피부는 체내

수분 함유량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수분이 모자라면 노화현상이 더욱 빠르게 진행된다.

물 부족은 근육량이 줄고 근력이 떨어지는 ‘근감소증’ 위험을 높이기도 한다. 젊은 사람은 신체의 70%가 물이고 나이가 들면 수분이 많은 근육이 체지방으로 바뀌면서 체내 수분 비율이 점점 줄어 60대가 되면 약 45%까지 감소한다.

65세 이상의 노인 3,656명을 대상으로 한 한국의 연구에서 근감소증으로 진단된 남성 노인(29.7%, 470명)의 하루 평균 물 섭취량(4.4컵)이 근감소증이 없는 남성 노인(5.1컵)보다 낮게 나타나 수분 부족이 근감소를 가속화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었다.



다. 이외에도 수분이 부족하면 음식을 먹을 때 타액이 적어져 씹어 삼키는 연하곤란의 문제가 발생하고, 안구 건조의 문제도 생기고, 수분이 부족한 노인의 인지능력이 떨어진다는 연구결과를 보면 뇌기능에도 관여한다.

그러면 물은 얼마나 어떻게 마셔야 할까?

하루 8잔을 권장하는데 물 8잔을 먹는 것은 쉽지 않으니, 수분이 많은 채소를 충분히 먹고 물은 5잔 정도 마시면 어떨까?

3끼 식사 전에 반잔씩, 아침에 일어나서 조금씩 나누어 한잔, 오전에 낮에 조금씩 나누어 한잔, 저녁시간 후 자기 전 오이와 같은 채소를 섞은 미네랄물 반잔.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물 과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좋다고 너무 많이 마시는 실수는 하지 말자.

배정희(사대 54) · 이흥우(공대 50) 부부
“결혼 60주년 맞아 종신이사 가입했어요”



“결혼 60주년을 맞아 동창회를 위해 뭔가 뜻 깊은 일을 하고 싶었어요.”

뉴저지에 살고 있는 배정희(사대 54) 동문은 부부가 서울대 가족이다. 부군 이흥우(공대 50) 동문과 함께 올해 다이아몬드혼식(diamond jubilee)을 치렀다.

배 동문은 종신이사 가입을 결심하고는 지난달 미주 동창회 사무실로 체크를 보내왔다.

“지난 5월호 회보에 저희 부부 결혼 60주년 기사를 내줘 얼마나 고맙는지 모릅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동문들의 소식을 작은 거 하나 놓치지 않고 실어줘 회보를 받게 되면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배 동문은 고등학교 교사시절 함께 근무했던 수학선생의 소개로 남편을 만났

다. 현직 교사여서 학생들의 눈을 피해 데이트를 하느라 고생 좀 했으며 당시를 떠올렸다.

부부의 60년 결혼생활의 비결은 뭘까. “지난 회보에 실려있는 저희 부부 기사 제목처럼 살면 되요.”

“한 번 부부는 영원한 부부” ... 동문들이 모두 한 번 곱씹어 봤으면 좋겠어요.”

김종섭 총동창회장 후원
나눔/장학기금 마련 골프대회
11월 15일(화) · 라스베가스 컨트리클럽



미주 동창회(회장 노명호 · 공대 61)는 오는 11월 15일(화) 라스베가스 컨트리 클럽에서 골프 토너먼트를 개최합니다.

이 행사는 장학기금 등 나눔의 문화를 실천하기 위한 기금 마련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미주 동창회는 지난 4월 제 1회 서울대 동창회 장학생선발대회를 통해 모두 10명의 대학생들을 선정, 1인당 1만 달러의 스킨십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장학생 선발대회는 동문 또는 동문 자녀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미주 전체 한인 커뮤니티에 오픈, 잠재력이 많은 인재들을 발굴해 이들의 학업 및 연구 성취도를 높이고 지원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장학생들은 미주 동창회의 소중한 인적자원으로서 앞으로 동

창회의 외연 확대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장학금 프로젝트는 상당한 재원이 필요한 사업이어서 동문들의 참여와 기부 없이는 운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번 골프대회는 본국의 김종섭 서울대 총동창회장도 동참의사를 밝히

며 특별 후원을 약속했습니다.

대회가 열리는 라스베가스 컨트리클럽은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에 인접해 있어 유명인들이 자주 찾는 곳입니다.

지난 1967년 오픈한 골프장은 PGA와 LPGA 등 프로대회도 유치한 바 있어 라스베가스 최고 명소 중 하나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인근에 그랜드 캐년 등 관광자원도 풍부해 패키지 여행도 가능합니다.

동문들의 친교도 겸해 열리는 이 대회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

일정

- ▲일시: 2022년 11월 15일(화)
- ▲신청마감: 2022년 11월 1일
- ▲참가비: \$500 (그린피, 디너 등 포함)
- ▲숙박 및 관광일정: 추후 공지
- ▲장소: The Las Vegas Country Club
www.lasvegascountryclub.com
3000 Joe W Brown Dr., Las Vegas, NV
- ▲문의: 310-719-5422
서치원(대회 조직위원장 · 공대 69)



캡션

“따스한 가을 햇살과 동문애를 기억합니다” - 뉴잉글랜드 관악회 BBQ 파티 후기 -



신진우
관악회장 · 농생 04

함께 모이고자 하는 따스한 동문애가 추운 날씨마저 녹여주었나 봅니다. 이른 추석 때문인지 평년보다 부쩍 빨리 쌀쌀한 날들이 이어졌지만, 신기하게도 지난 9월 24일 토요일 이른 저녁에 열린 제3회 관악회 바베큐 파티는 따뜻하고 맑은 가을 날씨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1회 모임부터 모였던 친숙한 장소인 보스턴 근교 워터타운의 아스넬파크에서 120명이 넘는 동문 및 가족 분들이 함께 모여 알찬 한식 케이터링 음식, 숯불 소고기 바베큐 식사와 안부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보스턴 지역에 거주하는 90년대 학번 이후의 서울대 학사·석사·박사 졸업생으로 구성된 차세대-청년 모임인 관악회(회장 신진우·농생04, 부회장 정해원·자연02)는 뉴잉글랜드 동창회(회장 임영호·공대72) 소속 동호회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학생구성원이 3분의 1인 특성을 고려해 참가비 없이 전액 동창회의 후원금으로 연중 2차례(4월, 9월) 바베큐 야유회를 공식행사로 주최하여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동창회의 각종 공지 및 동문 동정, 행사 일정을 나누는 목적으로 개설된 관악회 카카오톡 단체방에 180명이 넘는 동문들이 참여해 주고 계십니다. 정기모임을 거듭할수록 다양한 전공 분야의 동문들이 관악회에 참여해주어 모임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지난 모임에 처음 도입하여

동문들의 큰 호응을 받았던 테이블 셔플링을 진행하였습니다.

자유식사 후 참석자들을 무작위로 8개의 조에 배정하여 다양한 전문분야와 연령대를 가진 동문들간에 활발한 소통을 유도하였는데, LG화학-판한농 이광경(응생화 09), HMS/BWH 포닥 계윤철(동물생명 08), HMS/MEE 포닥 이석주(치의과학 14박), 서울대 경영박사과정 차도형(경영10석), BC 경제 박사과정 이 에스더(경제10석), 다

연스럽게 많은 인연을 만들어 갈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강혜림(약학 16), 서준석(물리16) 동문은 학생 전용 조모임을 이끌어 주셔서 또래 유학생들간 친목을 다지는데 일조해 주셨습니다.

모임에는 동문들의 동반인, 가족 분들도 다수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 주셨습니다.

Merck사의 Clinical Director인 최예원 (의예06/의학08) 동문의 동반인으로 참석해주신 Eric 씨는 ‘다양한 학

있는 동문들의 번개모임 (Impromptu)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관악회 모임은 자발적인 번개모임을 통한 다양한 소모임의 활성화로 더욱 성숙해질 것이 기대됩니다. 동창회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고도 서로의 필요에 따라 모임이 활성화 되며 동문간의 교류가 활발해지는 좋은 예라 할 수 있겠습니다.

친목을 다지는 것 뿐 아니라 실용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이명진 변호사 사무실 (Law Office of MJ Lee) 협찬으로 10분 넘는 동문들을 대상으로 무료 영주권 상담 테이블을 운영하였습니다. 무료 상담과 다기능펜, 후원을 해주신 이명진 변호사 사무실에 감사드립니다.

또 이번 모임은 서울대 뉴잉글랜드 동창회 설립 25주년 기념문집발간 행사 직후에 다른 장소에서 이어진 모임이었기에, 모임 참석자 분들에게 16권의 문집을 나누어 드릴 수 있었습니다.

관악회 동문 11분도 참여해 너무나 멋지게 만들어진 기념문집은 서울대 동창회의 격을 올려주는 멋진 소품이었습니다.

가을 늦은 오후에 시작한 모임은 순식간에 3시간이 지났고 땅거미가 질 무렵 ‘다음 모임은 또 언제냐’는 동문들의 질문을 받으며 모임을 마무리 했습니다.

동문 분들의 호응 여부에 따라 추후 연말, 연초 등에 카톡방을 이용한 번개모임도 추진해 볼 예정입니다. 1년에 2차례 있는 정기 모임 만으로 부족한 만남에 대한 수요가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모임을 위해 수고해 주신 조장님들과, 또 선발대로 도착해서 숯불을 준비하고 모임 내내 맛있는 고기를 공급해주신 바베큐팀 동문들 및 열심히 참여해주신 모든 동문 여러분께 다시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따스한 마음과 기억을 간직하며 추운 보스턴의 겨울을 잘 보내시고, 또 만나 뵈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90년대 학번 이후 동문 모임 ‘테이블 셔플링’ 도입, 큰 호응 “아빠, 친구들 또 언제 만나?” ‘키즈 모임도 만들자’ 제의도

나-파버 암연구소 선임 연구원 오세희(약학 06), MIT-하버드 브로드 연구소 포닥 윤호종(약학 06), HMS/MGH 포닥 정아인(심리 00), Asimov Mammalian Synthetic Biologist 정해원(생명 02), Intek Sci CEO 정신영(화학공학 04), MIT 항공과 석사과정 오정석(기계 14), 다나-파버 암연구소 연구원 강혜림(약학 16), MIT 물리학과 박사과정 서준석(물리 16) 이상 13분의 다양한 연령대와 전문분야에 속한 훌륭한 조장님들의 진행 아래 한시간 반 동안 2차례의 테이블 셔플링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처음 모임에 오신 분들도 자

계, 산업계에 있는 좋은 분들을 만나 맛있는 한국음식과 함께 멋진 대화를 나눌 수 있어 마치 Jet Lag 없이 한국을 방문한 것 같았다’는 소감을 나눠주셨습니다.

또한 자녀들을 동반하여 가족단위로 참가해 주신 동문들이 더 늘어났습니다. 생후 몇 개월 된 아기부터 뛰어다니는 어린 이까지 스무 명 넘는 아이들이 모임에 함께 해 주었는데, MIT-하버드 브로드 연구소 포닥이신 윤호종(약학06) 동문은 아들 리안이가 모임 후 주말에 “아빠, 그래서 그 친구들은 언제 또 만나?”라는 말을 했으며 홍찬영(응생화04) 동문과 함께 ‘관악회 키즈 모임’, 즉 아이들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남가주 와이너리 여행 후기

지난 10월 8일(토) 50여명의 남가주 동문들이 로스 올리보스에 있는 켈리 와이너리를 다녀왔습니다. 좀더 많은 동문들이 함께 했으면 했지만 버스 여행에 대한 불안감, 모교의 홈커밍데이 행사 참석 등 여러 요인이 있어서 같이 못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와이너리 여행에서는 약대 이명일, 의대 김자성 동문이 각각 기타와 우쿨렐레를 가져와 마이웨이를 비롯한 70-80 노래 등 추억의 팝송을 부르며 신명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발대로 일찍 온 임원들은 테이블 세팅을 예쁘게 해놓는 등 자연속에서 한결 좋은 분위기를 내느라 애썼습니다.

와이너리에서는 로스 올리보스 타운의 ‘파니노’라는 레스토랑에서 준비해온 샌드위치, 또는 손수 싸온 도시락 등을 나누며 오붓한 야외 피크닉 시간을 가졌습니다.

와이너리는 물가상승을 의식한 듯 ‘인플레이션 버스터’라는 명목으로 와인 케이스를 세일해서 좋은 가격에 지역 특산 와인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와이너리 일정을 뒤로 하고 일행은 술뱅으로 가서 덴마크 마을의 정취, 호박들을 가져다 놓은 미니 편지팩치도 보고, 아이스크림 샵에 들러 달콤한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이날 약간 더운 날씨 이긴 했으나 산타바바라에 이르러는 시원한 바닷바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닷가 피어 근처에 자욱한 해무는 독특한 풍광을 연출하였습니다.

이명일-김자성 악단은 산타바바라의 길거리에서 즉흥 연주를 시작, 지나가는 사람들의 도네이션도 받으며 흥겨운 연주를 이어갔습니다.

LA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도 내내 노래가 이어져 이날 여행은 와인보다 노래가 더 좋았다고 한 선배님도 계셨습니다.

일일 여행으로 다녀온 와이너리 여행의 하루가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노랫말처럼 창가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가득한 사랑을 발견하기를 소원해 봅니다.

취재=박제환<남가주 총동창회장>



와이너리 여행에는 50여명이 참가해 10월의 멋진 하루를 즐겼다.



이명일 동문의 기타와 김자성 동문의 우쿨렐레 즉석 연주.

뉴잉글랜드 동창회 가을 야유회 1950학번과 2018학번의 ‘만남’도



뉴잉글랜드 동창회가 주관한 가을 야유회. 다양한 세대의 동문들이 함께 자리해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됐다.

뉴잉글랜드 동창회(회장 임영호·공대 72)는 지난 10월 1일 보스턴 근교 뉴턴에 소재한 Auburn-dale Park에서 가을 야유회를 주최했다. 25주년 기념 행사에 연이은 토요일 행사인데다가 아침부터 오락가락하는 가랑비는 준비한 임원들의 마음을 졸이게 하였으나 예상외로 많은 동문들이 참석해 환담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는 브라운대에서 오랫동안 연구생활을 한 최고령 모정자(문리

대 화학과 50) 동문으로부터 올해 학부를 졸업하고 하버드 물리학과 박사과정에 입학한 최연소 김다솔(자연대 물리천문학부 18) 동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세대의 동문과 가족들이 함께 하였다.

비가 걷히면서 진행된 2부에서는 동문소개, 상품권이 걸린 서울대 트리비아 게임 등의 순서가 있었다. 이날 참석한 동문들에게는 뉴잉글랜드 동창회 25주년 문집이 배부되었다.

취재=이경애<인문대 73>



최연소 김다솔(자연대 18, 왼쪽) 동문과 최고령 모정자(문리대 50) 동문.

세종문화회, 국제문화교류 대통령 표창 상금 3천만원 ... 김호범 이사장 수상

한국문화 보급에 앞장서 온 시카고의 세종문화회(Sejong Cultural Society, 공동회장 전현일·박계영)가 지난 10월 8일 한국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제41회 세종문화상을 수상했다.

세종문화회는 국제문화교류 부문에서 대통령표창과 상금 3,000만원을 받았다.

서울 한국국립한글박물관 야외무대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김호범(상대 69) 이사장과 이창근 고문이 세종문화회를 대표해 참석, 박보균 장관으로부터 대통령 표창장과 상금을 받았다.

세종문화회는 지난 2004년 일리노이대 의대 교수인 루시 박(한국명 박종희, 의대 69) 동문이 제안해 시카고 서울대 동창회가 탄생시킨 독립된 비영리단체이다.

공동창설자인 박 동문은 창립 때부터 세종문화회의 사무총장으로 봉사하며 세종문화회의 제반 프로그램들을 개발, 집행해 오고 있다.

세종문화회는 세종음악경연대회, 세종작문(수필/시조)경연대회, 세종국제작곡대회, 세종국제시조경연대회를 매년 실시하고 미국교사들이 시조를 수업시간에 가르칠 수 있도록 교사대상 시조교

육을 주관해 오고 있다.

음악경연대회에서는 한국의 열(테마)이 들어간 현대곡을 지정곡으로 하여 참가자들이 한국의 고유한 음률을 맛보게 하고, 작문경연대회에서는 한국 작가들의 작품(영어번역판)들을 읽고 주어진 주제로 수필을 쓰게해 한국작가들의 작품을 미국에 소개하고 있다.

시조부문에서는 한국 고유의 정형시인 시조의 형태에 맞게 시조를 영어로 써서 제출하도록 하며, 매년 천명 내지 천오백명이 응모하고 있다.

북미주 뿐만 아니라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국제시조경연대회를 추가해 이미 2

차례의 세종국제시조경연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시조경연대회와 더불어 미국 교사들이 시조를 배워 수업시간에 가르칠 수 있도록 시조교육자료들을 개발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영어로 된 시조참고서 ‘SIJO: Korea’s Poetry Form’을 제작해 미국 교사들에게 배부, 시조에 관심있는 일반인들을 위해 온라인으로도 판매하고있다.

취재=이준수<공대 76>



발행인에게

끝까지 읽으며 위로받아

동창회보 편집진에 감사드립니다. 빈민사역을 하시는 목사님 이야기와 관악연대를 중점적으로 다뤄주시고, 그 후원을 위해 노력하시는 동창회 임원님들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젊은 후배들의 양성에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피니언 글 중 편집고문님의 ‘크레이지 영글’은 625 전쟁을 겪고 이곳에 사는 저의 세대에는 누구나 공감되는 가슴 따뜻한 글이어서 참으로 좋았습니다.

저와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위로 받는 동문들이 많이 있으니 힘내시기 바랍니다.

김자경(사대 60)

‘우영우 신드롬’을 읽고

9월호에 실린 자폐 특집을 읽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 주변에도 자폐자녀가 있는 동문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을 읽고 혼자 아니라라는 사실을 알면 큰 위로가 될지 싶습니다.

동문끼리 소통하는 커뮤니티가

생겨날 수 있도록 동창회가 앞장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브라이언 김(문리대 71)

성금을 보내고 싶은데...

이태후 목사님의 기사를 읽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서울대 동문들 중 이런 분이 계시다는 게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체크를 보내드리고 싶은데 연락처나 송금할 수 있는 방법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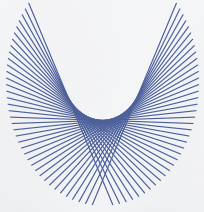
정구영(시카고 73학번)

기사를 전재했으면

동창회보 애독자입니다. 뉴멕시코주 앨버커키 한인연합감리교회 장로로서 격월간지 ‘광야의 소리’를 10년 가까이 편집해 오고 있습니다.

9월호 기사중 이곳 한인들에게도 소개하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전재했으면 합니다. ‘노래하면 다 이돌핀이 듬뿍 솟아나’와 ‘음악이 치매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기사를 전재해도 될까요.

이경화(공대 56)



새로운 도약 당신과 함께

서울대학교 모금캠페인

2025년 대한민국 최고의 문화 공간이 서울대학교에 탄생합니다

서울대학교 문화관은 관악캠퍼스에서 서울대를 대표하는 복합문화시설로 그동안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학내를 넘어 서울대가 가진 문화적 역량을 지역사회와 공유해 나가기 위한 새로운 시설이 필요합니다. 서울대는 '문화관 리모델링 · 증개축 사업'을 통해 국립대학으로서 미래 한국문화 발전의 책임과 지역사회와 소통의 역할을 다하려고 합니다. 문화관 모금캠페인에 동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화관 리모델링 기부자 예우

기금을 출연해주신
여러분의 이름을
문화관
곳곳에 새겨
소중히
기억하겠습니다

융합 공간

블랙박스형 공간 (300석 규모) 100억
가변형의자 100만원

도전 공간

제작공방 (규모별) 20억
영상스튜디오 (규모별) 20억

사색 공간

기부자 갤러리 공간 50억

문화 공간

공연홀 (900석 규모) 200억원 이상
공연홀 의자 100만원
VIP zone (7개실) 10억

창의 공간

기부자 창작공간 (2개실) 20억
기부자 세미나실 (2개실) 20억

지식 공간

기부자 Lounge 50억

* 문화관 네이밍 예우 금액은 추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래 신청서를 작성 후 휴대폰으로 찍어 america@snu.ac.kr로 메일 보내주세요. 담당자가 참여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서울대학교의 혁신을 주도하고 미래를 여는
문화관 모금캠페인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금목표
310억원

모금기간
2021년 10월
~계속

문화관 리모델링 기금 간단 참여 신청서 [MH22-10]

성명: _____ 연락처: _____
학과(특별과정): _____
약정금액: _____

Pay to the order Seoul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



서울대학교발전기금 미주재단 Seoul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 Inc.

NJ | 222 Bridge Plaza South Suite 720, Fort Lee, NJ 07024 Tel +1-212-768-9144 Fax +1-212-768-4494 E-mail kenneth@klgroup.cpa

LA | 2410 W. James M. Blvd. Los Angeles, CA 90006 Tel +1-213-435-1974 E-mail america@snu.ac.kr

SEOUL | SNU Research Park Main Building, 1 Gwanak-ro, Gwanak-gu, Seoul (08826) Tel +82-2-871-8004 Fax +82-2-872-4149 E-mail snuf@snu.ac.kr

당신 정신과 의사 맞아? ‘전이현상’은 무의식의 세계 … 환자도 인식못해 심한 ‘감정노동’에 시달려 세상과 격리된 듯 살아



천양곡
의대 63

“정신과 의사 맞아?”란 소리를 종종 듣고 산다. 부부 싸움할 때 배우자로부터, 병원에서 다른 과 의사한테, 드물게는 환자에게도 듣는다.

정신과 의사는 화도 안내고 참을성이 많은 인격자일까? 아주 소수만이 그럴 것이다. 그중엔 알코올 중독자, 가정 폭력자, 가끔 성폭력자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다. 의견 차이로 서로 감정이 격해 있을 때는 자신을 제어하지 못해 정서적 평형을 잃을 때도 흔하다.

심심치 않게 방송과 신문에 환자를 성희롱 하거나 성행위를 한 정신과 의사의 비행이 실린다. 그렇지 않아도 정신과 의사를 싫어하는 환자들은 이때다 하고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을. 그 사람 정신과 의사 맞아요?” 하며 항의한다.

“의사도 사람이니 무슨 사연이 있겠지요” 해서는 안된다. 이유야 어떻든 환자와의 성행위는 정신과 의사의 잘못이다. 환자와 합의하에 성적 접촉을 했어도 의료 윤리에 어긋난다. 최소한 2년이 지난 후 옛 환자와 성관계는 법적으로 죄가 아니다.

의사와 환자 사이의 로맨틱한 관계는 치료 중 형성되는 과정에서 생긴다. 환자나 의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다. 의사가 환자를 편안하고 진실하게 대해 주면 환자는 의사를 믿고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는다. 정서적 별거숭이가 된채 모든 문제들을 의사에게 의존하고 상의한다. 정신분석 용어로 ‘전이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전이는 어렸을 때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경험한 특별한 감정이 지금 자기를 치료해주는 의사로 옮겨가는 심리적 기전이다. 이런 감사의 정이 의사를 계속 만나는 과정에 서서히 성적 표현으로 나타난다.

통계에 의하면 전이 과정 중 환자의 반 이상이 정신과 의사에게 성적으로 끌린다고 나와 있다. 전이는 주로 무의식 속에서 이루어 지기에 환자 자신도 잘 인식하지 못한다.

정신과 의사 또한 환자가 자기를 믿고 따라주면 호감과 더불어 치료를 잘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 감정이 점점 쌓이게 되면 어느 순간 환자에게 성적 느낌도 생긴다.

특히 외로운 처지와 감정에 처해 있는 정신과 의사의 경우는 더하다. 하지만 환자가 의사를 향한 성적 끌림은 환자의 마음 속에 품고 있는 이상적 형상을 정신과 의사에게 투사하는 것이지 실제로 정신과 의사를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 정신과 의사가 이런 전이 현상을 잘못 이해하면 사회적 의료적 문제가 뒤따른다.

이와는 다르게 그루밍(Grooming) 성폭력이 있다. 보통 청소년과 그들의 멘토, 성직자와 신도, 학교 선생과 학생, 의사와 환자 사이에서 자주 일어난다.

사회적으로 우위에 있는 가해자가 계획을 세워 피해자의 어려운 상황을 함께 공감하고, 조언과 지지를 해주어 신뢰를 쌓은 후 심리적 지배를 통해 성적 욕망을 채우는 행위다. 일종의 성범죄로 가해자는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 반사회적 성격 특성을 지닌 정신과 의사가 그루밍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는 것도 보았다

가정 폭력이나 전이를 이해하지 못해서 또는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반사회적 성향의 정신과 의사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오랫동안 정신과 의사로서 살아온 내 체험에 비추어 “정신과 의사 맞아요?”라는 말을 변명 같지만 나름대로 한 번 생각해 본다.

정신과 의사의 삶은 좀 다르다. 환자 진료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게 문을 닫고 조용히 대화를 나눈다. 무슨 비밀 회동을 하는 것 같다. 하루 일을 마치고 집에 오면 배우자가 “당신, 오늘 병원일 어땠어?”하고 물어도 환자에 대해 시원하게 이야기 할 수 없다.

또 어느 장소에 가서도 정신과 의사를 안내도 록 노력한다. 어쩌다 모임에서 정신과 의사인 것이 알려지면 방금 만난 사람도 내 자식놈이 이러저러하니 진단이

뭘쥬 하며 묻는다.

무언가 전문적 얘기를 해주고 싶지만 꼭 참고 일반적이고 교육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친다. 직접 보지 않는 사람에 대해 정신적 평가를 하고 전문적 조언을 주는 일은 하지 않는게 좋다.

대부분의 정신과 환자들은 힘들게 고생하며 어렵게 산다. 환자들과의 고통과 슬픔에 대해 매일 매일 함께 대화를 나누다 보면 알게 모르게 환자의 감정에 전염되기 쉽다. 그들의 삶속에 끌려 들어가 그들의 감정에 흡수되면 심한 동정피로로 인해 나중엔 정서적 소진상태(Burn Out)에 빠질 수 있다.

환자들이 무슨 사고를 저지르지 않나 항상 신경써야 한다. 휴가 중에도 방송 뉴스 듣고, 신문 사회면과 부고란을 훑어보게 된다. 사람들이 정신과 의사를

법관이나 경찰처럼 사회의 안전을 지켜주는 문지기가 되어주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어떤 때는 법정에서 정신과 의사를 미래를 예측해주는 점쟁이로 취급한다. 만약에 정신병 환자가 대형사고를 치면 담당 정신과 의사는 의료사고로 고소를 당해 곤욕을 치른다.

내과나 외과는 일반적으로 원인을 알아낸 후 진단을 붙인다. 정신질환은 마음의 병이라 원인을 모르거나 혹은 다양하여 정확한 진단이 어렵다. 피 검사나 방사선 검사로는 알 길이 없다. 주로 면담과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진단과 치료를 하는 수 밖에 없다. 문제는 동일한 환자의 증상도 증상의 내용과 정신의학 수련 받은 배경에 따라 진단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물론 정신과 영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DSM(정신질환 통계 및 진단 열람)은 있다. DSM은 미 정신의학 협회가 몇 십년에 걸쳐 정신의학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모아 만든 책자다. 몇 번의 수정을 거쳤지만 아직도 많이 불충분하고 불완전하다.

대부분의 정신병은 오랜 시일에 걸쳐 아무리 정성드려 치료해도 완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환자나 환자 가족들에게 좋은 소리와 칭찬을 듣지 못한다. 그럴때면 의사로서의 자책감과 무력감을 느낀다. 가끔 환자나 그 가족들을 백화점, 음식점, 극장에서 마주칠 때도 그들은 눈 인사 정도만 하고 얼굴을 돌린다.

이런 저런게 정신과 의사로 하여금 심한 감정 노동에 시달리게 만든다. 때때로 세상과 격리된채 외롭고 고단하게 산다는 생각이 든다. 세상 무언가에 기대고 싶어 술, 마약, 노름에 의존하기 쉽고, 세상과 연결된 누구와 살을 섞고 싶어 혼외 정사로 가족들에게 버림받을 위험도 있다.

정신과 의사의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다. 그래도 종종 환자와 가족들한테 감사 편지나 감사 카드를 받을 때가 있기에 옛 일은 다 잊고 계속 일을 한다.



미주 동창회는 동문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로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동문님이 납부해주신 회비와 후원금은 동창회 활성화 및 동창회보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창회보는 이제 월간발행부수 1만부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목표를 조기에 이룰 수 있도록 동문님들의 지속적인 도움을 바랍니다. <회비 및 후원금 납부양식=27면>



나종호
의대 08
예일대 정신과 교수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Pay It Forward)’란 영화에서 주인공 트레버(할리 조엘 오스 먼트 분)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동료 학생들에게 ‘먼저 주기(Pay it forward)’ 운동을 제안한다.

보통 영어로 ‘pay back’이라고 하면 ‘무엇인가를 (빚진 후에) 되갚는다’는 뜻이다. 이와 달리 ‘pay forward’한다는 뜻은 타인에게 ‘무언가를 (받기 전에) 먼저 주는 것’이다.

주인공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타인 세명에게 선행을 먼저 베풀면 그 선행을 받은 사람들은 또다른 세명에게 선행을 베푸는 선순환이 기하급수적으로 이루어져 좀 더 살만한 세상을 만들 것

이라 믿는다.

내가 처음 미국에 발을 디딜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예일대에 계시던 한 한국계 미국인 교수님께서 나를 연구 보조원으로 받아주셨기 때문이다. 학회 발표를 위해 서울을 방문하신 교수님께 나는 다짜고짜 한국말로 이메일을 보내서 약속을 잡았고 처음 뵈는 자리에서 교수님께 미국에서 교수님 연구를 ‘도와드리고 싶다’고 말씀드렸다.

사실 말이 도와드린다는 것이 더 정확했다. 그 당시만 해도 나는 연구경험이 일천했기 때문이다. 그런 나를 교수님은 흔쾌히 받아주셨고 물심양면으로 이끌어 주셨다.

교수님의 지도 하에 나는 5개월만에 국제학술지에 논문 두 편을 게재할 수 있었고 이는 레지던트 선발에 큰 도움이 되었다. 교수님과 마지막 근무날 교수님께서 나에게 건네주신 따뜻한 말씀들은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그때의 그말씀들을 원동력 삼아 나는 힘들었던 미국에서의 레지던트 1년차

를 견뎌낼 수 있었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

마찬가지로 예일대에 계시던 한 서울 대학교 의과대학 선배님은 나를 참으로 많이도 챙겨주시고 도와주셨다. 레지던트 지원을 위한 실습을 비롯하여 추천서까지, ‘내가 이렇게 도움을 받아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다.

항상 내가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면 선배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곤 했다. “나도 너처럼 처음 미국에 왔을 때 내 멘토 선생님이 나를 많이 도와주셨어. 그때 그 선생님이 나한테 그러셨거든. ‘나중에 네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주면 된다’라고. 그러니까 너도 나한테 갚을 생각 말고 나중에 다른 사람들 많이 도와줘.”

그 말씀을 들으며 나는 영화 ‘Pay it forward’를 떠올렸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베품과 멘토링이 나에게 행운처럼 와준 것에 너무도 감사했다.

레지던트 3년 차 때 워싱턴 DC 근처에 위치한 미국 국립 정신 보건원을 방



문할 일이 있었다. 그곳 소속의 한 한국계 미국인 교수님을 만났는데 대화중에 우연히 그 교수님이 나의 선배님을 도와주신 멘토 교수님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반가운 마음에 선배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렸더니 교수님께서 웃으며, “맞아 내가 그렇게 말했어. 나 선생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 많이 도와주도록 해요”하고 말씀하셨다. 나는 꼭 그러겠노라고 대답했다. 최근에 낸 나의 책 ‘뉴욕 정신과 의사의 사람 도서관’의 추천사를 은사님들께서 기꺼이 써주시기도 했다.

미국에 온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참으로 과분한 멘토들을 많이 만났다. 그리고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도와주는 수많은 동문 선배님들, 의사 선배님들, 한국의 은사님들, 한분 한분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분들의 어깨에서 나는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었고 학문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었다. 이 자리를 빌려 나를 이끌어 주신 모든 은사분들께 감사를 표한다. 그리고 그분들께 받은 사랑을 갚기 위해 이 사랑의 릴레이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다짐해 본다.



이창섭
공대 58

‘멜’이라는 미국인 친구가 생각난다. 직장 선배였는데 말이 별로 없었지만 얼굴에는 항상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하루는 점심을 같이 먹으며 부부간에 다투는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날은 자신에 대한 말을 제법 많이 늘어 났다.

멜은 십 수년간 결혼생활을 하면서 한번도 아내와 싸워 본 적이 없다고 했다. 나이가 들면 나도 멜 같이 다투지 않을 수 있을까 기대했으나 여러 해가 지나도 나는 나아지는 기색이 없었다.

어느날 아버지께서 장거리 전화를 주셨다. “네 자식 귀한 줄 알면 남의 자식 귀한 줄도 알아야 할 것 아니냐. 남의 집 귀한 딸 데려다 호강은 못시켜줄 망정 싸우고 구박까지 한다니 그게 무슨 짓

이냐.”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들으셨는지 아버지는 몹시 화가 나 있었다. 한마디 대꾸도 못하고 전화를 끊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고쳐보야겠다고 혼자 다짐했다.

그러나 다투지 말자 생각한 것은 잠시 뿐이고 얼마 지나니 전과 똑같이 우리는 계속 싸우고 있었다. 어느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이 생각 저 생각 하고 있을 때 어머니가 떠올랐다. “요새는 다투지 않니?”하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문득 두 분은 의견 차이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셨을까 하는 의문이 생겼다. 이해심이 많은 분들이었으니까 당연히 이해심으로 해결하셨겠지, 이것이 우리에게도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이해심!

집사람을 이해하려고 마음먹고 나니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내가 너무 했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은 임신 중 여러 달을 배부른 몸으로 직장을 다니며 산고도 혼자 치러야 했던 일이다. 참 미안했다는 생각에 내 가슴까지 아파왔다.

‘내가 부르는 노래’

집사람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노래를 잘 부르지도 못하면서 아침마다 노래를 불러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다. 별로 조예도 없으면서 어떻게 노래를 부를 생각을 했는지 내가 생각해도 참 신기했다.

이에 맞는 가사는 그 당시 한창 유행하던 가요 중에서 손쉽게 찾을 수 있었다. ‘사랑을 위하여’라는 김종환 작곡가의 노래였다.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너를 바라볼 수 있다면/ 물안개 피는 강가에 서서/ 작은 미소로 너를 부르리/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다/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우리 둘은 변하지 않아.”

며칠 혼자서 연습을 한 뒤에 가사를 외우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어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집 사람 앞에서 염치불구하고 소리내어 노래를 불렀다.

집사람은 갑자기 웬일인가 하는 눈치였지만 싫지 않은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날 내가 또 집사람의 속을 뒤집어 놓았다.

“다 집어 치워요. 입으로만 하면 뭘해.” 내가 그런 핀잔을 들으니 그때까지도 노래를 부르는 것이 집사람을 위

해서라 믿고 있었기에 “싫으면 그만 두라지”하면서 노래부르기를 끝내버렸다.

자존심 때문에 평화로워야 할 우리들의 시간을 2년이나 잃어버렸다.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떤 일이 있어도 계속하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한순간에 나는 바보짓을 해버렸다.

그러나 언젠가는 건너야 할 강이었다. 나는 용기를 내어 눈을 딱 감고 다시 부르기를 시작했다.

다시 부른지가 이미 몇년이 지났는지 모르겠다. 노래를 부르며 살다보니 이제는 나의 아침 일과가 되어버렸다.

어쩌다 가사가 막히면 집사람이 바로 잡아주고, 때로는 두 손을 살며시 잡고 부르기도 한다.

내 이해심이 부족해 계속되었던 다툼은 자랑거리기는 못 된다. 하지만 변변찮은 내 용기로 ‘변하지 않는 사랑’의 토대가 되었다.

내가 부를 수 있는 날까지 집사람에게 불러주고 싶은 내 노래이고 우리의 노래다.



신에리
인문대 87

‘에헤요~ 베 짜는 아가씨 사랑 노래 베틀에 수십만 지누나~.

빨간 염색 머리에 새까만 선글라스, 반짝이 바지 차림의 남자가 온몸으로 리듬을 타며 ‘베틀가’를 부르는 모습에 전 세계가 열광했다.

지난 2017년 미국 공영라디오 NPR의 인기 프로그램 ‘타이니 데스크 콘서트’에 아시아 출신 최초로 출연한 밴드 ‘쌍쌍’의 보컬 이희문 얘기다.

경기민요 이수자인 그는 늦깎이로 국악에 입문한 뒤 우리 민요에 재즈 디스코 록 등 다채로운 장르의 색깔을 덧입히는 음악 작업을 해왔다. 그래서 붙은 별명이 국악계의 이단아, 혹은

파격의 아이콘. 얼마 전 필자가 기획 제작 중인 JTBC ‘차이나는 K클라스’에 출연한 그에게 결코 쉽지 않은 길을 선택한 이유를 물었다.

“전통이 박제화된 채 잊혀져 가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웠다”는 답이 돌아왔다. 한때 이 땅의 대중에게 널리 사랑받던 경기민요를 소수의 국악인들만 부르게 된 작금의 상황을 깨뜨리고 싶었다는 거다.

그의 취지에 심분 공감해 이희문 편에 제작진이 붙인 제목은 이랬다. 세상 ‘힙’한 요즘 노래, K민요-.

‘차이나는 K클라스’는 요즘 세계 각국이 주목하는 K컬처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다각적으로 짚어보는 20부작 특집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K드라마와 영화, K팝이 갈수록 각광받는 반면 그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전통문화는 여전히 관심 밖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새삼 절감하게 됐다.



앞서 얘기했듯 이희문이 속한 민요밴드의 공연에 먼저 반응을 보인 것도 해외 팬들이었다.

우리가 국악을 케케묵은 유물로만 취급하는 사이, 최신 감각으로 ‘힙’하고 ‘핫’하게 재탄생한 그들의 음악이 세계인의 눈과 귀를 사로잡은 거다.

K팝 스타들이 최근 잇따라 시도한 국악 크로스오버 역시 비슷한 양상을 낳고 있다. BTS 멤버 슈가의 ‘대취타’를 접한 글로벌 아미들은 도입부의 태평소 소리에 “멋지다”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거문고 연주로 시작하는 블랙핑크의 신곡 ‘핑크 벚꽃’ 뮤직 비디오의 유튜브 조회수는 일주일 만에 2억회를 넘어섰다. 전통을 올곧게 보존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시대와 호흡하며 다채롭게 변주할 필요가 크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다.

‘차이나는 K클라스’에 나온 또 다른 걸출한 소리꾼 이자람이 기존의 판소리 다

섯 마당(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수궁가, 적벽가)에 얽매이지 않고 창작 판소리에 뛰어든 이유도 그래서다.

춘향가도, 심청가도 솔직히 요즘 잣대로 보면 청중이 불편하게 여길 구석이 적잖은 게 사실이다. 동시대성을 화두로 붙잡은 이자람은 그간 현대 한국사회의 면면을 이야기하는 ‘사천가’ ‘억척가’ 등을 새롭게 만들어 꾸준히 무대에 올려왔다. 그 결과 이들 작품 역시 높다 높은 언어의 장벽을 깨고 여러 해외 투어 공연에서 기립박수와 함께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 냈다고 한다.

연일 쏟아지는 K컬처 예찬에 너나없이 뿌듯함을 느끼는 요즘, 조금 더 눈과 귀를 열어 자랑스러운 우리 전통 문화에도 관심 갖는 분들이 많아지면 좋겠다. 무엇보다 대중의 사랑을 되찾기 위해 용기있게 새로운 도전에 나선 예술인들에게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 주시길!

〈JTBC 본부장〉

박용필의 미국인 이야기

‘헬로’가 뒤바뀌 놓은 세상

“교환원 언니, 천국과 연결해 주세요/ 엄마가 거기 있다는데/ 천사들과 함께 황금 계단에 앉아 있데요/ 내가 전화했다는 걸 알면 꼭 기뻐하실 겐요/ 전화를 걸어줘요, 그대 줄 수 있지요?/ 엄마에게 꼭 말해주고 싶어요/ 이곳에서 우린 너무 외롭다고.”

노래 제목은 ‘헬로 센트럴, 천국과 연결해줘요(Hello Central, Give Me Heaven)’. 나온 지 백 년도 훨씬 넘는 그야말로 ‘올디’ 중의 ‘올디’다. 그런데도 매년 이맘때쯤이면 라디오 전파를 탄다. 노랫말은 물론 멜로디조차 애잔해 듣다 보면 가슴 한 켠이 찡해 온다.

‘헬로 센트럴’은 전화교환원을 일컫는다. 예전엔 교환수가 대부분 여성들이어서 ‘헬로 걸’이라고 불렸다. 센트럴은 중앙전화국쯤이 되겠다. 천국까지는 너무 먼 탓에 센트럴을 찾았던 것 같다.

노래의 실제 주인공은 여섯 살짜리 소녀. 세상을 떠난 엄마가 보고 싶고 또 아빠가 늘 풀이 죽어있어 천국에 전화를 걸어달라고 했던 것. 신문에 이 소녀의 딱한 사연이 실리자 당시 유명 싱어송라이터가 곡을 만들고 가사를 붙였다. 어린 소녀 수준으로 노랫말을 지었으니 그 감동이 오죽했으랴.

마침 생스기빙데이가 가까워 ‘헬로 센트럴’은 여성들의 눈물샘을 자극했다. 이 노래가 담긴 레코드가 백만 장 넘게 팔렸더니 그 인기를 가늠할 만할 터. 그 때만 해도 생소하게 들렸던 ‘헬로’가 노래가 히트하자 대박을 쳤다. 일상의 단어로 자리매김을 한 것. 전화가 보급되기 시작할 무렵이어서 ‘헬로’는 빠르게 입에서 입으로 전파됐다.

전화기는 누구나 아는 대로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의 작품이다. “왓슨, 내 말 들리나.” 자신의 조수 토머스 왓슨과 뉴욕-샌프란시스코 대륙횡단 전화통화를 하며 흥분해서 건넨 말이 지금도 널리

화자되는 명언이다.

전화를 만든 벨은 인사말이 필요했다. 논의 끝에 내놓은 게 ‘어호이(ahoy)’. 뱃사람들끼리 주고받던 말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어호이’가 어떻게 ‘헬로’로 바뀌었을까. 이때 발명왕 토머스 에디슨이 등장한다. 그는 전화가 기업의 생계를 뒤바뀌 놓을 것으로 내다봤다. ‘어호이’가 맘에 들 리 없었다. ‘헬로’가 탄생한 배경이다.

‘언어의 연금술사’ 마크 트웨인마저 ‘헬로’에 감탄을 금치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긍정과 혁신을 담아냈으며 찬사를 쏟아낸 것. 단어 자체가 한편의 연설 만큼이나 깊이와 무게가 느껴진다는 헬로 찬미론까지 나왔다.

벨과 에디슨. 둘은 나이도 동갑이어서 경쟁 또한 치열했다. 가방끈은 그러나 벨이 훨씬 길었다. 대학교수까지 지냈으니 ‘독학’ 에디슨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다. 에디슨은 그러나 언어 창조에도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던 모양이다.

‘헬로’는 이후 쓰임새가 넓어졌다. 굿모닝, 굿 애프터눈, 굿 이브닝, 굿 나잇 등 복잡한 인사말도 ‘헬로’ 하나면 충분하지 않는가.

“헬로, 저예요/ 시간이 모든 걸 치유해 준다고들 하지만/ 저는 그러지 못하네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헬로/ 당신에게 이 말을 하려고 천 번 넘게 전화했어요/ 당신께 상처 줘서 미안하다고.”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아텔의 메가 히트송 역시 ‘헬로’다. 특유의 허스키한 목소리와 뛰어난 가창력으로 ‘헬로’는 발매와 동시에 세계 팝 시장을 석권하다시피 했다.

얼마후엔 미국의 최대 명절인 생스기빙데이이다. 아텔의 노래처럼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다면 사과를, 멀리 있는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전화로나마 ‘헬로’를 전해보자. 따뜻한 마음씨가 전해져 서로 심쿵하지 않을까. 천국에 계신 분들에게도 ‘헬로’를 잊지 말자. 〈편집고문〉

삶이 지루하게 느껴진다면 알래스카 여행 어때요?



박정모(문리대 66) · 박인희(간호대 67) 부부의 100일 살아보기 차에서 자고 먹고 캠핑하며 낚시, 짜릿한 손맛에 엔돌핀 ‘핑핑’

바둑 용어에 ‘복기’(復棋)라는 것이 있다. 이미 승패가 결정된 바둑을 앞서 놓은 순서대로 다시 두는 것을 뜻한다.

경기의 승패와 관계없이 바둑기사들은 매 경기를 복기하면서 무얼 잘했는지, 어디서 잘못했는지, 상대의 전략과 수는 어땠는지, 무엇을 더 신경써야 할지 찬찬히 살펴본다. 복기를 하다보면 뒤늦게 후회할 때가 더 많다. 부주의로 인한 패착이 못내 아쉽기 때문일 터.

여행에도 ‘복기’가 필요하다. 복습과 정을 통해 앞으로 더 멋진 여행을 준비할 수 있어서다. 그러나 바둑과는 달리 여행을 복기하면 설레임과 스릴이 가슴 한 켠에 가득 묻어나는 것을 느낀다.

동창회보의 요청으로 우리 부부의 100일에 걸친 알래스카 여행기를 복기한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연어 낚시의 짜릿한 손맛과 끝없이 펼쳐지는 대자연의 경관이 가까이 느껴져 나도 모르게 엔돌핀이 듬뿍 솟는다.

앞서 100일의 여행이라고 썼지만 실제로 여기에 3주가 추가된다. 장기 여행을 하려면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뭐니뭐니해도 ‘필수템’은 먹거리 장만이다. 100일을 살아내기 위해 우리 부부의 입맛에 맞는 밑반찬을 마련해야 했다. 장조림과 국거리(김치찌개), 그리고 곰탕은 컨테이너에 담아 짬짬 얼렸다.

이외에도 마켓에서 깻잎, 김, 라면, 국수 따위를 챙겼다. 코스트코에서 대형 아이스박스를 사 얼음을 가득 채웠다. 미리 말해두지만 이번 여행에서 얼음값만 무려 1,500달러를 썼다.

밥은 직접 해 먹을 요량으로 쌀 3포를 샀다(햇반은 비상용으로 구입). 전기밥솥을 갖고가 캠핑장에서 직접 지어 먹었는데 전기가 없는 곳에선 버너에 불을 지폈다. 한국인들은 밥심으로 살아간다고 하지 않는가.

결혼 50주년 기념, GMC 몰고 집 떠나 출발전 타이어 네짝 새걸로 몽땅 교체 대형 아이스박스 얼음 가득 채워 ‘썩썩’

우리는 캠핑을 원칙으로 했다. 자연과 호흡을 하다보면 코비드에 걸릴까 답이 없다(사실 이 대목이 늘 신경이 쓰였다). 모텔의 그 깨끗함이란... 세상 편한 것이 캠핑이다.

드디어 6월 1일 새벽 알래스카 대장정에 올랐다. 한국에서 죽마고우들인 김

그래서 사람들이 여행을 떠나나 보다.

우리 부부의 ‘애마’는 GMC Yukon이다. 8기통 미제차여서 파워가 세다. 알래스카나 중서부 등지를 여행하려면 포드나 GM 등 미제차를 타는 것이 심리적으론 ‘안전’하다. 외제차를 타면 현지인들의 눈초리가 등 뒤에 따갑게 쏘히

알래스카 하이웨이는 전쟁의 애환이 서려있는 도로다. 1942년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무렵 미국이 일본군의 상륙에 대비, 군수물자를 운반하기 위해 만든 장장 1,000 마일이나 되는 고속도로다. 기록에 따르면 연인원 1만1,000여 명의 병사들이 하루 12~16시간씩 중노동하며 8개월만에 완공했다.

도로 연변의 광활한 지역에 셋노란 민들레가 피어나 대장관을 이루고 있었다. 창조주의 신비한 예술 작품에 그저 감탄할 밖에. 문득 ‘아리랑 민들레’가 생각나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했다.

장소현(미대 65) 동문의 LA 폭동을 소재로 한 연극이다.

“셋노란 꽃 타버린 잿더미 속에서 더욱 곱게 빛나네. 뜨거운 불길에도 타지 않는 민들레, 셋노란 아리랑 민들레~.”

알래스카의 오뉴월이 민들레의 계절이라면 7,8월은 ‘fire weed’ 시즌이다. 온천지가 진한 꽃분홍으로 장식됐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니다. 그런데도 알래스카의 ‘state flower’는 ‘물망초’(forget-me-not)다.

아련한 사연을 품고 있기 때문일까. ‘State animal’도 곰이 아닌 무스

(moose)다.

드디어 300여 마일을 달린 끝에 야망과 광야의 땅 Yukon주에 진입, 왓슨레이크(Watson Lake)에 여장을 풀었다.

이곳에서도 하이웨이를 건설한 미군 공병들의 애잔한 사연이 전해진다. 칼린들리라는 병사는 향수병에 걸린 나머지 이곳에 고향집을 가리키는 방향과 거리 표지판을 만들어 세웠다.

이것이 계기가 돼 당시 병사들은 물론 오늘날까지도 많은 관광객들이 싸인판을 세웠다. 현재 2만여개나 된다고 한다.

7월 24일, 알래스카에 발을 들여놓은지도 어느덧 37일이 지났다. <23면에 계속>



‘낚시 커플’ 박정모 · 박인희 부부. 오른쪽 사진은 수어드의 심볼인 헬리벳. 윌리엄 수어드는 링컨 대통령 시절 국무장관을 지낸 인물로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사들인 장본인이다.

종섭 서울대 총동창회장과 이경형 상임 부회장이 미주 동창회 평의원 회의 참석차 LA를 방문한다는 연락을 받았으나 양해를 구했다. 우리 부부의 결혼 50주년 기념여행이 더 소중한기 때문이다.

출발하기 전 타이어 네짝을 몽땅 새걸로 교체했다. 엔진오일은 물론이고 브레이크 패드도 갈았다. 차와 관련해 발생할지도 모를 위험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15번 프리웨이로 차를 몰았다. 창문을 살짝 열고 캘리포니아의 새벽 공기를 입으로 크게 들이마셨다. 상쾌한 기분이 발끝 세포에까지 전달되는 듯 했다.

는 듯 해 괜히 불안해진다. 우리 부부의 여행과 관련한 ‘경험칙’이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엘로스톤과 글래시어 내셔널 파크에서 6일간 캠핑을 한 뒤 캐나다에 입국, 밴프 국립공원에서 야영을 하며 캐나다인 로키스의 비경을 즐겼다. 180여 마일의 구간이지만 고산준령의 설경은 숨을 멎게할 만큼 아름다웠다.

알래스카 하이웨이의 시발점인 도슨크릭(Dawson Creek)에 도착한 때는 집 떠난지 보름여가 지나서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왔다는 할리 데이비슨 열성회원이 선뜻 우리 부부의 알래스카 방문 기념사진을 찍어줬다.

페어뱅크를 108마일 남겨놓은 지점에서 앵커리지 쪽으로 진로를 틀었다.

이번 알래스카 여행의 최종 목적지는 Kenai River의 강변도시 Soldotna. 시정부가 운영하는 센테니얼 캠프그라운드에 차를 멈춰 세웠다. 이곳은 킹 새몬(king salmon) 낚시로 유명한 곳이다. 연어 한 마리가 90파운드에 넘는다니... 이름값을 하고도 남는다.

알래스카에서 만난 가장 무서운 적은 모기때. 언젠가 유튜브에서 가장 무섭고 해로운 동물 톱10 가운데 모기가 1위에 올랐던 기억이 떠올랐다. 모기향이나 스프레이 따위로 모기 퇴치가 어렵다. 아침 저녁 장작을 태워 연기를 피워야 모기의 공격에서 간신히 벗어날 수 있다.

우리는 주로 차 안에 매트리스를 깔고 잤다. 모기때의 공격을 원천봉쇄하고, 또 땅에서 올라오는 냉기를 피할 수 있어서다. 곰이 출몰하는 지역에선 더 더욱 '차박'(car camping)이 안전하다.

연어때가 올라오는 시기가 늦어진다고 해서 다시 남쪽으로 150마일을 더 달려 수어드(Seward)란 곳에 캠프를 차렸다. 수어드는 'beginning to Alaska'로 알려진 곳이다.

링컨 대통령 시절 국무장관을 지낸 윌리엄 수어드가 의회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로부터 720만 달러(현재 가치로 1억2,500만 달러)에 사들인 것을 기념해 그의 이름을 따 만든 도시다.

이곳에선 낚시를 'snagging'이라고 부른다. 미끼는 없고 무지막지한 삼지창같이 생긴 낚덩어리가 붙은 triple hook로 꿰차 올리는 방법이다.

삼지창으로 찍어 올리는 낚시. 예전 에스키모들이 폭이 10m 정도 밖에 안되는 강바닥에 이렇게 연어를 낚아 올렸을 것 같다.

강변에는 전국에서 몰려온 수백명의 낚시꾼들과 독수리, 갈매기때가 뒤엉켜 우리 머리 위를 날라다니는 경이로운 풍경도 경험했다.

8일간의 수어드 생활을 뒤로하고 드디어 키나이 반도의 최서단 도시 호머(Homer)로 향했다. 알래스카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광어와 대구, 명태 낚시로 널리 알려져 있는 곳이다.

Homer Spit는 멀리서 보면 마치 바늘침같은 육지의 연속선으로 캠프그라운드는 RV파크, 레스토랑, 술집 등 온갖 엔터테인먼트 시설로 가득차 있다.

이곳 명소 중 하나인 선술집 Salty Dawg Saloon은 대낮에도 손님들로 북적이는 곳이다. 손님들이 사인하고 걸어놓은 1달러 짜리 지폐가 온 천장과 내부를 장식해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서부개척시대로 되돌아간 듯한 느낌이 든다.

한번은 배를 타고 광어낚시에 나섰다. 20여 명을 태운 배에는 낚시에 필요한 도구가 모두 준비돼 있었다.

누구나 두 마리를 잡을 수 있는데 한 마리는 28인치 이상, 나머지 한마리는 그 이하의 것을 잡아야 하는 규정이 있다. 가장 큰 광어는 위스콘신에서 왔다는 80대 할머니 한 분이 낚았는데 무려 124파운드나 돼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연어반 물반, 한 마리가 무려 90파운드 '삼지창'으로 물고기 낚기도, 스틸 만깍 연어알로 '캐비아' 담아, 알고 보니 젓갈

레인젤(Wrangell) 국립공원에선 알래스카의 신비한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다. 특히 발데즈의 '알래스카 파이프라인'은 무척 인상적이었다. 북해에서 채굴된 원유가 800 마일이나 되는 송유관

월 후 방출돼 바다로 나가게 된다. 매년 2억7,000만 마리의 핑크 연어와 200만 마리의 실버 연어 새끼들이 방출된다고 한다. 2~3년 후 평균 회귀율은 3~3.5%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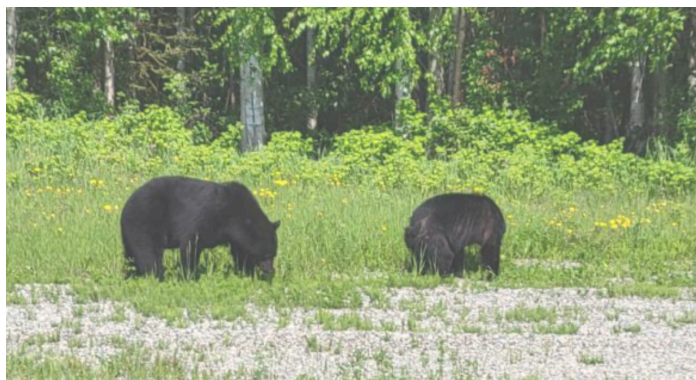
주변에는 낚시터가 많아 주로 가족 단위로 와 피싱을 즐긴다. 워낙 핑크 연어가 많아 때로는 낚시하는 발밑에까지 오글오글 모여들어 우리 부부도 연어를

수도 없이 잡아 풀어주는 이른바 'catch & release' 낚시를 하는 초유의 경험을 했다.

이제 본격적인 연어 잡이에 나섰다. Soldotna는 미국 본토는 물론 전세계에



연어알 캐비아. 강가엔 물반 연어반일 정도로 수백만 마리가 바글대고 있다.



알래스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블랙 베어.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다.

을 통해 마지막으로 도착하는 곳이 바로 발데즈다.

이 원유는 유조선에 의해 미국 본토로 수송되는데 절반 이상이 캘리포니아에서 소비된다고 한다. 동문들께서는 20여 년 전 엑손 유조선의 원유 유출 사고를 기억하실 것이다. 지금은 재난을 거의 극복한 듯 보인다.

발데즈에는 흑곰들의 출몰이 아주 빈번한데 먹이(연어)가 풍부하기 때문인 것 같다.

발데즈에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솔로몬 걸치 부화장'(Solomon Gultch Hatchery)이 있다.

연어알과 정자를 채취해 부화시키는 데 이곳에서 선택돼 후손을 남기려면 무려 29단계의 사다리 수로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여기서 생산된 새끼 연어들은 6~8개

서 연어낚시꾼들이 몰려들어 캠프사이트 잡기가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라는 소식에 일찍 서둘렀다.

Kenai 강가엔 1마일에 걸쳐 176개의 캠프사이트가 배치돼 있지만 이미 대부분 낚시꾼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가장 이상적인 사이트는 낚시터와 가깝고 모기가 많지 않으며 또 프라이버시가 있어야 한다.

Soldotna 방문센터에는 기념물이 하나 서있다. 1985년 5월 17일 세계에서 가장 큰 킹 새몬(97.2 파운드)이 잡힌 것을 기념해 세운 것이다. 주인공인 레스 앤더슨의 나무상과 실제 크기의 연어를 나무로 깎아 만들어 전시하고 있다.

연어는 5종류가 있다. 각자 모두 특징을 갖고 있으며 잡히는 시기와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연어 낚시는 일반 낚시와 확연히 다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끼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연어낚시는 미끼가 필요없다. 바다에서 3~4년 성장한 연어는 고향을 찾아 강물을 거슬러 올라갈 때는 먹지 않고 긴 여행을 한다. 따라서 연어낚시는 미끼가 필요없는 것이다.

연어는 산란여행 중 먹지는 않아도 숨쉬기 위해 입을 빼꼼 거리는데 이때 낚싯줄이 입 속에 들어가 끝에 매여 있는

바늘이 연어의 입에 걸려 낚는다.

한가지 재밌는 것은 입 이외의 다른 곳에 바늘이 걸려 잡는 것은 '실격'이어서 모두 풀어줘야 한다. 'foul hook'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를 어기면 벌금을 물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스포츠 피싱' 정신에 어긋난다고 해서 지탄을 받는다.

가장 대접을 받지 못하는 연어를 chum 또는 dog salmon이라 부르는데 개도 안 먹는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이라고 한다.

나머지 4종류의 연어 - chinook(red), coho(silver), sockeye(red), hump(pink) -를 모두 잡으면 '그랜드 슬램'이라고 부른다. 올해는 그러나 '그랜드 슬램' 달성이 불가능하다.

King salmon이 보호종목으로 낚시가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triple hit'만이 가능하게 됐다.

올해는 sockeye 풍년이다. 음향탐지기에 18만 마리가 체크포인트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모두들 고무됐다. sockeye는 현재의 과학기술로도 양식을 못해 모두 천연산이다.

이번 알래스카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연어알로 캐비아(caviar) 만드는 법을 배웠다는 점이다.

현지 주민들조차 연어알에 관심이 없어 강물에 던져 버리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다. 그 귀한 것을...

러시아에서 온 낚시꾼들로부터 캐비아 만드는 법을 배웠는데 결국 성공하고야 말았다. 맛은 철갑상어 캐비아 만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에 못지 않았다.

그런데 캐비아란 것도 알고 보면 별거 아니다. 우리의 젓갈 만드는 식으로 소금에 절이면 된다. 젓갈을 넣고 김장을 하면 6개월 이상 신선한 김치를 먹을 수 있으니 우리 조상들의 지혜에 새삼 감탄하게 된다.

노르웨이나 스웨덴에선 정어리를 젓갈로 만들어 먹는데 우리는 새우, 멸치 등 수십가지나 된다. 요즘은 멍게 젓갈도 나와 내 입을 즐겁게 해주고 있다.

LA를 출발할 때 마일리지 계기는 6만이었는데 집에 와서 보니 7만2,000 마일을 가리키고 있었다. 100일 동안 장장 1만2,000마일을 뒀던 것이다.

은퇴하기 전 생업이 CPA여서 우리 부부는 4월 택스 시즌이 끝나면 남미를 비롯해 중국, 유럽, 아프리카 등 거의 안가본 곳이 없을 만큼 여행을 즐겼다.

그런데 정말 꼭 가봐야 할 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다. 정말 아름다운 나라다.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하고... 그중 베스트를 꼽으라고 하면 단연 알래스카다. 그것도 우리처럼 '차박' 여행을 권한다.

내년에 알래스카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동문들은 주저하지 말고 연락하시기 바란다. 우리 부부만이 알고 있는 팁을 알려드리겠다.

"자연도 건강, 우리도 건강!"

jungmopark0408@gmail.com

since 1999 **듀오** USA

대표이사 박수경
[84入 소비자학과]

결혼해듀오



www.duouusa.net

LA **213-383-2525**
NY **201-947-2525**

www.yongsusanla.com



개성요리 · 궁중요리 전문점

용수산 YONG SU S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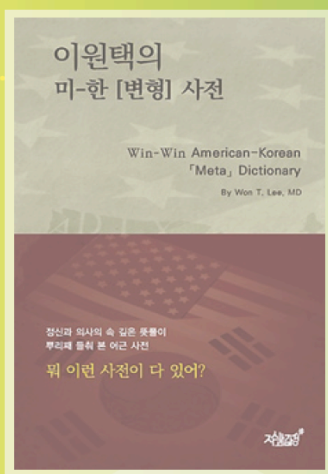
traditional korean cuisine

Tel : **213. 388. 3042** Mon thru Sun 11:30am ~ 10pm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정신과 의사 (의대 '65)

이원택의 미·한 변형 사전

21세기 미국인이 생활 현장에서 쓰는 영어를
(어원 추적) (파생어별 정렬) (소설식 풀이)를 통해
[한글 발음] [한글 해석] [대체 한글] 로 표기한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처방} 사전이다.



IT 용어, 신조어·콩글리시 등 부록 22편
총 1236쪽 양장제본, 정가 35불

구매처: LA 반디서점
(213)739-8107, bandibookus.com



www.snuaa.org

서울대 미주동창회 CENTURY FOUNDATION

미주동창회 재정자립 모금 캠페인

후원해 주신 동문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변함없는 사랑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영원히 새겨질 나의 이름”
서울대 미주동창회 종신이사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는 미국 내에서 최초의
면세 혜택을 승인받은, 26개 지부 및 미주지역
2만여 동문을 대표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종신이사

다이아몬드이사 (\$100,000이상)

워싱턴주 - 고평광선(공대57)

플래티넘이사 (\$50,000이상)

조지아 - 주종광(약대60)
조지아 - 허지영(문리66)

골드이사 (\$10,000이상)

남가주 - 김일영(의대65)
남가주 - 노명호(공대61)
남가주 - 박창규(약대59)
남가주 - 서치원(공대69)
남가주 - 성낙호(치대63)
남가주 - 심화섭(약대61)
남가주 - 이기준(법대54)
남가주 - 이병준(상대55)
남가주 - 이홍표(의대58)
남가주 - 한홍택(공대60)
네바다 - 정상진(상대59)
뉴잉글랜드 - 박영철(농대64)
뉴잉글랜드 - 윤상래(수의62)
뉴잉글랜드 - 정선주(간호68)
뉴잉글랜드 - 최홍균(공대69)
북가주 - 김정희(음대56)
북가주 - 민병곤(공대65)
북가주 - 전해준(문리67)
시카고 - 이용락(공대48)
워싱턴주 - 양남주(명예이사)
코네티컷 - 오인석(법대58)
워싱턴DC - 이태영(법대60)

실버이사 (\$5,000이상)

남가주 - 고평원경(약대59)
남가주 - 김병연(공대68)
남가주 - 이종도(공대66)
남가주 - 정재훈(공대64)
남가주 - 한귀희(미대68)

루지애나 - 강영빈(문리58)
워싱턴주 - 김재훈(공대72)
워싱턴DC - 남옥현(경영84)
조지아 - 김경숙(사대64)
조지아 - 김태형(의대57)
필라델피아 - 이만택(의대52)
필라델피아 - 신의석(공대53)

종신이사 (\$3,000이상)

남가주

故노재성(법대58)
故서영석(의대55)
故오재인(치대33)
故윤낙승(의대60)
강신용(사대73)
곽웅길(문리59)
권기홍(의대60)
권봉성(문리64)
김경숙(간호68)
김기형(상대75)
김동훈(의대71)
김보연(간호63)
김상찬(문리65)
김성호(법대64)
김수영(사대57)
김재영(농대62)
나두섭(의대66)
류재풍(법대60)
박명근(상대63)
박용필(문리66)
박원준(공대53)
박윤수(문리48)
박종수(수의58)
방명진(공대73)
백만일(공대64)
서동영(사대60)
신영찬(의대63)

심상은(상대54)
안병일(의대63)
오홍조(치대56)
이근원(공대67)
이명선(상대58)
이세열(사대57)
이승훈(상대74)
이청광(상대61)
임낙균(약대64)
임용오(의대57)
전희택(의대58)
정동구(공대57)
정임현(간호72)
정철룡(의대55)
제영혜(가정71)
조용원(문리66)
조한원(의대57)
차민영(의대76)
차중환(사대54)
하기환(공대66)
한효동(공대58)
벤자민 홍(문리53)
홍성선(약대72)
홍종화(약대74)

뉴욕

故김광호(문리62)
故한창섭(문리57)
강에드워드(사60)
고애자(음대57)
권영국(상대60)
김승호(공대71)
김종률(사대51)
김한중(의대56)
김해암(의대52)
배정희(사대54)
석창호(의대66)

신영남(농대70)
윤종숙(약대66)
이강홍(상대60)
이기영(농대70)
이대영(문리64)
이재덕(법대60)
이재량(상대61)
이전구(농대60)
이준행(공대47)
이태호(상대58)
최수용(상대55)
최영태(문리67)
추재욱(의대57)
한태진(의대58)
허선행(의대58)

뉴잉글랜드

故고일석(보건69)
故박경민(의대53)
김광수(문리73)
고종성(사대75)
김문소(수의61)
김용구(공대66)
오세경(약대61)
윤선홍(치대64)
이의인(공대68)
전신의(문리57)
정정욱(의대60)
정태영(문리71)
홍지복(간호70)

워싱턴DC

공순옥(간호66)
방은호(약대43)
박평일(농대69)
서희열(의대57)
오인환(문리63)

이내원(사대58)
이선구(문리65)
이윤주(상대63)
최지원(의대61)

미시간

故남상용(공대52)
장병진(공대61)
정태(의대57)

샌디에고

임천빈(문리61)

북가주

강재호(상대57)
손석보(공대68)
윤정옥(약대50)
한만섭(공대49)

시카고

강영국(수의67)
심상구(상대63)
이재희(치대67)
장윤일(공대60)
조봉완(법대53)
최의필(의대53)
한재은(의대59)

오레곤

김상순(상대67)
이은상(상대52)

미네소타

강연식(사대58)
권기현(사대53)
김권식(공대61)
김태환(의대58)

남세현(공대67)
민흥기(문리61)
변우진(인문81)
조형준(문리62)
황호숙(사대65)

아이오와

김시근(공대72)

오하이오

김용현(경원66)

워싱턴주

故김영일(공53)
이명자(간호74)
이희백(의대55)
임현민(공대84)

조지아

김용건(문리48)

코네티컷

유시영(문리68)

플로리다

김중권(의대63)

텍사스

박태우(공대64)
이광연(공대60)
조시호(문리59)

필라델피아

고병은(문리55)
김영우(공대55)

김현영(수의58)
서종민(공대64)
손재욱(가정77)
신성식(공대56)
주기목(수의68)

하틀랜드

김경숙(가정70)
김명자(문리62)
배규영(사대68)
오명순(가정69)
이교락(의대53)
이상강(의대70)

휴스턴

박진섭(의대67)

이사 구분

다이아몬드 이사
\$100,000 이상

플래티넘 이사
\$50,000 이상

골드이사
\$10,000 이상

실버이사
\$5,000 이상

종신이사
\$3,000 이상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2005 / 213-908-5586

www.snuaa.org
news@snuaa.org

보내주신 사랑 감사합니다.

동창회비 (제1차 회기: 2022.7.1 - 2023.6.30; 제2차 회기: 2023.7.1 - 2024.6.30) 볼드는 제 2차회기

남가주

강경수(법 58)
강동순(법 59)
강윤희(간 46)
강창만(의 58)
강호석(상 81)
강홍제(상 53)
고윤석(공 62)
권기상(대 72)
김건진(문 62)
김경(문 63)
김경수(사 54)
김경옥(미 61)
김광은(음 56)
김교복(농 63)
김국간(치 64)
김근(농 78)
김동산(법 59)
김명숙(농 58)
김문엽(농 83)
김범수(문 61)
김병연(공 68)
김병완(공 58)
김상찬(문 65)
김석구(공 66)
김석홍(법 59)
김수향(간 68)
김순길(법 54)
김순자 치 57)
김영덕(법 58)
김영중(치 66)
김옥경(생 60)
김원탁(공 65)
김원호(약 63)
김일영(의 65)
김은숙(미 62)
김정(치 59)
김정호(농 59)
김종범(상 64)
김종표(법 58)
김재영(농 62)
김진식(공 66)
김태환(문 78)
김학철(의 55)
나두섭(의 66)
노명호(공 61)
니승욱(문 59)
문경호(문 59)
문병길(문 61)
박명근(상 63)
박서규(법 56)
박영옥(사 55)
박우선(공 57)
박원준(공 53)
박은숙(미 62)
박인수(농 64)
박인창(농 65)
박용 (문 89)
박종수(수 58)
박찬호(농 63)
박창규(약 59)
박취서(약 60)
박호현(의 52)
박희자(음 68)
방명진(공 73)
배동완(공 65)
백승호(치 55)
백혜란(미 70)
서동영(사 60)
서의원(공 66)
서치원(공 69)
성주경(상 68)
손기용(의 55)
손학식(공 61)
송명국(문 81)
신건호(법 53)
신동국(수 76)
신정연(미 61)
심재호(공 75)
양태준(상 56)
오윤표(음 56)
오선웅(의 63)
오찬수(약 57)
오형원(의 53)

위종민(공 64)
유석홍(상 61)
유영자(음 63)
유이중(농 74)
윤경민(법 55)
윤석철(상 60)
윤희성(치 65)
이강훈(치 65)
이건섭(치 54)
이건일(의 62)
이덕승(의 54)
김경수(사 54)
이마정(의 78)
이방기(농 59)
이범모(치 74)
이범식(공 61)
이서희(법 70)
김(농 78)
이성자(간 76)
이소희(의 61)
이영수(상 60)
이영현(간 70)
이원익(문 73)
이원택(의 71)
이장길(치 63)
이재룡(문 65)
이정근(사 60)
이정화(공 52)
이종모(간 69)
이준호(상 65)
이진영(의 65)
김영덕(법 58)
이제진(문 55)
이청광(상 61)
이해영(공 56)
이호(음 92)
이호진(간 74)
김은숙(미 62)
임낙균(약 64)
임동규(미 57)
임동호(약 55)
임문빈(상 58)
임재영(공 59)
임창희(공 73)
장근숙(간 73)
장기열(치 55)
장기창(공 56)
장동석(문 66)
장소현(미 65)
장윤희(사 54)
장인숙(간 70)
전낙관(사 60)
전원일(의 77)
전상욱(사 52)
정병혁(농 70)
정수만(의 66)
정연웅(상 63)
정민환(법 54)
정재형
정진우(의 66)
정형민(문 71)
정황(공 64)
조경애(음 64)
조상하(치 64)
조상호(농 51)
조선주(간 69)
조재국(농 67)
주민희(음 51)
주정래(상 65)
지종근(농 56)
최영구(상 61)
최영순(간 69)
최영지(미 62)
최용완(공 57)
최종권(문 59)
추교훈(농 63)
한동수(의 60)
한성구(상 61)
한원민(의 59)
한종철(치 62)
한홍택(공 60)
한효동(공 58)
홍병각(문 55)
홍선례(음 70)

홍선일(공 71)
홍수웅(의 59)
황건홍(공 55)
황현상(의 55)

뉴욕

강교숙(간 73)
강에드워드(사 60)
계동휘(치 67)
고애자(음 57)
곽노섭(문 45)
권영국(상 60)
권문웅(미 61)
권정덕(의 58)
금영천(약 72)
김기택(수 81)
김동환(약 60)
이소희(의 61)
김병권(문 63)
김복영(간 69)
김세환(공 65)
김승호(공 71)
김영길(문 62)
김영숙(공 71)
김영숙(약 53)
김영철(의 55)
김영희(간 53)
김완주(의 54)
김용연(문 63)
김유순(간 64)
김정희(약 56)
김정희(간 69)
김창수(약 64)
김현중(공 63)
리준무(음 65)
이홍표(의 52)
박건이(공 60)
박경희(음 57)
박상원(음 69)
박수안(의 59)
박순영(법 56)
박승화(간 69)
방준재(의 63)
배상규(약 60)
배정희(사 54)
서량(의 63)
서충선(사 57)
석옥진(의 66)
선종철(의 57)
성기로(약 57)
손갑수(약 59)
손완배(농 70)
송근숙(간 66)
송기인(의 60)
송용길(대 69)
신두식(의 58)
신응남(농 70)
신춘희(간 56)
안태홍(상 65)
안명자(사 63)
양성택(상 66)
오용호(의 66)
오용환(약 68)
우규환(사 60)
우상영(상 59)
원인순(문 67)
유재섭(공 65)
윤병남(사 62)
윤영섭(의 57)
윤인숙(간 63)
윤철(문 54)
최영정(문 59)
이강홍(상 60)
이명중(공 72)
이상근(경 84)
이상무(의 56)
이영재(사 58)
한성구(상 53)
이재덕(법 60)
이재진(의 59)
이태봉(의 56)
이태안(의 61)
이해청(약 62)
이형근(수 60)

전성진(사 54)
정동성(상 58)
정해민(법 55)
조남천(사 59)
조득환(의 61)
조중수(공 64)
차국만(상 56)
최영태(문 67)
최정웅(시 63)
최한웅(농 58)
최혁(음 72)
최형우(법 69)
한병용(문 71)
한승순(간 70)
허선형(의 58)
허영자(약 63)
허용웅(상 83)
허유선(생 83)
현건섭(공 55)
홍정표(음 67)
홍종만(공 64)

뉴잉글랜드

김경일(공 58)
김기남(간 67)
김선혁(약 59)
김형범(문 57)
박영철(농 64)
박종근(의 56)
송미자(농 62)
윤영자(미 60)
윤상래(수 62)
이강원(공 66)
이규진(약 60)
정선주(간 68)
주창준(의 50)
최선희(문 69)

네바다

김택수(의 51)
이학은(약 57)
정상진(상 59)

미네소타

남세현(공 67)
문성민(공 88)
변우진
성욱진(치 87)
송제진(치 78)
송창원(문 53)
이창재(문 51)
주한수(수 62)

미시간

김우신(의 60)
김재석(의 61)
김정화(음 56)
김희주(의 62)
고선희(문 63)
남성희(의 56)
신동화(문 55)
오동환(의 65)
윤효윤(의 63)
이만우(의 61)
이성길(의 55)
이재순(문 67)
장철(의 65)
조문희(공 56)
조영현(음 95)
주명순(간 64)
하계현(공 64)
한영신(생 86)

북가주

강윤희(간 72)
강재호(상 57)
강정수(문 61)
권오은(의 58)
김기덕(문 74)
김정희(법 56)
김현왕(공 64)
김희경(음 73)
남광순(음 64)
박경용(약 63)

박서규(법 56)
박종성(법 53)
부영무(치 72)
손창순(공 69)
송영훈(상 57)
신규영(공 64)
안호삼(문 58)
오명주(간 77)
온기철(의 65)
위장호(의 67)
이강우(문 59)
이성원(공 65)
이성형(공 57)
이은수(사 64)
이장우(문 72)
이정남(공 63)
임승쾌(문 66)
임정란(음 76)
전병련(공 54)
정지선(상 58)
정춘임(간 67)
정한규(의 63)
천동우(공 63)
최경선(농 65)
한상봉(수 67)
홍병익(공 68)
황동하(의 65)
황만익(사 59)

샌디에고

오계환(공 64)
윤진수(의 57)
이문상(공 62)
이휘영(법 59)

시카고

강영국(수 67)
김길준(의 59)
김갑중(의 57)
김규호(의 58)
김동희(공 66)
김사직(상 59)
김성일(공 68)
김승주(간 69)
김용주(공 69)
김용환(공 71)
김현주(문 61)
노영일(의 62)
박정일(의 61)
박창욱(공 56)
서상현(의 65)
소진문(치 58)
송재현(의 46)
신석균(문 54)
안신훈(공 61)
안영학(문 57)
안창현(의 55)
오명자(간 60)
육길원(사 59)
윤경순(사 61)
이경미(미 69)
이덕수(문 58)
이동균(공 75)
이소희(간 68)
이승자(사 60)
이시영
이영섭(수 56)
이영우(문 66)
故 이윤모(농 57)
이종일(의 65)
임영신(의 56)
임현재(의 59)
정승규(공 60)
정연학(공 63)
최대한(의 53)
최혜숙(의 53)
최희수(문 67)
한익일(공 62)
한재은(의 59)
황치룡(문 65)

알레스카

윤제중(농 55)

오레곤

한영준(사 60)
최용성(의 55)

오하이오

김태웅(의 61)
송용재(의 63)
유덕영(공 57)
이영웅(의 62)

워싱턴DC

고무환(법 57)
권정도(치 63)
권철수(의 68)
김동훈(법 56)
김명자(법 52)
김명철(공 60)
김용덕(의 53)
김윤호(공 64)
김응환(치 88)
김해식(공 59)
김희주(의 62)
나연수(사 54)
박영태(상 63)
박영호(공 64)
박인영(의 69)
박일영(문 59)
박후우(문 61)
백순(법 58)
서윤석(의 62)
석균범(문 61)
양광수(공 73)
오광동(공 52)
오인환(문 63)
우관해(음 63)
우제형(상 54)
원종민(약 57)
유달(의 61)
유영준(의 70)
유정식(수 60)
유한창(공 69)
유홍열(문 74)

이건형(수 54)
이규양(문 62)
이내원(사 58)
이선구(문 65)
이성배(수 57)
이수안(공 54)
이연주(치 88)
이영덕(사 61)
이영목(공 59)
이윤주(상 63)
이재승(의 55)
이중국(의 52)
이준영(치 74)
이철수(공 61)
이해청(약 62)
정원자(농 62)
조영희(문 66)
조화영(문 61)
천건희
최경수(문 54)
최동호(문 68)
최재귀(미 63)
한익생(수 60)
홍영석(공 58)
황보한(공 56)

콜로라도

이정화(의 61)

테네시

김경덕(공 75)
서갑식(공 70)

텍사스

김장환(공 81)
박유미(약 62)
박태우(공 64)
송요한(문 73)
유황(농 56)
윤영주(문 60)
이석호(농 78)
전중희(공 56)
조진태(문 57)
진기주(상 60)
천양곡(의 63)
황명규(공 61)

플로리다

김동한(문 53)
김성준(의 55)
박창익(농 64)
오석일(의 64)
이정필(의 58)
임필순(의 54)
조동건(공 69)

워싱턴주

김인배(수 59)
김재호(상 54)
김재훈(공 72)
류성열(공 72)
민영기(공 65)
박진수(의 56)
양용관(수 62)

윤석진(문 64)
이길송(상 57)
이원섭(농 77)
이희백(의 55)
장대홍(공 65)
장현길(공 60)
전병택(상 65)
정영자(사 56)

유타

김인기(문 58)

조지아

김기준(공 61)
김영서(상 54)
김학래(공 60)
김현희(간 59)
노한순(농 56)
서광모(공 65)
송용덕(의 57)
오경호(수 60)
이중석(의 54)
임수암(공 62)
임한웅(공 60)
정선헌(공 65)

캐롤라이나

김기현(문 52)
마동일(의 57)
이종영(음 58)
한광수(의 57)

커네티컷

김기훈(상 56)
라찬국(의 57)
신경호(의 57)
최창승(의 52)
홍성휘(공 56)

캘리포니아

이정화(의 61)

테네시

김경덕(공 75)
서갑식(공 70)

텍사스

김장환(공 81)
박유미(약 62)
박태우(공 64)
송요한(문 73)
유황(농 56)

윤영주(문 60)
이석호(농 78)
전중희(공 56)
조진태(문 57)
진기주(상 60)
천양곡(의 63)
황명규(공 61)

플로리다

김동한(문 53)
김성준(의 55)
박창익(농 64)
오석일(의 64)
이정필(의 58)
임필순(의 54)
조동건(공 69)

필라델피아

김경희(생 71)
김국간(치 64)
김순주(치 95)
김영우(공 55)
김정현(공 68)

김재술(약 58)
김진우(공 62)
김현영(수 58)
배성호(의 65)
서의원(공 66)
서종민(공 64)
성기호(상 59)
성정호(약 59)
손재욱(생 77)
송성균(공 50)
신선자(사 60)
신성식(공 56)
안세현(의 62)
오진석(치 56)
윤경숙(문 59)
윤정나(음 57)
이규호(공 56)
이만택(의 52)
이문호(공 53)
이성숙(생 74)
정덕준(상 63)
조영호(음 54)
조정현(수 58)
조화연(음 64)
지홍민(수 61)
최종무(상 63)
최현태(문 62)
한동휘(문 57)

하와이

김달욱(사 45)
김용진(공 50)
박성재(상 57)
안은식(문 55)
이재형(수 61)
하인환(공 56)
최경윤(사 51)

하트랜드

김경숙(가 70)
오태호(의 56)
정민재(공 70)
최은관

휴스턴

김영일(의 55)
박석규(간 59)
유한창(공 69)
이길영(문 59)
최관일(공 54)
최성호(문 58)
최용현(의 53)

알림

동문들께서 보내주신 동창회비와 후원금은 매월 말일 마감해서 올립니다. 혹시 누락된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snuaausa30@gmail.com

일반후원금, 장학기금, 모교발전기금, 광고후원금, 지부 분담금, 우크라이나 기부금 2021.7.1 - 2023.6.30

일반후원금

남가주	
강신용 (사73)	200
구철헌 (의78)	125
권기상 (대72)	105
김기형 (상75)	1,400
김동석 (음64)	200
김병익 (공68)	200
김새담 (법55)	25
김영 (수63)	500
김영봉 (사60)	200
김영중 (치66)	75
김영희 (간54)	50
김영우 (수62)	1,000
김영준 (음59)	400
김종철 (문66)	100,000
김종표 (법58)	200
나두섭 (의66)	200
노명호 (공61)	25,000
노진걸 (사70)	200
박용필 (문66)	1,000
박우선 (공57)	500
박원준 (공53)	200
박원숙 (미62)	200
박중수 (수58)	12,000
박혜란 (음72)	300
방석훈 (문55)	500
성주경 (상68)	200
송영두 (공59)	200
신영철 (의63)	200
안혜정 (생77)	200
오윤표 (음56)	200
오찬수 (약57)	200
오홍조 (치56)	50
유의영 (의62)	200
이건일 (의62)	200
이명선 (상58)	500
이법식 (공61)	575
이병준 (상55)	3,000
이소희 (의61)	75
이장길 (치63)	50
이정신 (법57)	500
임낙균 (약64)	1,000
장동석 (문66)	200
전낙관 (시60)	75
전원일 (의77)	75
정균희 (의65)	10,000
정신 (대92)	1,000
정재훈 (공64)	260
최용완 (공57)	100
최종권 (문59)	220
최진석 (법64)	25
한귀희 (미68)	2,000
한홍택 (공60)	200
황현상 (의55)	350

뉴욕	
강에드워드 (사60)	200
강창홍 (의63)	50
고애자 (음57)	50
권영국 (상60)	200
금영천 (약72)	1,000
김명철 (공60)	200
김승호 (공 71)	1,000

김완주 (의54)	75
김은희 (간78)	200
김종원 (사58)	50
김종권 (의63)	200
리준무 (음65)	200
문석면 (의52)	200
박순영 (법56)	75
서량 (의63)	75
선종철 (의57)	100
신응남 (농70)	2,400
오용호 (의66)	200
이강홍 (상60)	200
이재덕 (법60)	75
이전구 (농60)	500
조남천 (사59)	350
조태환 (상56)	50
차수만 (약71)	300
최한용 (농58)	1,500
최혁 (음72)	200
한승순 (간70)	150
허선행 (의58)	400
홍중만 (공64)	200
네바다	
정상진 (상59)	350
미네소타	
문성인 (공88)	50
미시간	
김희주 (의62)	225
오동환 (의65)	400
윤효윤 (의56)	200
이성길 (의65)	100
이정화 (음56)	200
이재승 (의55)	75
뉴잉글랜드	
윤상래 (수62)	500
박영철 (농64)	100
박중승 (의56)	200
정선주 (간68)	100
주창준 (의50)	200
북가주	
부영무 (치72)	200
한상봉 (수67)	500
황만익 (사59)	200
샌디에고	
이휘영 (법59)	75
임춘수 (의57)	200
플로리다	
오석일 (의 64)	200
임필순 (의54)	200
조경호 (의66)	200
하트랜드	
고 차봉희 (의51)	500
이상강 (의70)	10,000
최은관	500
하와이	
김용진 (공 50)	100
오레곤	
김상순 (상67)	200

시카고	
김현주 (문61)	100
소진문 (치58)	400
이영섭 (수56)	75
이용락 (공48)	1,000
임영신 (의56)	100
정의철	250
최희수 (문67)	200
한경진 (상59)	200
텍사스	
박영규 (사66)	200
이석호 (농78)	200
진기주 (상60)	500
황명규 (공61)	200
필라델피아	
윤경숙 (문59)	200
이만택 (의52)	400
이성숙 (생74)	200
이승공 (의63)	200
정태광 (공74)	100
지흥민 (수61)	200
손재욱 (생77)	200
워싱턴	
민영기 (공65)	75
조지아	
정양주 (의60)	25
김용건 (문48)	200
송용덕 (의 57)	200
워싱턴DC	
강길중 (약69)	200
고우환 (법57)	200
권철수 (의68)	200
김동훈 (법56)	200
김영준 (치88)	200
남옥현 (경84)	1,000
박평일 (농69)	900
박홍우 (문61)	200
변광록 (간72)	200
백순 (법58)	200
서문석 (의62)	200
석균범 (문61)	200
석보환 (사68)	200
오인환 (문63)	600
유영준 (의70)	175
이건형 (수54)	25
이내원 (수58)	75
이선구 (문65)	275
이연주 (치88)	200
이영록 (공59)	200
정평희 (공71)	200
조화유 (문61)	75
테네시	
김경덕 (공 75)	100
캐롤라이나	
한광수 (의57)	500
커네티컷	
김기훈 (상56)	200
최창승 (의52)	500

캐나다 밴쿠버	
장희순 (문75)	388
광고후원금	
남가주	
강호석 (상81)	240
고석자 (인72)	600
김경무 (공69)	400
김양희 (음77)	3,700
김원탁 (공65)	480
김은중 (상59)	600
김자성 (의79)	1,500
김정빈 (공66)	500
나두섭 (의66)	200
나정자 (간70)	400
미주동창회 (11대)	1,000
미주재단	12,000
민일기 (약69)	500
박수경 (생84)	3,600
박제환 (문75)	500
박찬호 (생58)	300
서동영 (사60)	480
서지원 (공69)	2,500
안혜정 (생77)	800
양수진 (간80)	500
이기준 (법54)	500
이명선 (상58)	1,000
이범모 (치74)	250
이병준 (상55)	1,200
이상대 (농80)	240
이원택 (의65)	2,200
이종묘 (간69)	480
임준택 (상68)	400
정재훈 (공64)	240
주영세 (사59)	400
차민영 (의76)	7,500
최무식 (약66)	240
최용준 (수81)	400
한효홍 (공58)	300
홍훈정 (음70)	400
뉴욕	
김기택 (수81)	240
김승호 (공71)	1500
석창호 (의66)	240
신응남 (농70)	240
이전구 (농60)	240
워싱턴DC	
남옥현 (경84)	9,300
이내원 (사58)	1,000
이태영 (법60)	1,800
모교발전기금	
남가주	
박우선 (공57)	300
박원준 (공53)	700
배병욱 (음 58)	300
이범모 (치74)	200
홍선일 (공71)	100
샌디에고	
임춘수 (의57)	200

워싱턴DC	
권철수 (의68)	100
최재귀 (미63)	300
워싱턴주	
이원섭 (농77)	150
필라델피아	
손재욱 (생77)	100
플로리다	
오석일 (의64)	100
장학기금	
남가주	
박원준 (공53)	300
이법식 (공61)	100
전상욱 (사52)	100
한홍택 (공60)	50,000
시카고	
김현주 (문61)	100
이용락 (공48)	300
최혜숙 (의53)	100
북가주	
신규영 (공64)	200
뉴욕	
선종철 (의57)	100
신응남 (농70)	200
이강홍 (상60)	500
필라델피아	
손재욱 (생77)	100
윤경숙 (문59)	100
미시간	
이정화 (음66)	175
워싱턴 DC	
오인환 (문63)	175
조지아	
이종석 (의54)	200
Brain Network	
시카고	
이용락 (공48)	200
조중행 (의63)	100
필라델피아	
손재욱 (생77)	100
워싱턴 DC	
서취열 (의57)	300
지부분담금	
샌디에고	550
뉴욕	3,000
뉴잉글랜드	1,000
워싱턴DC	2,000
필라델피아	1,000
시카고	2,400

조지아	800
오레곤	300
플로리다	300
오하이오	300
알래스카	200
남가주	3000
캐롤라이나	200
하와이	300
미네소타	600
Charity Fund(나눔)	
남가주	
이법식 (공 61)	100
임낙균 (약 64)	3850
필라델피아	
손재욱 (생77)	100
시카고	
강영국 (수 67)	100
우크라이나 기부금	
남가주	
구상선	50
노명호 (공 61)	1,000
유의영	100
이정남	200
이호진 (간74)	100
서진 (간56)	3,000
안혜정 (생77)	300
한홍택 (공60)	1,000
홍중화 (약74)	500
북가주	
이창우 (문72)	100
뉴욕	
민준기 (공59)	100
조상근 (법69)	1,000
조지아	
김용건 (문48)	200
유성무 (상66)	300
오레곤	
한영준 (사60)	100
워싱턴DC	
최재귀 (미63)	200
커네티컷	
유시영 (문68)	500
워싱턴	
이길송 (상57)	100
시카고	
김신웅 (생59)	300
재환수 (사61)	200
휴스턴	
진기주 (상60)	1,000
캐나다 밴쿠버	
장희순 (문75)	100
뉴잉글랜드	
윤상래 (수62)	200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회비 및 후원금

동창회 후원금	동창 회비	업소록 광고비	특별 후원금
☐ \$200	☐ \$100 (2022.7 - 2023.6)	☐ \$240 (2022.7 - 2023.6)	☐ Scholarship Fund (장학금) \$_____
☐ \$500	☐ \$200 (2022.7 - 2024.6)	☐ \$480 (2022.7 - 2024.6)	☐ Charity Fund (나눔) \$_____
☐ \$1,000			☐ Brain Network 후원금 \$_____
☐ \$_____	☐ \$3,000 이상(종신이사회비)	일반 광고 문의: snuaausa30@gmail.com	☐ 모교발전기금 \$_____

후원금 용도: 장학금은 뛰어난 동문들의 학업을 돕는데 사용됩니다. Charity Fund는 동창회 자선 사업을 위해 쓰입니다. 모교발전기금은 모교와 미주 동창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쓰입니다.

Brain Network 후원금은 석학 초빙 강연회 등 동문들간의 네트워킹 증진을 위해 쓰입니다. 종신 이사회비는 SNUAA-USA Century Foundation 에 적립됩니다.

동창회 후원금과 동창 회비는 회보 발간 및 미주동창회 행사와 제반 운영을 위해 사용됩니다. 동문님의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Total: \$_____.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보낼 곳: SNUAA-USA,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2005 | Tel: (213)908-5586 | Email: snuaausa30@gmail.com

(보내주시는 회비 및 후원금 합계가 \$250 이상 되시는 동문께는 영수증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한글이름:	영문이름:	단과대:	입학연도:	지부:
E-mail:		Cell Phone:		
*주소가 바뀔경우에만 기입 바랍니다.				
주소:				

남가주지역

마켓

Han Nam Chain Market

하기환(공대66)

213-381-3610

2740 W. Olympic Blvd., LA, CA 90006

변호사

한태호 변호사 법률 그룹

한태호(인문대 75) www.haanlaw.com

213-639-2900

3699 Wilshire Blvd., #860, LA, CA 90010

신혜원 변호사

신혜원(사대 81)

213-385-3773

3435 Wilshire Blvd., #2230, LA, CA 90010

Law Office Of Kyung Hee Lee

이경희(인문대 83) imin@iminusa.net

213-385-4646

3435 Wilshire Blvd., #1110, LA, CA 90010

부동산

Team Sprit Realty

이종묘(간호대 69) jenniecelee@gmail.com

714-396-0624

6301 Beach Blvd., #225, Buena Park, CA 90621

식품/음식점

자연나라

이승훈(상대 74)

562-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해태 USA

정정우(수의대 74)

323-890-0101

7227 Telegraph Rd., Montevello, CA 90640

북창동 순두부

이태로(법대 50)

213-382-6660

3575 Wilshire Blvd., LA, CA 90010

병원

실로암병원

정균희(의대 64)

213-386-8602

2528 W. Olympic Blvd., #103, LA, CA 90006

동물병원

Van Buren Animal Hospital

오영문(수의대64)

951-687-2630

5535 Van Buren Blvd., Riverside, CA 92503

Animal Medical Clinic

신동국(수의 76)

714-990-1411

3257 Associated Rd., Fullerton, CA 92835

San Bernardo Foot Clinic Inc.

이상대(농대 80)

909-882-3800

2095 N. Waterman Ave., San Bernadino, CA 92404

Gilbert Drugs

최무식(약대 66)

714-638-8230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공인회계사

Kyung Moo Kim

김경무(공대 69) kyungmookim@yahoo.com

(213) 616-1390

114 Washing Blvd., #C, Marina Del Ray, CA 90292

SHIN-YONG KANG CPA

강신용(사대 73) 공인회계사

(213) 380-3801

385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Lee Kang Won CPA

이강원(인문대 76)

(213)387-1234

3600 Wilshire Blvd., #930, LA, CA 90010

GSK LLP

강호석(상대 81) cpa@hosukgangcpa.com

(213)380-5060 (LA, CA)

(714)530-3630 (Garden Grove, CA)

JUN CHANG

장 준(인문대 85)

(818)772-2811

11145 Tampa Ave., Suite 26A Northridge, CA 91326

임춘택 공인회계사

임춘택(상대 68) choontaikim@gmail.com

(213)380-4646

3700 Wilshire Blvd., #750, LA, CA 90010

김원철 CPA

김원철(농대) kimandhwang@cs.com

213-383-8553

3435 Wilshire Blvd. #940, LA, CA 90010

기계 · 기술 · 전자

Link TV Media www.linkboxusa.com

김원탁(공대 65) linkboxusa@gmail.com

818-720-2373

24208 Park Athena, Calabasas, CA 90302

Turbo Air, Inc.

서치원 (공대 69)

(310)719-5422

3421 Oakridge Terrace, Calabasas, CA 91302

Tayco Engineering, Inc.

정재훈(공대 64) jchung@taycoeng.com

(714) 952-2240

10874 Hope St. PO Box 6034, Cyroess, CA 90630

자동차 · 서비스

A.P.W. 자동차부품

서동영(사대 60)

(310)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기타

ACCU Construction, Inc.

염동해(농대 74)

818-720-2373

2098 S. Grand Ave., Suite A, Santa Ana, CA 92705

뉴욕지역

공인회계사

KI CPA & Associates Llc

이경림(상대 64)

1430 Broadway St., 306, New York, NY 10018

리테일

New York Golf Center

이전구(농대 60) www.nycgolfcenter.com

212-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변호사

신응남 변호사

신응남(농대 70) petershinesq@gmail.com

718-463-3131

158-14 Northern Blvd. 2FI #UI-2 Flushing, NY 11358

금융

Edward Jones Investments-

윤의규(상대 82) edwarded.yun@edwardjones.com

201-978-7055

560 Sullivan Ave St 3270 Englewood Cliffs NJ 07632

병원

백승원 위장내과

백승원(의대 73)

201-302-9774

1608 Lemoine Ave., #200 Fort Lee, NJ 07024

석창호 위장내과

석창호(의대 66) changhsuk@aol.com

718-461-6212

41-61 Kissena Blvd., #27 Flushing, NY 11355

이창석 내과

이창석(의대 72) cleel34597@aol.com

718-762-4400

40-5 Browne St., Flushing, NY 11354

김해암 정신의학 전문의

김해암(의대 53) haeahm@aol.com

212-879-2322

230 East 73Rd Street St., 1A, New York, NY 10021

박범열 소아과

박범열(의대 75)

718-229-1188

211-50 45th Dr., Bayside, NY 11361

박종효 소아과

박종효(의대 79)

201-242-1002

44 Sylvan Ave., Englewood Cliffs, NJ 07632

Ridgefield Park Animal Hospital

김기택 (수의대 81)

201-814-0095

199 Main St., Ridgefield Park, NJ 07660

김치갑 통증병원

김치갑(의대 73)

201-541-1111

475 Grand Ave., Englewood, NJ 07631

Lic Hotel / 뉴욕스파 앤 사우나

김승호(공대 71)

718-463-0001

44-04 21St St., Queens, NY 11101

전미주 서울대 동문의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동창회를 이끌어가는 힘은 동문들의 격려와 후원입니다.

협회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십시오.



제16대 노명호 회장&임원 일동/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2005

Tel: 213-908-5586 Email: snuausa30@gmail.com



서예반 모집

지도: 정인환(법대 54)

일시: 매주 화 10AM~12PM
장소: 작가의 집 동리홀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오늘까지 일구어온 모든 가치가 지켜질 수 있도록,
그리고 내일엔 더 가슴 뛰는 이야기가 꽃피울 수 있도록,
귀하의 가문만을 위한 서비스를 디자인합니다.

Manage Your Family Like a Business

웰씨앤와이즈 패밀리오피스

Multi-generational Wealth Management
영속적 가문 자산관리

Next Generation Education
다음세대 교육

Investment Strategy
투자전략

Concierge
컨시어지

Philanthropy
필란트로피



Wealthy & Wise
 ■ Baltimore ■ Honolulu ■ Seoul
 ■ 410.469.9532 ■ 345 N. Charles St, Baltimore, Maryland
 ■ 808.427.8434 ■ 1003 Bishop St, Suite 2700, Honolulu, Hawaii
 ■ www.wnwinc.co.kr ■ info@wnwinc.co.kr
 ■ 이태영 (법학과 60) 웰씨앤와이즈 설립자, 상임고문
 ■ 박상우 (경영전문대학원 06) 웰씨앤와이즈 한국법인 대표이사

이종건(경영대 84)

한국 재산과 미국 재산 상속을 오랜 경험의 상속법 전문 이종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한국 재산상속에 대해서도 캘리포니아주법을 알아야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 * 미국에서 한국 재산과 미국 재산의 유언장 작성
- * 미국 재산 리빙트러스트 작성
- * 한국 재산에 대한 상속등기
- * 한국 상속세 절세
- * 한국 부동산 매매 및 양도소득세 절세

JKLAWUSA, A PROFESSIONAL CORPORATION

한미국제법률사무소

USA 3435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 787-3107 Fax. (714) 494-7649

Korea Hanmi International Law Firm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길 11, 310호(역삼동, 한화진넥스빌)
Office. 02-561-9797 Fax. 02-561-9696



제16대 미주동창회

회장 노명호(공)
상임고문: 김종섭(문),
고문: 박종수(수), 주종광(약)

차기회장 이상강(의)
명예회장 신응남(농)

역대회장
박윤수(문), 강수상(의), 이병준(상), 오인석(법),
이용락(공), 오홍조(치), 이영목(공), 이진구(농),
송순영(문), 김은종(상), 오인환(문), 손재욱(가),
윤상래(수)

브레인 네트워크/포럼 위원회
위원장: 한홍택(공)
위원: 김정빈(공), 김재훈(공), 김유경(음),
차재호(농), 정호(공), 이관후(공)

후원위원장 서치원(공)
위원: 차민영(의), 강성진(문)

집행부
사무총장: 강호석(상)
총무국장: 이호진(간)
재무국장: 이윤종(미)
IT 국장: 심재호(공)
문화 광고국장: 홍선례(음)
섭외국장: 안혜정(생)
홍보국장: 김자성(의)

동창회보
발행인: 노명호(공)
편집 고문: 박응필(문), 김정현(공)
편집위원: 김양희(음), 박승현(음), 이준수(공)
장만구(공), 한정희(미), 허유선(가)

장학위원회
위원장: 노명호(공)
위원: 한홍택(공), 황경순(공), 강호석(상),
남성우(공), 김태환(자), 홍주선(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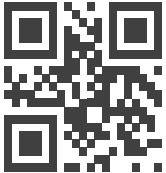
회칙위원회
위원장: 김병연(공)
위원: 김용현(상), 김지영(사), 성주경(상),
이민연(법), 조화연(음), 최경선(농), 최진석(법),
한재은(의)

포상위원회
위원장: 노명호(공)
위원: 각 지부 회장

감사: 김경무(공)
김영태(미)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SNU Alumni Association USA

전화 (213)908-5586	이메일 news@snuuaa.org	웹사이트 www.snuuaa.org
주소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2005		
미주동창회 회보 편집 규정 본 회보에 게재된 모든 기고문은 회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투고된 글의 게재 여부는 편집회의 등을 통하여 결정됩니다.		



미주 지역동창회 회장단

알림: 2022년 새로 지부장이 결정된 곳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snuuausa30@gmail.com

남가주 S.CA/NV (회계연도 Feb~Jan)
회장 박제환(문리 75) T: (323)229-3369
jaycpa2000@gmail.com
차기 회장 김경무(공대68) T: (213)210-1110
kyungmookim@yahoo.com

북가주 SAN FRANCISCO (Jan~Dec)
회장 최경선(농대 65) T: (408)621-8080
kschoi@comcast.net
차기 회장 김법섭(공 79)

샌디에고 SAN DIEGO (Nov~Oct)
유재호(공대 90) T: (469)387-7922
blue9071@gmail.com

워싱턴주 WASHINGTON (Jan~Dec)
회장 이명자(간호 74) T: (206)218-8887
drmalee@gmail.com
차기 회장 하혜숙(간호 77) T: (425)240-5633
annaparkha@gmail.com

오하이오 OHIO (Jan~Dec)
이성우(상대 72) T: (614)370-5761
Rimshake@hotmail.com

하와이 HAWAII (Jul~Jun)
회장 성낙길(문리 77) T: (217)508-8711
nsung@hawaii.edu
차기 회장 전수진 T: (808)956-8283
soojin@hawaii.ed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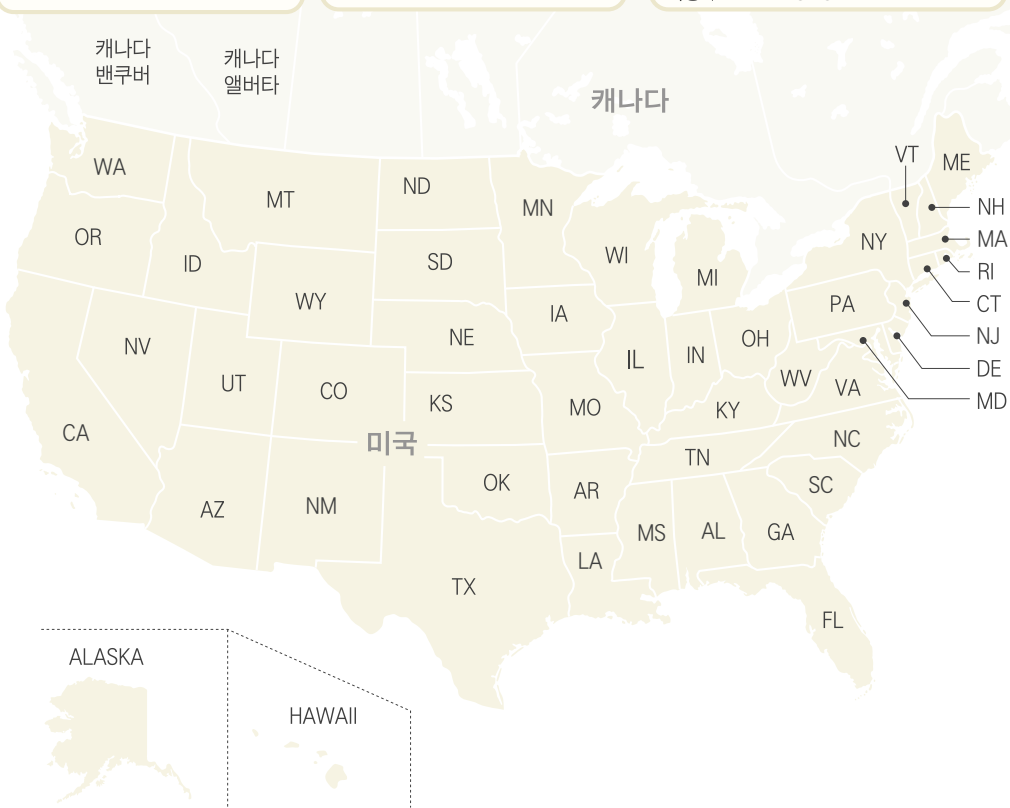
북텍사스 LA/DALLAS (Jan~Dec)
김순기(치대 82)
EricSophia@gmail.com

중부텍사스 MID-TEXAS
이학호(수의대 59) T: (512)487-4390
Hakho3830@gmail.com

룩키마운틴스 MT/CO/WY/NM (Jan~Dec)
최문기(공대 73)
mungichoi@hotmail.com

캐나다 밴쿠버 (Jan~Dec)
장희순(문리 75) T: (236)513-0376
p21.snuainvan@gmail.com
sphro17@gmail.com

오레곤 OR/ID (Jan~Dec)
박희진(농대 78) T: (503)648-0775
hjpark@flonomix.com



캐나다 앨버타 (Mar~Feb)
정중기(공대 70)
T: (403)617-7585

알래스카 ALASKA (Jan~Dec)
윤재중(농대 55) T: (907)223-0887
jaejuon@hotmail.com

미시간 MICHIGAN (Jan~Dec)
회장 이광진(공 81), 248-595-2836
kmikelee@umich.edu

시카고 IL/IN/WI (Jan~Dec)
회장 김승주(간호 69) T: (630)341-1943
seungjoochang@gmail.com
차기 회장 황치룡(문리 65) T: (847)895-2814
chi.whang@gmail.com

미네소타 MINNESOTA (Jan~Dec)
회장 차재호(농공학 84) T: (651)769-5343
jaehocha@yahoo.com
차기 회장 용정식(농화학 86) T: (610)952-3673
jyong@umn.edu

뉴잉글랜드 MA/RI/NH/ME/VT (Jul~Jun)
회장 임영호(공대 72) 978-490-0118
Ynghlim@yahoo.com
차기 부장 최진민(공대 71) T: (617)877-0387
jinchoi52@gmail.com

뉴욕 NY/NJ (July~Jun)
회장 금영천(약대 72) T: (718)791-4397
yckum52@gmail.com
차기 회장 김정필(공대 71) T: (201)965-7759
jaypkim@keiusa.com

워싱턴 DC DC/MD/VA/WV (Jan~Dec)
회장 박상근(법대 75) T: (703)447-8175
sangkuenpark@gmail.com
차기 회장 정세근(자연대 82) T: (703)785-8467
saekewn@gmail.com

커네티컷 CT
박용해(상대 83) T: (203)767-8187
yhptax@gmail.com

필라델피아 PA/DE/SNJ (Jul~Jun)
회장 이종태(사대 71) T: (267)266-2881
leejt1530@gmail.com

애리조나 ARIZONA
정인주(농대 82) T: (602)510-9196
snuarizona@gmail.com

유타 UTAH (Jan~Dec)
김한섭(공대 93) T: (734)904-9672
hanseup@ece.utah.edu

조지아 GA/AL/MS (Jan~Dec)
배혜영(음대 79) T: (678)943-9043
lhylbae@gmail.com

캐롤라이나 SC/NC/KY (Jan~Dec)
정신호(자연대 78) T: (417)277-1636
sinho.jung@duke.edu

휴스턴 HOUSTON (Jan~Dec)
구자동(상대 70) T: (713)206-1041
jykey2003@yahoo.com

하틀랜드 IA/MO/KS/NE/AR/OK (Jan~Dec)
임소연(음대 91) T: (785)764-6985
syounchun@gmail.com

플로리다 FLORIDA (Jan~Dec)
최희덕(사대 68) T: (973)610-5857
heeduklee@gmail.com

테네시 TENNESSEE (Jan~Dec)
김상호(공대 86) T: (856)386-1094
kimsh@ornl.gov



이명선(상대 58)

HOUSTON FEARLESS 76



A Division of HF Group

Houston Fearless provides products and services to the Department of Defense supporting multiple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Intelligence (ISR) ground support platforms and applications. Our field-proven products and personnel are supporting activities at flight test facilities, forward operating locations, and military bases around the world. Houston Fearless is the recognized leader in sustaining U-2 ground support systems. Today, Houston Fearless continues to provide outstanding support to the U-2 program and is leaning forward to provide superior systems in support of fielded ISR platforms such as Project Liberty, Gorgon Stare, Predator, and Blue Devil. As new systems have been fielded, Houston Fearless has expanded and improved on our extensive line of products and services to properly support these systems. Houston Fearless is minority owned small business and a registered DoD contractor. Our facilities and highly skilled workforce are located on Beale Air Force Base in Northern California. In its celebrated 30 year relationship with the Air Force, Houston Fearless has become a trusted and respected partner to the Department of Defense community and has been instrumental to mission success in the past and will continue to play this role in the future.

310-605-0755
www.hf76.com
203 W Artesia Blvd, Compton, CA 90220

www.Seoulmedicalgroup.com

차민영(의대 76)

**빠르고
정확한
리퍼!**

메디케어 HMO 주치의 선택은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입니다!



메이저리그 코리안 특급
박찬호

나를 가장 잘 아는 주치의 선생님!
빠르고 정확한 리퍼로 꼭 필요한 전문의를
찾아주는 서울 메디칼 그룹과 함께하는
어르신들이 진정한 건강 영웅입니다!

**시니어 여러분들이
건강영웅!**

※ 광고에 나오는 인물들은 모두 실제 환자는 아니며 서울 메디칼 그룹의 모델들임을 알려드립니다.